차 례

제 4 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새로운 력사적투쟁 조직령도

〔주체63(1974). 2－주체69(1980). 10〕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행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것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다. 이로부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다.

이 시기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한편 혁명대오안에서는 세대교체가 일어나 해방후에 자라난 새 세대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새로운 환경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을 새 세대들이 순결하게 계승해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혁명위업계승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이다.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옳바로 해결해야 수령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그러자면 수령의 후계자를 옳게 내세워야 한다.

수령의 후계자를 잘못 내세우면 당이 롱락당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이 쓰라린 진통을 겪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과 건설을 말아먹게 된다. 이것은 세계혁명의 력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던 력사적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이였다.

수령의 후계자는 결코 누구나 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나갈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원만히 갖춘 인민의 지도자만이 될수 있다.

수령의 후계자는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공헌으로 하여 당과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만이 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수령의 후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전무결하게 갖추시고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풍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창시절과 당중앙위원회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는 과정에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인적풍모,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위대한 귀감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주체형의 혁명가의 제일생명으로 내세우시고 끝없는 충실성으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혁명실천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예술, 숭고한 덕성을 그대로 체현하신 혁명의 세련된 지도자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득하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 심화

발전시키시였다. 그리고 수령님의 령도를 보좌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수령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득하시였다. 이와 함께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그대로 체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시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어버이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또한 혁명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그리고 문학예술혁명을 직접 조직령도하시여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업적의 위대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심장깊이 체득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김정일**장군님을 인민의 지도자로 끝없이 흠모하며 우러러따랐다.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소망은 오래전부터 형성되고 공고화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을 맞이한 그날부터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칭송하면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높이 모시려는 념원이 깊이 뿌리내리였다. 이 념원은 1960년대 중엽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으로 더욱 깊이 간직되였다. 197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경모하는 지도자》, 《영명한 지도자》, 《친애하는 지도자》로 칭송하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의 별》을 지어불렀다면 이 시기 우리 인민들은 송가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고 따르는 송가들을 지어 널리 불렀다.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돌격대가 되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었다.

많은 부문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온 나라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실데 대한 청원서와 편지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수많이 올리였다.

특히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로 모시려는 념원을 더욱 절절하게 간직하고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과 국가, 군대를 령도하셔야 민족의 장래가 담보되고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있었다.

주체63(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시였다.

그리하여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시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신것을 일대 민족적경사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결의를 담은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항일의 로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계자로 모신것을 우리 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대통운으로 환영하면서 장군님께 충실할 결의들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

이 력사의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열렬한 축원과 기대에 감사를 표시하시면서 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전사의 한사람이다, 우리모두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더 많은 일을 하자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행운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심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었다.

혁명위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며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는 위대한 사업.

령도예술—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 능력과 수완 및 방법.

2.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정식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 선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정식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것은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이 시기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나갈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공인된 지도사상으로 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여야 하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정식화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찌부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심오한 사색과 진지한 탐구를 진행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그 준비사업으로서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였다.

그 과정에 이전에 나온 혁명사상의 진수와 그 제한성,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본질적특징과 그 력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집무실에서는 물론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실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사색과 저술사업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였다.

주체60(1971)년 9월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실 때만 하여도 낮에는 일군들과 만나시여 사업을 토의하시고 밤에는 저술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지어 어찌다 차례진 순간의 휴식마저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에 바치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는 무포의 7호물동가에 낚시를 드리우시고 깊은 사색을 이어가시였다.

이때 수행한 일군이 다가가 모처럼 휴식하러 나오신것만큼 오늘만은 모든것을 잊으시고 쉬셔야 하겠다고 절절하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사색에서 깨여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늘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하시며 주체사상이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지 못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두만강의 흐름이 영원하듯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오늘의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앞으로

> **무포**
>
> 량강도 대홍단군 무봉로동자구의 두만강상류에 있는 유서깊은 곳.
>
> 펑퍼짐한 고원지대에 봉우리 하나가 우뚝 솟아있다고 하여 이곳을 무봉이라 불렀고 무봉뒤쪽 바위짬에서 물이 솟아나 개울이 시작된다고 하여 무포라고 부르게 되였다.
>
> 무포에는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인 무포숙영지가 있고 거기에서 1 500m가량 떨어진 7호물동가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든 무포낚시터가 있다.

도 변함없이 빛을 뿌리게 될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하시였다.

정력적인 사색과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기회에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정식화할데 대한 확고한 결심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2(1973)년 여름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하고 우리 시대를 **김일성**시대로 부를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후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의정식화에 바치신 사색과 탐구의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아마 자신께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학창시절부터 읽은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주체사상탑을 고이고있는 대돌만큼 될는지도 모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드디여 주체63(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의의 본질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구성체계를 갖춘 혁명사상이다.

김일성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다. **김일성**주의의 모든 내용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 있다.

김일성주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다. 그리고 주체의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령도방법이다.

이처럼 **김일성**주의는 주체의 사상, 주체의 혁명리론, 주체의 령도방법으로 이루어진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의의 근본특징도 밝혀주시였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김일성**주의가 이전시기 혁명리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일성**주의야말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불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장군님께서 자신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하고 **김일성**주의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는 참으로 유명한 정의를 내렸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신것은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세계 혁명적인민들도 **김일성**주의기치밑에 인류의 자주위업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혁명사상정식화—어떤 혁명사상인가에 대하여 일정한 정의로 규정하는것.

전일적인 체계—전체가 오직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되거나 하나의 갈래로만 되여있는 체계.

지도사상—당, 국가 및 조직과 인민들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서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지침으로 되는 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 선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가장 옳바른 투쟁강령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목적지향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시대, 자주시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하여야 할 최종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를 뚜렷이 밝힌 당의 최고강령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최고강령을 새롭게 규정할것을 구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 사업은 곧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이며 우리 당이 내세워야 할 최고강령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6(1967)년에 반당수정주의분자들과의 투쟁을 벌리시는 과정에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라는 표현으로 정식화하여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울 결심을 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2(1973)년에 있은 여러 회의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중요한 전략적방침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에게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였다고 인정하시였다.

무엇보다 **김일성**주의가 우리 혁명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이미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공업화가 실현되였다.

또한 우리 당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공고화되고 온 사회의

통일단결이 강화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63(1974)년 2월 19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본질적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서로 뗄수 없는 두가지 본질적내용을 담고있다.

그 하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철저히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은 결국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다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강령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왜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도 밝히시였다.

그것은 우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라는 구호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 뚜렷이 밝혀져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최종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는 바로 **김일성**주의에 기초하고 **김일성**주의가 완전히 구현된 사회이다.

따라서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려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 구호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밝혀져있기때문이다.

김일성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로정과 그 과정에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며 **김일성**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은 **김일성**주의당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주의의 기치밑에 가장 뚜렷한 목표와 휘황한 설계도를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을 더욱 확신성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최고강령을 선포한 2월의 선언은 주체시대의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빛발이였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과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이다.

최고강령—최종적인 투쟁목적과 그 실현방도를 규정한 강령.

강령—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자기의 지도사상, 투쟁목적, 성격, 파업 등을 집약적으로 밝힌 문건.

전략—혁명의 전반적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침. 전략은 일정한 혁명단계에서는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는다.

3. 전당의 **김일성**주의화 적극 추진

전당 **김일성**주의화방침 제시

전당의 **김일성**주의화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고 기본열쇠이다.

당은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이다. 전당을 철저히 **김일성**주의화하여야 당을 통하여 **김일성**주의의 영양소를 온 사회에 힘있게 뿜어줄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와 사람들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더 잘, 더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1970년대 중엽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로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였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시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전국당조직일군강습을 발기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어느날 일군들이 만들어올린 강습제목들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조직일군들을 **김일성**주의당사업리론으로 무장시키자면 현실적으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습제목들을 더 선정해주시였다.

이어 제강집필방향으로부터 서술체계, 문장표현에 이르기까지 제강집필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종래의 제강이나 교재를 자꾸 보느라고 하지 말고 내용을 대담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별히 힘을 넣어 서술할 대목들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만들어올린 제강을 하나하나 검토하시고 수정가필까지 하여주시였다. 제강의 매 장, 매 절에서의 중심을 선명하게 부각해놓기도 하시고 뜻이 명백치 않거나 내용이 빈약한 곳, 문제를 전개하는 각도가 맞지 않거나 장황하고 산만하게 서술된 부분들을 다 바로잡아주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당건설리론을 담은 당조직일군강습제강이 훌륭히 완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습기간과 규모를 이제까지의 어느 강습보다도 크게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어느날 강습진행계획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크게 마음먹고 계획한것이 고작 이것인가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다그치자고 하는데 몇사람에게만 우리의 의도를 알려주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전당의 조직일군들을 빠짐없이 참가시켜 한달동안 강습을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63(1974)년 7월초부터 8월초까지 한달동안에 걸쳐 평양에서는 전례없이 큰 규모의 강습이 진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편 강습에서 하실 결론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63(1974)년 8월 2일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 마감날에 하신 결론에서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선 전당 **김일성**주의화의 본질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다 **김일성**주의 정수분자로 만들며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김일성**주의당으로,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만든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김일성**주의정수분자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당의 **김일성**주의화는 결국 **김일성**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김일성**주의당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그것은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시작된 당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다음으로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자면 당안에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건설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워야 우리 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숨쉬고 움직이는 하나의 혁명대오로 만들수 있다. 그리고 당의 전투력과 역할을 높여 **김일성**주의위업을 실현하는 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전당의 **김일성**주의화는 본질에 있어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 유일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물론 지난 시기 이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지만 이 사업을 잠시도 늦출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전당을 간부화하며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전당을 간부화하고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그것은 전당을 간부화하고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당대렬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리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김일성**주의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당 **김일성**주의화방침은 력사상 처음으로 당건설목표와 근본방도를 밝혀준 독창적이며 완성된 당건설강령이다.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전당 **김일성**주의화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당사업체계—간부들과 당원들,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제도와 질서, 원칙의 총체.

우리 당 사업체계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이다.

당사업방법—정치사업을 앞세워 당원들과 군중들이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혁명에 동원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방법.

당건설—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

당활동—당의 강령과 규약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마련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사업이 전면에 나선 새로운 환경은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혁명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촉진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당조직들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시기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 과정에 우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와 인연이 없는 여러가지 결함들이 나타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간부의 직위를 그 어떤 벼슬자리로 생각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써 일하지 않고있었다. 개별적간부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

지거나 아부아첨하는 현상도 없어지지 않고있었다.

지어 일부 단위들에서는 개별적인 간부가 한 말을 가지고 《지시》요, 《결론》이요 하면서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것은 사업과 생활의 옳바른 기준을 가지고 투쟁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업과 생활의 기준과 규범으로 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제원칙을 작성하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하게 일하시였다. 시급히 결론을 바라는 문건들을 보시고 비준해야 하시였고 개별적일군들을 만나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론해주고 구체적인 사업방향도 밝혀주어야 하시였다.

하지만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기준과 규범을 하나하나 작성해나가시였다.

어느날 한 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작성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제원칙을 밝힌 문건을 보여주시였다.

그 일군에게 이 문건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요구가 집대성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원칙에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힘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가 반영되여있다고, 자신께서는 이 원칙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충실성의 규범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은 이렇게 작성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63(1974)년 4월 14일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세상에 발표하시였다.

10대원칙에서 무엇보다먼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총적과업을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전

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의 기본품성으로 규정하시고 충실성의 기본요구, 기본척도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김일성**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척도로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수령님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며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 기본척도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며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대원칙에서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원칙적요구들과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 발표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게 되였으며 우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마련해주시고 이 원칙에 대한 재접수, 재토의사업을 전당적인 대사상전으로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우선 10대원칙 재접수, 재토의사업을 포치하시고 당조직들이 그 준비사업을 잘하도록 하시였다.

무엇보다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10대원칙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진행하게 하시였다. 또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10대원칙의 매 조항에 따라 당조직사상생활과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모든 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게 하시였다.

무엇보다 10대원칙 재접수, 재토의사업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당면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10대원칙을 재접수, 재토의하는 사업은 그 목적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준비시키자는데 있을뿐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자는데 있었다. 그런것만큼 10대원칙을 재접수, 재토의하는 사업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또한 각급 당조직들에 당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지도소조를 파견하여 10대원칙을 재접수, 재토의하는 사업이 편향없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평양시당위원회에서 먼저 재접수, 재토의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 다음 거기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전국의 당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당조직들에서 진행하는 재접수, 재토의사업전반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10대원칙 재접수, 재토의사업은 주체63(1974)년말부터 주체65(1976)년사이에 전당적으로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재접수, 재토의사업을 통하여 우리 당은 더욱 강화되고 간부들과 당원들은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더욱 단련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하신 다음 그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마련하시고 이 원칙에 대한 재접수, 재토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것은 우리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

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상과 관점의 체계.

사상전—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모든 면에서 온갖 낡은것을 뿌리빼고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당의 유일적지도체제 확립

이 시기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운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지도체제를 세운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자면 후계자를 옳바로 내세우는것과 함께 후계자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고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대를 이어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수령의 후계자로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당에 있어서 장군님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적인 문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는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지도체제입니다.》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는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를 실현하는 지도체제였다.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를 통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수령님

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지도체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적지도체제 확립의 기본요구를 밝히시였다.

그것은 당사업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관리제를 철저히 실현하고 장군님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는것이였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와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도 뚜렷이 밝히시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며 이 사업을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실속있게 진행하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이다.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울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우선 당조직사상사업에서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의하여 처리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전당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63(1974)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끝내시고 함경남도에 이르시는 길로 도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함흥시를 돌아보시였다.

이 과정에 함경남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대로 받아물지 않고있다는것을 느끼시였다.

그때 함흥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편지관철과 관련한 구호 한장 나붙지 않았다. 그 어디에 가나 《속도전》, 《전격전》, 《섬멸전》이라는 구호도 찾아볼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함경남도에서는 구호 하나 볼수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한 일군이 외국선박이 많이 들어오기때문에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구호를 써붙이지 않았다고 대답올리였다.

한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다른 도는 외국인들이 다니지 않고 대외관계가 고려되지 않는가고 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사상교양사업을 하는가고 엄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도의 일군들은 자신들이 범한 과오의 엄중성을 깨닫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최근 당에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제기하였는데 구호 한장 써붙이지 않은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함경남도에서는 아직도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엄하게 비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런 현상들을 사건화하여 투쟁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각급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유일적령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사업전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가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으며 우리 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전위대오로,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전투적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지도체제—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일적인 계통을 이루고있는 조직의 제도.

유일관리제—당조직사상사업을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조직령도하는 제도.

4. 군중과의 사업 강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면 우리 당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짜고들어야 하였다. 그래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다그칠수 있었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선포된 시기에 와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러나 일부 당조직들과 일군들속에서는 군중과의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하지 못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에서 적지 않은 부족점을 나타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중과의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군중과의 사업방침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중과의 사업의 총적과업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의 총적과업은 각계각층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열렬한 혁명가로,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그들이 **김일성**주의의 기치따라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적과업은 각계각층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이 **김일성**주의의 기치따라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이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그러므로 각계각층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는 것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적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을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얼마 안되는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한편 광범한 군중을 최대한으로 쟁취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이 방침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이러저러한 편향을 없애고 군중과의 사업의 총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당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고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고 이 사업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중과의 사업방침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얼마 안되는 적대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선 군중과의 사업지도서를 새로 작성하여 내려보내게 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지도서》를 만들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그 작성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과 마주 앉으시여 한조항한조항 따져가며 완성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군중과의 사업지도서에 사람과의 사업은 믿음으로 일관시켜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깊은 뜻이 폭넓게 반영되게 되였다.

새 지도서가 마련됨으로써 군중과의 사업에서는 오래동안 내려오던 낡은 틀이 깨여지고 이 사업을 옳은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적극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당조직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계층별특성에 맞게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무엇보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기본군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지반이며 혁명의 핵심력량이다. 그러므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혁명의 지반을 튼튼히 꾸리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그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적들이 발붙일수 있는 틈을 없애고 적들을 고립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복잡한 군중속에는 지난날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지은 죄를 깊이 깨닫고 씻기 위하여 애써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실정에서 일군들이 복잡한 군중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하시였다.

여러 기회에 일군들에게 사람을 평가하는데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현재의 사상동향을 기본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군중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편 당조직들이 복잡한 군중을 대담하게 믿고 아량있게 포섭하여 교양개조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주체64(1975)년 3월 어느날 강원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중과의 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이 어려운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아무리 가정환경이 복잡하고 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에 충실하고 당을 따라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고 다 믿고 아량있게 포섭하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해 나서는 선차적인 조건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일군들이 복잡한 군중속에 맺혀있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주며 그들의 공로에 대하여 옳게 평가해주도록 하시였다.

그해 70일전투총화때였다. 일군들이 올린 표창대상자명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정주위환경과 생활경위가 복잡하다고 하여 일부 사람들이 명단에서 빠졌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갈라보는 버릇이 언제부터 붙었는가고 하시며 일군들을 나무라시였다. 계속하여 70일전투기간에 그 《문제시된다》는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잘 싸웠는가고 하시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들만 똑똑하고 동무들만 혁명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에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평가하는데서 출신이나 경력을 가지고 차별을 두려는 태도와 그 사소한 표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단호한 립장과 드놀지 않는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그리하여 《문제》가 있다던 사람들의 사업성과가 옳게 평가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사랑과 믿음으로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혁명적군중관점－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 관점. 혁명적군중관점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기본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인 사상관점이다.

기본군중－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이 직접 뿌리를 박고있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

5. 전군의 **김일성**주의화 적극 추진

전군 **김일성**주의화방침 제시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주력군이며 사회의 한 구성부분이다. 그런것만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면 반드시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해야 한다.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여야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그것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다.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는것은 1970년대 중엽 혁명무력건설에서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혁명무력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언제나 총대를 중시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던 그 시기에 벌써 인민군대를 그 실현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주체63(1974)년 2월 18일 저녁 조선인민군 책임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래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는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력사적인 위업을 세상에 선포하기 전에 왜 동무들을 불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당이 아무리 새로운 로선을 내놓아도 무장대오가 당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동지를 규합하고 무장대오를 결속하시는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신것처럼 조국통일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도 인민군대를 믿고 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인 인민군대가 앞장서리라고 믿는다는 인민군대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주시였다.

이날에 하신 말씀에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여기시고 언제나 총대를 믿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려는 철석같은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후에도 인민군대가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본보기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63(1974)년 4월 중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책임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수표가 있는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친히 수여해주시고나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 이 구호에는 사회의 한 구성부분인 인민군대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요구가 중요하게 반영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인민군대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야 하며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모든 군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특히 인민군대의 간부들을 먼저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키울데 대하여 간곡하게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주체64(1975)년 1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전군 **김일성**주의화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 **김일성**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전군 **김일성**주의화의 본질적내용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드는것은 군건설의 총적임무입니다.》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한다는것은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군사사업을 철저히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전군 **김일성**주의화는 무엇보다도 모든 군인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모든 군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

형의 혁명가로, 높은 군사적자질과 무쇠같은 체력을 가진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우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전군 **김일성**주의화는 또한 군사사업을 철저히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전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현대적무장으로 장비하며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 싸우는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부대를 지휘관리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면 이를 위한 당정치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인민군대간부대렬을 잘 꾸리며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단계와 목표를 바로 세우고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군 **김일성**주의화방침은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성할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전군 **김일성**주의화방침이 제시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혁명군대를 진정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완성된 군건설강령이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우리 인민군대는 뚜렷한 목표와 과학적인 방도를 가지고 완전무결한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되여나가게 되였다.

혁명의 주력군－혁명에 참가하는 주되는 력량.

혁명무력－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며 혁명의 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무장력.

구호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제시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군인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것이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 특히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야 하였다. 그래야 모든 군인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어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들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든 군인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구호를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인민군대앞에 내세울 혁명적 구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전후에 들어와서 인민군대에서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인민군대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었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하시는 과정에 군인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발휘하게 하는 새로운 투쟁구호를 구상하시였다.

주체64(1975)년 정초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녀성해안포병중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바다바람에 녀성군인들의 손이 튼것을 보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하지만 녀성군인들은 한결같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건강하신가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안녕하시다면 자기들은 손이 아니라 한몸이 다 찢어진대도 일없다고 말씀드렸다.

여기서 커다란 감동을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들의 자그마한 가슴속에 그렇게 큰 심장이 자리잡고있다는것이 얼마나 대견한가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겠다는것이 바로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기본핵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안의 모든 군인들이 다 수령님의 안녕부터 먼저 생각하게 하고 수령님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전군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는 새 구호를 제시할 때가 되였다고 확신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5(1976)년 1월 인민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는 투쟁구호를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 정세하에서 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일대 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는 구호는 영원히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수령님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뛰여들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군인들의 드높은 결의가 반영된 구호였다. 또한 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충실성교양을 통하여 이룩해야 할 우리 군인들의 사상정신적높이를 뚜렷이 밝힌 전투적기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우선 충실성교양을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하여 이 혁명적구호가 군인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되도록 이끄시였다.

그해 5월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충실성교양을 원리적으로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동무들이 덕성교양을 많이 하고있는데 그 하나만으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와 함께 원리교양을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례를 들어 수령과 당, 계급, 대중의 호상관계는 어떠한가,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혁명군대의 본성은 무엇인가 등 문제들을 원리적으로 잘 인식시켜

왜 수령에게 충실해야 하는가 하는 리치를 잘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군대안에서는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하기 위한 교양사업이 보다 깊이있게 진행되게 되였다.

원리적으로 깨우쳐주는 교양사업이 힘있게 진행되는데 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신입대원들이나 일부 전사들속에서 내용을 리해하기 힘들어한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원리적으로 깨우쳐주는 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알기 쉽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안에서 진행되는 충실성교양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항일혁명선렬들의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게 하시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그런것만큼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은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헤아리시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끝없는 충실성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강하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군적으로 항일혁명투사 오중흡선생님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활발히 벌리게 하시였다.

오중흡선생님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였다. 또한 강철같은 규률성과 높은 조직성을 지니였으며 부대관리에서 알뜰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중흡선생님이 발휘한 이 모든 모범은 우리 군인들이 따라배워야 할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을 당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를 통한 충실성교양에도 힘을 넣게 하시였다.

혁명영화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를 가지고 군대안에서 실효투쟁을 벌리게 하시여 군인들속에서 변함없이 혁명의 한길에서 끗끗이 싸워나가는 충실성을 키우게 하시였다.

충실성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주체68(1979)년 9월 어느날 전연초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인민군구분대의 한 병실에서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나어린 전사가 경계근무에서 돌아와 무기를 벗어놓다가 그만 한개의 수류탄을 방바닥에 떨구었던것이다. 수류탄은 떨어지면서 안전고리가 빠졌다.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여서 전사들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그저 법석이였다.

폭발직전의 그 순간 한 전사의 눈앞에는 자기들이 정성다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안겨왔고 혁명동지들이 보였다. 순간도 지체해서는 안될 시각 그 전사는 나는듯이 달려들어 폭발하는 수류탄을 가슴으로 덮었다.

18살의 나어린 전사는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동무를 잃었다고 하시며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자고 하시였다. 그리고 그 영웅전사의 숭고한 모범을 전군에 널리 소개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이 이야기는 충실성교양이 심화되는 과정에 꽃핀 하나의 실화에 불과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충실성교양이 심화됨으로써 인민군대는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목숨바쳐 옹위해나가는 신념의 대오로 꾸려지게 되였다.

원리—사물현상의 근본이 되는 리치.

실효투쟁—사상정신적으로 배운 내용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여 실지로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벌리는 투쟁.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전군 **김일성**주의화의 중요한 요구였다.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여야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을 높이고 모든 군인들을 펄펄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준비시킬수 있었다. 그리고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할수 있었다.

일찍부터 인민군대를 **김일성**대원수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을 높이며 군사지휘체계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시였다.

무엇보다 인민군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을 높이게 하시였다.

군대를 펄펄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그것은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이 높아야 어떤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적들을 때려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경험과 조국해방전쟁경험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것으로 만들게 하시였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쟁경험도 우리 실정과 결부하여 연구하게 하시고 그들의 군사적식견을 넓혀주는데 필요한 귀중한 설비와 영화자료들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인민군대의 군사조직체계와 작전지휘체계를 개편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군사조직체계뿐아니라 작전지휘체계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고 적들과 싸우는데 유리하면서도 인민군대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게 개편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대지휘관리수준을 높이고 인민군대의 전반적지휘체계를 강화하시였다. 특히 지휘를 빠르면서도 정확히 할수 있게 지휘통신수단을 현대화하게 하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이 높아지고 군사지휘체계가 훨씬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군사훈련에 특별히 큰 힘을 넣으시였다.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은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려면 군사훈련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훈련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모든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전법과 백발백중의 사격술, 풍부한 군사기술지식과 무쇠같은 체력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5대훈련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금성친위칭호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군적으로 힘있게 벌리게 하시였다. 그리고 부대와 구분대들의 기동연습을 친히 발기하시고 그 준비와 진행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어느날 한 땅크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훈련을 하다가 휴식하고있는 땅크병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땅크병들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앞산의 고지를 넘지 못하고 에돌아다닌다는것을 아시고 우리 나라에는 산이 많은데 저 정도의 경사를 극복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친히 땅크조종실에까지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사에는 주행방향을 어떻게 잡고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경사지를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운전법을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선에도 몸소 오르시여 해병들을 만능해병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어느날 함선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병들의 훈련을 몸소 지도하시였다.

그날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여 방향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날씨였다.

복잡한 군사해도를 짚어가시며 배길도 알아보시고 해병들의 훈련정도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선들을 지휘함 가까이에 호출하라고 이르시였다. 해병들에게 담력과 용맹을 키워주시려는것이였다.

함선들은 지휘관의 호출신호를 받고 빠른 속도로 지휘함 가까이에 접근하였다.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지휘관은 위대한 장군님의 신변안전을 생각하며 함선에 리탈신호를 주려고 하였다.

이것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좀 더 가까이 접근시키라고 지시하시였다.

신호를 받은 함선들은 높은 속도로 달리는 지휘함 좌우측으로 엇바꾸어가면서 지정된 거리까지 접근하였다가는 물러가군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 높은 속도로 더 대담하게 접근하도록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해병들은 의지가 강하고 용감하고 대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뢰정성원들은 적함선에 육박하여 싸우는 돌격대인것만큼 담이 크지 않고서는 적함선을 까부실수 없다, 해병들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큰 적함선에도 대담하게 육박해들어가는 전투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는 한 함선구분대의 어뢰정에 오르시여 집채같은 파도가 연방 밀려오는 사나운 배길을 헤쳐가시며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병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큰 파도속에서도 훈련하고 안개낀 상태나 야간조건에서도 훈련하여 어떤 정황속에서도 달려드는 적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게 준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해병들을 용감성과 대담성에 기초한 높은 공격정신, 전투정신을 가진 바다싸움군으로, 조국의 바다를 지켜선 만능해병으로 준비시키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는 끝이 없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의 군사기술적자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인민군부대들과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전연과 후방, 바다와 섬, 그 어디나 가리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때로는 적들과 직접 맞서고있는 최전연초소도 찾으시였고 비행장활주로에서 비행사들의 리착륙훈련을 지도하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군인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귀중함을 깨우쳐주시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군인들이 기묘하고 령활한 전술과 백발백중의 사격술, 무쇠같은 체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것은 전쟁승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전법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무장장비들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며 전투기술기재들의 현대화를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다. 특히 군인들의 체질과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가볍고 간편하며 위력하고 성능이 높은 현대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고 군수공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무기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친히 하나하나 풀어주시여 무기나 전투기술기재들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게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군사기술－군대가 무장하고 장비하는 전투수단들과 그것을 다루는 군인들의 능력.

5대훈련방침－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의한 혁명정신과 기묘하고 령활한 전술, 무쇠같은 체력과 백발백중의 사격술,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내용으로 하는 훈련방침.

무장장비－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무기와 군사기술수단 및 설비.

6. 혁명전통의 전면적계승발전

혁명적구호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제시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고 그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계승발전시켜야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체63(1974)년 3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은 이미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았으며 그것은 현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습니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립장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의 본질을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높이 발양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사업기풍, 학습기풍, 생활기풍을 따라배워 실생활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이다.

생산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한다는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사업기풍으로 맡겨진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수행한다는것이다. 그리고 학습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한다는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학습기풍을 본받아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고 끊임없이 실속있게 한다는것이다.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한다는것은 항일유격대의 생활기풍을 따라배워 모든 생활을 혁명적으로, 문화적으로 검박하게 해나간다는것이다.

이 혁명적구호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실천활동으로 빛나게 계승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가는 기풍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세워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구호를 제시하심으로써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옳바른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전통은 사업과 생활에 구현될 때만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 항일유격대의 혁명적사업기풍과 방법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항일유격대의 혁명적사업기풍과 방법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이미 있던 낡은 사업기풍과 방법을 없애고 모든것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환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여러 기회에 낡은 사업방법을 없애고 당생활총화제도나 선전선동방법 등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특히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한 항일유격대원들을 따라배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진공적으로 밀고나가 제기된 혁명과업을

빠른 기간에 끝내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과 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낸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학습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학습방법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문답식학습경연을 주체64(1975)년부터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편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기풍을 따라배우게 하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혁명가는 일생동안 학습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첫째가는 임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학습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학습을 자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기풍을 따라배워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기풍이 서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유격대식생활기풍을 세우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일군들은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잠시도 안일과 사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혁명가는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은 자기 한몸의 안일이나 향락을 바라고서는 할수 없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이 뜨뜻한 온돌방에서 가족들과 안락하게 사는것이 편안한줄 몰라서 15성상이나 풍찬로숙하면서 혁명투쟁을 벌린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가의 가장 큰 보람과 긍지는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 있다고, 일군들은 누구나 다 항일투사들의 사업태도, 생활태도를 따라배워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 주인다운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게 하시였다. 그리고 생활을 문화적으로 검박하게 조직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요구대로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해나가게 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게 되였다.

혁명전통—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로 되는 혁명적재부.

정치적생명—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회정치생활과정에 가지게 되는 생명.

왕재산과 삼지연에 대기념비 건립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는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이며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였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잘 꾸려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잘 꾸려 온 나라를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이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꾸리는 사업을 직접 맡아나서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 중엽부터 이 사업을 보다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창건 30돐을 맞으며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통이 큰 작전과 세련된

령도로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왕재산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2(1933)년 3월 온성지구에 나오시여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소집하신 유서깊은 곳이다. 그러므로 왕재산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 현지에 보내주시고 사적지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주체63(1974)년 5월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현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적지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였다.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회의를 지도하신 왕재산중턱에 기념비를 세우면 교양마당이 좁아진다고 하면서 옆봉우리에 기념비를 세우기로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 **왕재산**
>
>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가에 있는 함경산줄기의 제일 끝에 있는 산이다.
>
> 이 산과 한줄기로 잇닿아있는 5개의 봉우리가운데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하여 그 이름을 왕재산이라고 불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념비를 왕재산옆봉우리에 세우는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무의미하다고 일깨워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념비건설에서 기본원칙은 기념비를 사적지에 접근시키는것입니다. 왕재산대기념비를 결정적으로 기본사적지인 왕재산중턱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적지건설에서 기본을 이루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주체64(1975)년 3월에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게 될 위치와 봉화탑사이의 거리, 탑의 높이를 거듭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탑에 너무 가까이 모시면 안되겠다고 하시면서 탑이 높은데다가 수령님의 동상을 탑에 지내 접근시켜 모시면 수령님의 동상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지금 정한 위치보다 썩 앞으로 내다모셔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평양에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 동상 모실 위치를 다시 확정하도록 하시였다.

이틀후 새로 수정한 설계도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혁명사적지건설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동상과 탑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야 하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탑이 수령님의 동상보다 높다는 인상을 가지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대기념비를 이루고있는 봉화탑과 군상을 비롯한 모든 기념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받들고 옹위하는데 철저히 복종되게 건립되였다.

왕재산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당창건 30돐을 맞으며 1년 4개월만에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이는 혁명전통교양의 전당으로 훌륭히 건설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련이어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을 맞으며 삼지연혁명전적지건설작전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삼지연대기념비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어느 위치에 모시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실 위치를 바로 정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65(1976)년 7월 삼지연대기념비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삼지연못 건너편에 모시려 한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든 곳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수령님의 동상을 모실 위치를 정해주시였다.

> **삼 지 연**
>
> 본래 흐르고있던 강이 백두산에서 화산이 뿜어오를 때 땅속에서 솟아나온 뜨거운 용암에 의하여 막혀서 이루어진 자연호수이다.
>
> 3개의 못이 가지런히 있다하여 삼지연이라고 부른다.
>
> 삼지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주체28(1939)년 5월 무산지구로 진출하시던 길에 잠시 휴식하신 혁명전적지이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1(1972)년 6월 어버이수령님께서 기념사진을 찍으신 유서깊은 봇나무를 가리키시며 수령님의 동상은 수령님께서 사진을 찍으신 봇나무가 있는 못가에 모셔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기본사적지는 수령님께서 사진을 찍으신 봇나무가 있는 못가이다, 수령님께서 1939년 5월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여기에 들리시여 휴식하신 유서깊은 장소도 바로 봇나무가 있는 못가이다, 수령님의 동상은 어디까지나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못가에 모셔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봇나무가 있는 못가에 모시는것이 왜 옳은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모습을 사적의 성격에 맞게 잘 형상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봄가을외투를 입으신 모습으로 형상한 안을 보시고 일군들에게 그렇게 하면 무게있게 되지 않을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동상은 군복에 혁띠를 띠신 상으로 형상하여야 장군모습이 두드러진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삼지연에 모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수령님의 풍모를 잘 나타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상을 중심으로 세울 기념비들의 내용을 특색있게 꾸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종래와는 달리 탑을 동상옆에 세우고 사적비도 탑과 련결시키며 탑 맞은편에는 무산지구진공전투를 형상한 부각군상을 세우라고 하시였다. 동상 량옆에는 화강석조각상 《진격의 나팔수》와 항일유격대원들이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책을 보는 장면, 피리부는 장면, 녀대원들이 삼지연의 맑은 물을 떠마시는 장면과 같은 군상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라고 일군들의 착상을 틔워주시였다.

그리고 기념비들의 매개 편이 형상되는 차례로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훌륭히 완성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위하여 200여차례

의 가르치심을 주시고 전당적, 전국가적인 지원사업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삼지연대기념비는 불과 2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완성되였다.

대기념비건설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8(1979)년 3월 또다시 삼지연을 찾으시고 대기념비는 모든 면에서 만점이라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참으로 왕재산과 삼지연에 건립된 대기념비, 이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마련된 기념비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과 함께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그리고 각 도 혁명사적관들을 자기 도에 깃든 사적을 위주로 하여 지방적인 특성에 맞게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옹호고수해나가며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힘있는 거점이 마련되고 온 나라가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전변되게 되였다.

혁명의 천리길답사행군 조직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속에서 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청소년시절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로정을 따라 답사를 하게 하는것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소년학생들에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시였다. 이로부터 혁명전통교양의 한 형식으로서 혁명의 천리길답사행군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배움의 천리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뜻을 받들고 중국 창바이(장백)현 바다오거우(8도구)에서 고향 만경대까지 홀로 걸어나오신 로정이다.

그로부터 2년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이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

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시며 걷고걸으신 길이 광복의 천리길이다.

혁명의 천리길답사행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배움의 원대한 뜻과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걸으신 불멸의 로정을 따라 진행하는 포평—만경대사이의 답사행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새 세대들속에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을 진행할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대들이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을 하도록 구상하신것은 주체57(1968)년이였다.

그해 7월 량강도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이 깊도록 책상우에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방에 녀성항일투사가 찾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찾아온 녀투사에게 중학교 학생들이 겨울눈길을 하루에 몇리나 걸을수 있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녀투사는 산에서 아동단원들은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하루에 60리길은 실히 걸어냈다고 말씀드렸다.

하루에 60리를 걸을수 있다는것을 확인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이제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12살 어리신 나이에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모두 걸어보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도우의 만경대와 포평사이에 붉은 선을 그으시고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로》라고 써넣으시였다.

배움의 천리길로정을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아야 할 새 세대들이 직접 걸어보면서 혁명의 큰뜻을 키우게 하시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을 널리 진행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12살 어리신 나이에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

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하루에 눈길을 60리씩은 걸을수 있을것이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청소년학생들이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보면 큰 감동을 받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은 이렇게 구상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속에서 혁명의 천리길답사행군을 정기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시고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의 첫 선구자들인 강계시안의 나어린 학생소년들의 행군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들은 주체62(1973)년에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을 모두 읽고 50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불멸의 자욱을 따라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은 혁명의 천리길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50돐에 즈음하여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려는 높은 충실성을 안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온 학생들은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대오의 척후병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에 전국적인 첫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을 조직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이듬해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50돐에 즈음하여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을 전국적으로 크게 조직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대규모를 1만명으로 하도록 하시였다.

그때 일군들속에서는 답사행군대규모를 1 000명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5 000명 규모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1 000명 규모로 하면 광복의 천리길 50돐기념행사로는 너무도 작았고 5 000명정도로 하면 걸리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

였다. 그들은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3 000명정도로 하자는것으로 합의를 보았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에 있는 초급사로청(당시)조직과 소년단조직에서 한명씩 다 오면 1만명가량 된다는것을 아시고 1만명 규모로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1만명 규모의 답사행군대가 조직되였다.

1만명 규모의 답사행군대조직, 이것은 실로 상상도 해보지 못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50년전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신 뜻깊은 1월 22일 포평에서는 답사행군대의 출발모임을 가지게 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매 대원들에게 폭신한 털목도리와 양말, 두툼한 솜신으로부터 갖가지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흰쌀밥에 고기국을 푸짐히 먹이며 구미에 맞는 갖가지 간식을 공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행군을 시작한 후 전화로 지방일군들을 찾으시여 답사행군대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앓는 학생들은 없는가 일일이 알아보시고 모두가 귀중한 아이들인데 환영사업을 잘해주라고 거듭 지시를 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수많은 의료일군들을 보내주시고 인민군무선구분대도 동원해주시였다. 그들의 자랑찬 모습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수많은 기자들과 촬영가들도 보내주시고 기록영화촬영용비행기까지 띄워주시였다.

> **포 평**
>
> 우리 나라 북변의 압록강기슭 김형직읍에 자리잡고있다. 산에 머루가 많으며 들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포평으로 불리운다.
>
> 포평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과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의 거룩한 혁명활동업적이 력력히 깃들어있는 뜻깊은 혁명사적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행군대원들이 험한 하산령과 오가산령, 직고개를 넘어 강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자!》**라는 구호를 들고 광복의 천리길을 답사행군하는 청소년학생

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광복의 천리길〉을 답사하는것은 이 력사의 길우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혁명의 뜻을 깊이 체득하며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키우고 강의한 의지와 튼튼한 체력을 단련하는 혁명적수양의 좋은 기회로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까지 따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영원토록 빛나게 이어나가려는 전체 청소년들의 끝없는 충성심의 발현입니다.》

사랑의 축하문은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의 불씨를 뜨겁게 심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50년전 포평나루를 건느신 력사의 날인 2월 3일에 답사행군대오는 마침내 오매에도 그리던 마음의 고향 만경대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답사행군대원들모두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휘장을 수여하여주시고 갖가지 선물을 또다시 안겨주시였다. 저녁에는 수천발의 축포까지 쏘아올리는 커다란 환영야회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이렇게 마련된 혁명의 천리길답사행군은 그해 8월부터 국가정기답사로 조직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발기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진행된 혁명의 천리길답사행군은 청소년학생들에게 혁명의 천리길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체득시키고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답사행군—일정한 대오를 무어 걸어가면서 혁명전적지나 혁명사적지들을 실지로 돌아보기 위하여 조직하는 행군.

7. 속도전의 새 력사 창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 제시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경제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다그칠수 있었다. 한편 날로 더해가는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모든 힘을 다하여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가까운 앞날에 높이 설정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것이였다.

사회주의대건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상 전례없이 방대하고 거창한 규모에서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경제건설투쟁이였다.

이런 실정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은 이미 영화혁명과 가극혁명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몸소 쌓으신 고귀한 경험에 토대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품창작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특히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빠른 시일안에 영화로 훌륭히 옮길수 있게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리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은 40일만에 이 영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속도전의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속도전의 본보기를 창조한 경험을 문학예술분야에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그리하여 문학예술분야에서는 전례없는 앙양이 일어났다.

가극분야에서는 1년 남짓한 기간에 혁명가극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와 같은 5대혁명가극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1970년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속도전의 본질과 기본요구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입니다.

속도전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의 구현입니다.

속도전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입니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은 세상에 부럼없이 잘사는 새 사회를 남먼저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에 완전히 맞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형식이다. 그리고 인민들의 높은 자각과 열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속도전은 모든 사업에서 높은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여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속도전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근본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양시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옳은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속도전의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더욱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을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결정적우월성을 시위할수 있는 힘있는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70일전투

주체63(1974)년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이 시작된 력사적인 해일뿐아니라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해였다.

이해의 방대한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킬수 있었다.

그런데 경제부문 일군들이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지 못하여 이해의 년간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6개년계획수행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월초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년간계획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년간계획을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어느 일군도 조성된 난관을 뚫고나갈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있었다.

이 책임적인 시각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지금 경제부문 일군들이 매우 힘들어하는것 같은데 자신께서 당조직을 발동하여 경제사업을 풀어보겠다고 정중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70일전투를 몸소 발기하시였다.

그해 10월 9일 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이 동원되여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설에서 70일전투를 조직하는 목적과 해결하여야 할 중심과업,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고 전당, 전국, 전민을 70일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번 70일전투를 잘 짜고들어 처음부터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적으로 결속지어야 합니다.》

70일전투는 전당이 총돌격전을 벌려 난관을 이겨내고 긴장한 년간계획과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대전투였다.

중앙과 도, 시, 군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궐기모임들을 조직하고 10월 21일부터 일제히 70일전투에 들어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친히 사령관이 되시여 세련된 령도로 70일전투를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7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70일전투지휘부를 내오게 하시고 강력한 지도소조를 무어 각 도와 인민경제 중요부문들과 단위들에 파견하시였다. 한편 70일전투승리의 기본열쇠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는데서 찾으시고 당조직들이 사상전을 전격전, 섬멸전, 집중공세의 방법으로 힘있게 들이대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전투현장에 내려가 생산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정치사업을

앞세워나가며 경제선동공세를 강하게 벌리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이 부족한 현상들과 당정책관철에 저애를 주는 본위주의, 요령주의, 소극성과 같은 낡은 사상적병집들을 없애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일본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70일전투승리의 중요한 열쇠를 내부예비동원에서 찾으시고 전군중적운동으로 막대한 내부예비를 찾아내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채굴공업, 수송, 수출문제를 푸는것을 70일전투의 중심고리로 정하시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중심고리로 정해진 부문들에 지도력량과 선전선동력량이 집중적으로 파견되고 전당, 전국, 전민이 이 부문들을 힘있게 지원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기간 60여차례의 강령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이끄시였다. 그러시고는 신천, 해주와 같은 여러 지역들과 전투단위들을 찾으시여 조직정치사업으로부터 일군들의 전투지휘정형, 생산실태, 생산보장, 후방사업정형에 이르기까지 깊이 료해하시고 걸린 고리들을 풀어주시였다. 한편 매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전투정형을 료해하시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특히 주공전선인 채굴, 수송, 수출전선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전투상보를 받으시며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그시그시 능숙하게 처리하여주시였다. 지어는 개별적인 로동자들의 몸에 발생한 병까지도 헤아리시고 대책해주시였다.

인디아양을 항해하던 우리 나라 무역선 《혁신》호의 두 선원이 뜻하지 않은 급병으로 사경에 처하였을 때 제때에 대책을 세워 환자를 소생시킨 기적같은 이야기도 70일전투의 나날에 창조된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당과 국가의 지도자가 대양을 항해하는 개별적인 무역선들의 항보까지 받아보며 나라의 경제사업을 지도한 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70일전투기간 그야말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사업하시였다.

그해 11월 어느날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지에서 올려보낸 일보를 보시다가 뜻밖에도 대안전기공장과 강선제강련합기업소의 생산형편이 순조롭지 못하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석에서 대안전기공장 당비서를 전화로 찾아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알아보시였다.

당시 이 공장에서는 규소강판이 없어 생산을 계획대로 내밀지 못하고있었다.

뒤이어 강선제강련합기업소의 한 책임일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곳 생산에서 편파성이 생기는 리유를 알아보시였다.

거기에서는 전력과 파철이 긴장하여 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는 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시는 길로 해당 일군들을 부르시여 규소강판을 대안전기공장에 먼저 넣어주며 교차생산조직을 더 면밀하게 하여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강선제강련합기업소에 집중공급할데 대한 긴급지시를 주시였다. 그리고 철도부문 일군들을 찾으시여서는 전군중적운동으로 모아놓은 파철을 강선을 비롯한 제강소들에 최우선적으로 실어보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이렇게 두 기업소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고났을 때에는 어느덧 새벽 5시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나날에 지방현지지도를 마치고 새벽녘에 돌아오실 때면 승용차의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쪽잠에 들군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은 말그대로 70일전투의 총사령부였다. 이무렵 사람들속에는 《이동하는 집무실》, 《립체적으로 리용하는 시간》, 《세월을 주름잡는 축시법》과 같은 새로운 혁명일화가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70일전투는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사회주의대건설에서는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70일전투속도라고 불리우는 비상히 높은 사회주의경제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70일전투속도는 공업생산액을 1.7배로 장성시킨 비상히 높은 속도였다.

70일전투에서 이룩한 성과는 우리 나라 공업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최고의 기록이며 세상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높은 생산장성이였다.

그리하여 그처럼 긴장되였던 이해의 년간계획이 넘쳐 수행되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결과 사회주의대건설의 돌파구가 열리고 속도전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인민을 천리마에 태워 천리마시대를 열어놓았다면 **김정일**장군은 우리 인민을 만리마에 태워 속도전의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교시하시였다.

70일전투의 위대한 승리는 우리 인민에게 속도전의 나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70일전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그 어떤 난관도 뚫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였으며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게 되였다.

주체64(1975)년 2월 15일 중앙인민위원회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혁명과 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채택하였다.

경제선동—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선동형식의 하나.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점령을 위한 새로운 전투

70일전투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전투를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준비사업과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4(1975)년 1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서 새로운 전투를 벌려 10월 10일전으로 년간계획을 완수하며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함으로써 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 3대혁명지도소조를 각 도와 주요공장, 기업소들에 파견하시고 3대혁명중앙지휘부를 꾸려주시였다. 그리고 70일전투에서 커다란 생산적앙양을 일으킨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년초부터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중을 새로운 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 결정서, 당창건 30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구호를 철저히 침투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재접수, 재토의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리게 하시였으며 속도전청년돌격대를 조직하여 청년들이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여는데서 앞장서게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선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선 생산의 첫 공정인 채굴공업을 추켜세우며 특히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힘을 넣으시였다.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검덕광산은 특별히 중요한 몫을 맡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검덕광산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전당, 전국이 달라붙어 검덕광산을 힘있게 지원하게 하시였다. 강력한 지도력량과 경제선동력량을 파견하는것과 함께 과학기술일군들을 보내여 기술혁명수행을 도와주게 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주체64(1975)년 7월초 몸소 검덕광산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광산의 전반적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4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제2선광장을 먼저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채광과 선광능력에 비하여 광석을 나르는것이 딸리고있는 실태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검덕광산에도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아 광석운반문제를 풀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선광장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14년전에 현지지도하신 4.5갱으로 향하시였다.

일군들은 막장에만은 들어가지 말아줄것을 간절히 말씀드렸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갱이고 광부들이 일하고있는데 왜 나라고 못 들어가겠는가고 하시면서 수수한 옷차림에 싸리안전모를 쓰시고 인차에 오르시였다.

굴길속 20리 궤도를 달리시여 막장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부들의 생활부터 따뜻이 돌보아주시였다.

침식을 막장에 옮긴 광부들이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는 속보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나무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일 수고하는 사람들이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인데 그들을 갱안에서 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광부들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막장에서 전투를 벌리는것도 결국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땅속의 보물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당과 혁명의 가장 귀중한 보배들인 우리 로동계급의 건강과 바꿀수 없다고 하시면서 로동시간이 끝나면 밖에 나가 충분히 휴식하게 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검덕광산에 대한 현지지도는 우리 나라에서

쇠돌생산의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은 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에 크게 고무된 검덕의 로동계급은 광물생산을 힘있게 다그쳐 6개년계획을 근 1년반 앞당겨 수행하였다.

검덕의 뒤를 따라 룡양과 은률, 무산과 덕현 등 온 나라의 광부들이 떨쳐일어남으로써 유색금속광물과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광물생산이 훨씬 늘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수송전선에서 3화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은률광산은 황해제철소에 철광석을 대주는 광산이다. 황해제철소가 현대화되면서 용광로의 생산능력이 커지고 철광석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은률광산에서는 종래보다 몇배나 더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은률광산에서는 박토를 처리하지 못하여 광석을 제대로 캘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자동차나 굴착기의 대수를 늘이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었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에 따라 청년광구로부터 바다기슭까지 벨트콘베아를 놓으려는 안을 세웠다.

그 안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벨트콘베아를 바다기슭까지가 아니라 바다가운데로 쭉 뻗어나가게 하자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벨트콘베아를 능금섬까지 련결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다음에는 능금섬에서부터 다시 남으로는 곰섬과 청량도를 거쳐 월사리까지, 북으로는 서해리방향으로 뻗게 하자고 하시였다. 이렇게 하면 바다를 막고 많은 땅도 얻어낼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누구도 이런 대공사를 벌릴데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거창한 공사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다.

대설계집단을 무어 현지에 파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

국의 공장, 기업소들에 벨트콘베아수송선건설에 필요되는 기계설비와 자재들을 생산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깊이 보살피시면서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이밖에도 기술일군들이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화에 참고할만 한 기술서적이 없어 안타까와한다는것을 아시고는 수많은 기술서적들까지 몸소 마련해주시였다.

송전선공사를 위해 험준한 산정과 령마루에 전주를 목도로 메여나른다는것을 아시게 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직승기를 동원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수많은 강을 건느고 산발을 넘어야 하는 150리 구간의 송전선공사도 기적적인 속도로 끝낼수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 세우는 200여개의 벨트콘베아교각도 불과 두달사이에 끝내였다.

제1계단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은률광산에서는 하루 5만t이상의 박토를 처리할수 있는 4 600m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생겨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은률광산의 벨트콘베아수송선과 함께 김철—무산사이의 98km에 달하는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건설을 비롯하여 운반의 관화, 삭도화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3화수송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전국에 일반화됨으로써 운반의 벨트콘베아화, 삭도화, 관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업전선에서 알곡 800만t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해에 농사에 각별한 주목을 돌리시게 된 것은 농업생산을 진두에서 이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영농기에 조국을 떠나시여 오래동안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였던 사정과 관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대신하시여 농사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알곡 800만t고지를 돌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강원도의 수많은 협동농장들을 찾으시고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작물의 품종배치와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있는가, 모내기를 제철에 일정계획대로 하고있는가를 일일이 알아보시고 잘못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이 나날에 가슴후더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을 무척 감동시켰다.

모내기가 한창인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국가방문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시였다. 조국의 날씨며 영농전투정형을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에는 걱정이 어려있었다.

그 전화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곧 해당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전국의 모내기실태를 다시금 상세히 료해하시고 영농전투를 하루속히 결속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길로 곡창지대인 평안남북도의 벌방지대와 산간지대를 돌아보시였다.

이날 밤이 깊어서야 평안남북도에 대한 지도를 끝마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해안의 농사형편은 대체로 파악했는데 동해안지대는 어떤지 마음을 놓을수 없다고 하시며 그밤으로 강원도로 떠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길에서 밤을 지새우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일대의 농사를 온종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실로 전국의 영농실태를 손금보듯이 꿰드시며 정력적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농사를 잘 지어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시려는 헌신의 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농법관철에서 비료문제가 가지는 의의를 헤아리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시비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의 영농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과정에 화학비료가 걸렸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일군들은 현재 확보된 화학비료를 가지고 논 정보당 시비량가

운데서 100kg씩 자르고 강냉이포기당 시비량중에서 1g씩 떼내여 여기서 나오는 비료로 부족량을 해결하자는 안을 세우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화학비료시비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요령주의적경향에 대하여 엄하게 비판하시였다. 계속하여 문제는 비료공장 로동계급에게 호소하여 올해에 모자라는 질소비료를 하루빨리 생산보장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긴장한 비료문제를 풀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방향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해 7월 몸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비료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그처럼 긴장되였던 비료사정도 원만히 풀리게 되였다.

이에 머물지 않으시고 농업의 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뜨락또르를 더 많이 생산하고 1만 5 000여대의 모내는기계와 7 000여대의 벼수확기를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흉작으로 아우성치던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6개년계획의 800만t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6개년계획은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수행하였다.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3화수송—수송전선에서 관수송, 벨트콘베아수송, 삭도수송의 3가지 짐나르는 방식을 이르는 말.

8.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창조

3대혁명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첫날부터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였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3대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주체64(1975)년 11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새로운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혁명적구호의 본질적내용과 요구를 밝혀주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한다는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를 철저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대로 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든다는것이다.

기술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한다는것은 기술을 물질적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것으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 그들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술로 되게 한다는것이다.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문화의 주인, 기술의 주인으로 만들며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참다운 문화를 건설한다는것이다.

이 혁명적구호의 근본요구는 사상, 기술, 문화를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혁명적구호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그전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일으킨것처럼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전면에 나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있던 현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창조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것을 발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공업부문에서는 검덕광산에서, 농업부문에서는 청산협동농장에서 추켜들게 하시였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그에 호응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한달 남짓한 사이에 공업, 농업, 교통운수, 과학, 교육, 보건 등 모든 부문에 타번져 전사회적인 대중운동으로 급속히 확대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5(1976)년 1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과 중심과업을 밝히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국방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새로운 대중적운동이다.

이 운동의 중심과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더욱 다그치는데 있다.

다음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특징을 밝혀주시였다.

이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라는데 있다. 또한 공업화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새로운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며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벌어지는 높은 형태의 대중적문화개조운동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방도도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우선 단계를 옳게 설정하고 매 단계에서 해결할 과업들을 정확히 규정하며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는것이다.

또한 이 운동을 언제나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이 운동은 당이 직접 틀어쥐고 조직지도한다는데 당이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지도하던 종래의 대중운동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하여 밝혀주신 원칙적문제들은 이 운동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전사회적인 대중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우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게 하시였다.

이 운동을 당조직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사업이 아닌것처럼 생

각하는 일군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모든 당조직들이 이 운동이 제기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힘을 넣게 하시고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체계를 세워주시였다.

결과 모든 당조직들이 이 운동을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범한 군중을 이 운동에 궐기시키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게 하시였다. 한편 주체65(1976)년초부터는 모든 단위들에서 이 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군중토의사업을 진행하게 하시였다.

뒤이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지도서를 내려보내고 경험교환회와 방식상학을 조직하게 하시였으며 이 운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추진되여 보다 높은 수준에로 발전되였으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단위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으로 벌어짐으로써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가 달라지고 혁명과 건설은 힘있게 추진되였다.

9.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방침 제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모든 문제를 자체의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야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혁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중대한 임무를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야 하였다.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은 1970년대 후반기에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당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하였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한편 어떤 나라 사람들은 공공연히 남에게 저들의 그릇된 로선과 정책을 내리먹이려고 끈질기게 책동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야 어떻게 되든 제살궁리만 하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67(1978)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지난 시기에도 남의 본을 따고 남의 뒤를 따르거나 남의 덕에 살아온것이 아니라 우리 식대로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전략적구호입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혁명적구호에는 지난 기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주체의 한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빛나는 승리만을 이룩해온 우리 혁명의 고귀한 력사적경험이 집대성되여있다. 또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드놀지 않는 의지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고 하시면서 그 누가 강요한다고 하여 우리가 자기 식을 버리고 남의 식으로 살아갈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옷을 입어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활동하기도 편리하고 남이 보기에도 좋지 자기 옷을 버리고 남의 옷을 빌려입으면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우리는 정치도 우리 식으로 하고 경제도 문화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며 국방력도 우리 식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구호의 본질적내용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것은 우선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남의 정신, 남의 풍에 따라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오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것은 또한 모든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이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구체적환경과 조건,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간다는것이다. 그리고 남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통채로 삼키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과 구미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여 창조적으로 받아들인다는것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것은 또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그것은 어떤 문제이든지 자기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로력과 자원, 자체의 기술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 구호에 관통되여있는 근본정신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끝까지 높이 추켜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과업도 밝혀주시였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특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힘, 우리

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생산하고 건설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방침은 가장 혁명적이며 정당한 방침이다.

그것은 이 방침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전략적인 방침이기때문이다. 또한 이 방침은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주동적으로 이겨내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기때문이다.

이 방침은 또한 우리 식으로, 주체식으로 살아갈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가장 정당한 방침이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의 진두에는 주체의 기치, 민족자주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가 더욱 세차게 나붓기게 되였다. 또한 세계의 혁명하는 나라 당과 인민들이 자주성을 견결히 수호하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새 사회를 건설해나갈수 있는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성—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사고하고 행동하거나 사물현상을 대하는것 또는 그러한 원칙적립장과 태도.

민족성—민족의 고유한 특성.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제2차 7개년계획 적극 추진

우리 인민은 주체67(1978)년부터 제2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제2차 7개년계획〔주체67(1978)—주체73(1984)〕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웅대한 설계도였다. 이 계획은 생산장성의 속도와 규모에서 매우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계획이였다.

당시 어느 나라도 남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으며 도와줄 형편도 못되였다. 오직 자력갱생하는 길만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 길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로부터 주체67(1978)년 1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앞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을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당사업의 총적방침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혁명적구호이며 당사업의 총적방침입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구호에는 자기 나라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는 투철한 혁명정신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또한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전통적인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의지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력갱생하는 길만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 길이며 혁명가들에게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2차 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사업을 벌리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또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새로운 경제건설강령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은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 지도적지침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제2차 7개년계획수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시였다.

그해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내려보내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편지관철을 위한 전당적인 토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게 하시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와 함께 제2차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특히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전망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이하면서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해 5월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30년은 투쟁과 승리로 빛나는 30년이며 륭성과 번영의 30년이라고 하시면서 공화국창건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전당이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히시고 모든 당조직들이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100일전투가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일대 앙양이 일어났으며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새 전망계획의 중요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선 석탄생산을 추켜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주체67(1978)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을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생명선으로 규정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석탄생산을 빨리 추켜세우자면 이 부문에 강력한 당지도소조를 파견하는 동시에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일대 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한편 탄광들에서 탐사와 굴진, 박토를 확고히 앞세우며 탄광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특히 규모가 큰 석탄생산기지인 안주탄광을 개건확장하여 종합적기계화의 본보기단위로 꾸리는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 탄광을 적극 지원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탄광로동자들의 생활조건과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안주지구에 문화적인 탄부도시를 빠른 시일안에 일떠세우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석탄생산은 급속히 늘어나고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다음으로 철도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철도운수는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철도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체66(1977)년에 이미 진행한 수송혁명 200일전투를 다시한번 벌리게 하시였다. 그리고 수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직후에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주기관차대의 한 기관사가 당에서 관심하는 수송문제를 풀기 위하여 견인정량보다 더 많은 짐을 끌것을 결의해나섰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 기관사의 결의에서 새 싹을 발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매 렬차마다 50t짜리 화차 한량이상씩만 더 달고 무사고로 정시운행하면 이미 있는 기관차를 가지고도 수송수요를 적지 않게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구체적인 료해에 기초하여 확신하시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새로운 견인초과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 **5.18 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
> 수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철도운수부문에서 모든 기관사들이 매 렬차마다 50t짜리 화차 한량이상씩 더 끌면서 사고없이 정시에 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운동이다.

그리하여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벌어지게 되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대중적혁신운동을 적극 벌리는 과정에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 수송의 긴장성이 풀리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특히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8(1979)년에 중심적으로 풀어야 할 인민소비품생산의 10가지 목표를 정해주시고 이 목표를 성과적으로 돌파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와 함께 이미 마련된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새로운 경공업공장들의 건설을 당 제6차대회전으로 완공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식대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안팎의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제2차 7개년계획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생명선—생을 유지해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존재 또는 그러한 지대.

자립성—남에게 매이거나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해나가는 특성.

평양시건설에서 우리 식 창조

평양은 주체의 성지이고 사회주의조선의 수도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르는 희망의 등대이다.

일찍부터 평양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으뜸가는 세계적인 수도로 꾸리실것을 구상해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64(1975)년 위대한 장군님께 한 15년동안 평양시건설을 맡아 지휘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고 혁명의 수도 평양을 빠른 시일안에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수도, 혁명의 수도로 가장 훌륭하게 건설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해 3월 설계일군들에게 평양시를 보다 웅장하게 꾸릴 건설총계획도를 새로 잘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설계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에 따라 집체적토의를 거듭하여 평양시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계획도에는 수도중심부지역을 승리거리에 국한시켰을뿐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건설대상들이 다 반영되여있지 못하였다.

계획도를 받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수도건설에서 구상하고 결심한 기본문제는 평양을 인민의 수도로 꾸리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다같이 빛나게 실현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평양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수도, 혁명의 수도로 가장 훌륭하게 건설하려는것이 나의 구상이고 결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도로 건설한다는것은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축으로 하여 도시를 형성하고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일수 있는 건축물들을 도시의 요소요소에 건립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민에게 최상의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를 빛나게 구현하며 주체조국의 수도답게 도시전반의 면모를 새맛이 나면서도 웅장화려하게 꾸린다는것이다.

수도건설의 독창적인 구상을 밝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수 색연필을 드시고 총계획도에 현대적인 거리들이 뻗어나갈 넓은 구획을 확정해주시고 공공건물과 기념비들, 유원지들을 건설할 자리들도 하나하나 찍어주시였다.

그것은 실로 평양의 면모를 서양식이나 동양식, 동서절충식이 아닌 전혀 새맛이 나면서도 웅장한 품격을 갖춘 사회주의조선의 수도로 일신시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건설의지가 반영된 거창하고 황홀한 설계도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시건설총계획도를 완성하도록 하신데 이어 이 방대한 건설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이하면서 다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도의 첫 고층살림집거리인 락원거리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락원동일대를 돌아보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일대에 3 000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어 비파거리와 곧추 련결하는 새로운 거리를 형성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락원거리를 당에서 맡아 건설하겠다고 말씀올리시였다.

락원거리건설을 맡아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당창건 30돐까지 반년 남짓한 기간에 락원거리건설을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전투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과시하는 기회로, 우리가 마음먹고 달라붙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능히 해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옹근 하나의 도시를 새로 일떠세우는것과 같은 큰 공사인 락원거리건설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락원거리건설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건설자들과 평양시민들이 떨쳐나 건설장

으로 달려왔다.

건설장에서는 속도전의 불바람이 일어 놀라운 혁신이 련일 창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의 매일과 같이 건설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자주 건설장에도 나오시여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세심히 이끄시였다.

그해 6월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살림집내부를 돌아보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배려가 다 차례지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매 세대에 랭동기, 텔레비존을 넣어주고 현대적인 가구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자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조선사람은 김치를 좋아하는것만큼 매층마다 김치독도 놓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구견본품전시회를 마련해주시고 전문공장들과 여러 기관, 기업소들에서 견본품과 꼭같은 질좋은 가구류와 마감건재, 위생자기류, 금속건구류를 생산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락원거리건설은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5개월만에 완성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락원거리건설에 련이어 륜환선거리를 통채로 들어내고 거기에 우리 식의 건축예술을 훌륭히 구현한 새 거리를 일떠세울 또 하나의 대규모건설작전을 펼치시였다.

륜환선거리는 전후에 건설부문에 숨어있던 종파분자들이 남의 나라 설계를 통채로 가져다 형성한 기형적인 거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7(1978)년 12월 어느날 자정이 넘도록 륜환선거리를 돌아보시면서 종파의 오물을 통채로 쓸어버리고 거기에 단꺼번에 우리 식의 거리, 리상적인 거리를 일떠세울 결심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은 지난날 종파분자들이 건설분야에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후과를 영영 쓸어버리고 우리 식의 거리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위대한 선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설계가들과 함께 륜환선거리를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 거리형성안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덩지 큰 건물들과 고층살림집들이 도로를 따라 비좁게 앉혀져있었다.

일군들이 만들어올린 거리형성안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새 거리형성방향을 밝혀주시였다.

이번에 새로 건설할 륜환선거리는 우리 식의 거리형성방법과 건물모양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20층, 25층, 30층짜리 높은 살림집들이 우뚝우뚝 솟게 하고 립체성이 두드러지게 배치하도록 하시였다. 살림집은 3～4칸으로 하고 방에는 갖가지 고급가구류들과 문화생활용품을 넣으며 부엌에는 고급주방설비를 갖추고 배풍장치를 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베란다장식에서 도섭을 부려 건축미를 한껏 돋구고 건물벽은 타일대신에 외장재를 바르되 색조화를 잘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낡은 륜환선거리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우리 식의 현대적거리가 위용을 떨치며 높이 솟아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완공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고 설비와 시공도 다 잘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창광산과 함께 푸른 하늘에 높이 솟아 빛난다는 뜻에서 거리이름을 창광거리로 부르게 하시였다.

창광거리건설을 통하여 건설분야에 남아있던 사대주의가 완전히 뿌리빠졌으며 주체적건축물창조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마련되였다.

이것은 건설분야에서 일어난 위대한 변혁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펼치신 수도건설작전에 의하여 평양시건설에서는 세기적인 기적이 창조되였으며 그것은 모두 우리 식의 자랑찬 창조물로 빛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시건설에서 천지개벽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장군님께서 수도건설에서 속도전을 벌려 우리 평양을 웅장화려하게 일떠세웠다고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

10.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위한 사업 조직령도

사회주의교육테제 관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6(1977)년 9월 5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주체의 교육강령이며 우리 시대 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준 력사적문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상전환을 일으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교육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테제가 나왔다고 하여 모든것이 다 저절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동무들은 교육테제를 읽어보기나 하고 행정실무적대책이나 취하면 다 될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실현하자면 사상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일군들은 교육테제관철을 위한 사업을 지난날에 하던것처럼 행정실무적대책이나 세우는것으로 대치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테제를 관철하자면 무엇보다먼저 교육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테제관철을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시였다. 이로부터 사상전환을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교육사업을 새롭게 개선하자면 일군들부터가 사상전환을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지도일군들속에서 사상전환을 일으

키기 위하여 주체66(1977)년 10월부터 도, 시, 군당전원회의확대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세식으로 회의를 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에 잘못된 문제들을 총화하고 새 출발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주도록 보고서도 만들고 사상투쟁도 벌려야 하겠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전원회의를 계기로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테제가 발표된 9월 5일을 계기로 해마다 교육테제관철정형 총화사업을 제도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일군들이 사상전환을 할뿐아니라 교육일군들자신이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보시고 여기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교육일군대회를 모든 교육일군들과 교원들의 사상전환을 이룩하여 그들을 교육테제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시였다.

무엇보다도 이 대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류례없이 큰 규모의 성대한 모임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 회의를 크게 하려고 하는것은 대회에 시, 군의 각급 학교들에서 일하는 일군들을 많이 참가시켜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직접 받아안게 함으로써 교육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회의이름도 전국교육일군대회라고 하고 평양체육관에서 1만 5 000명의 규모로 크게 소집할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도시로부터 두메산골과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일하는 각급 학교교원들을 될수록 많이 참가시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직접 받을수 있도록 대표선발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회의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회문건작성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보고문도 친히 검토하시고 내용으로부터 문장표현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육테제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끄시였다.

우선 교육내용을 개선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찾으시여 지금 우리 나라 보통교육의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그때 일군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연구와 파악이 별로 없다고 대답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자신에게 소학교와 중학교교수안을 한부씩 올려보내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보통교육의 수준을 좀 보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올린 100여부나 되는 교수안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고 개선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보통교육부문의 교수내용을 새롭게 갱신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고등교육부문 교과서의 내용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와 현대과학발전추세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작완성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수천종의 교과서들을 일제히 개작하는 방대한 사업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방법을 개선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며 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을 교육테제관철의 중요한 고리로 보시고 여기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각급 학교교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그리고 교원들의 식견을 넓혀주기 위한 견학, 참관사업을 널리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교육부문에서 학습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며 학교들에서 학습본위, 성적본위로 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 학급, 학교를 내세우며 학습을 기본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주체교육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면모를 갖추면서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교육테제—사회주의교육문제에 대한 립장과 태도, 그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도, 방침 등을 함축하여 전면적으로 서술한 문헌.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

1970년대 후반기 우리 나라 과학기술은 빨리 발전하는 경제건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주되는 원인의 하나는 과학자들이 현실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제가끔 분산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있는데 있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실천을 결합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의 시대이며 과학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습니다.》

과학연구사업의 실태를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롭고 독창적인 과학연구방법인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64(1975)년 9월에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의 첫 발단을 마련하시였다.

어느날 유색금속생산정형에 대한 보고자료를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중한 문제점을 찾게 되시였다. 채광에 비하여 운광, 선광, 제련 등 뒤공정들이 따라서지 못하여 전반적인 유색금속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는것이였다. 그것은 일군들이 생산장성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지 못한것과 관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시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로 돌격대를 무어 검덕광산과 그와 관련된 제련소들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전국의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처음으로 돌격대를 무어 검덕광산에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7.1과학자, 기술자돌격대가 나오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안온한 연구실에서가 아니라 들끓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현지에서 걸리고있는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창조와 탐구의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7(1978)년 2월 17일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고 인민경제의 주공전선에 전문지식을 가진 유능한 과학자들로 돌격대를 무어 집중적으로 파견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2월17일과학자돌격대는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돌격대를 파견할 대상들을 하나하나 찍어주시고 돌격대의 구성과 활동방향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돌격대의 구성은 각이한 전문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설계가들로 하며 그들의 활동방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문제를 푸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집중공세의 방법으로 과학기술의 최신성과를 받아들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각이한 전문지식을 가진 과학자들로 무어진 2월17일과학자돌격대가 주공대상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들어가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자돌격대가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서 거두고있는 성과들을 전반적으로 료해하시고 돌격대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이미 나간 단위들에 력량을 더 보충하도록 하시고 새로운 단위들에 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더 파견하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결과 독창적인 돌격대식연구방법이 폭넓게 확대되여나갔다.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속도

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우리 식의 독창적인 연구방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러한 독창적인 과학연구방법을 발기하시고 그것을 옳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실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거둔 성과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자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기능공들까지 망라한 5.19기술혁신돌격대를 무어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현명한 조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 5.19기술혁신돌격대가 무어짐으로써 과학연구사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하나로 결합되게 되였다.

그후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기술혁명수행에서 충실성을 더욱 높이 발양할것을 바라시여 돌격대의 이름을 4.15기술혁신돌격대로 고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과학연구조건을 보장해주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과학기술의 새 요새를 점령해나가는 과학연구기지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터전으로 되였다.

또한 과학연구사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밀접히 결합되고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편향이 없어지게 되였으며 과학혁명과 기술혁명수행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1970년대 후반기 몇해동안만 하여도 수천건의 과학연구과제들이 완성되여 생산에 도입일반화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수많이 창안도입되였다.

이 과정에 사회주의건설에서 걸리고있던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수많이 해결되고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창조하신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은 우월한 과학연구방법이였다.

집중공세―어떤 대상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벌려나가는것.

수령형상영화 창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시대의 성숙된 요구이며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입니다.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은 끊임없는 탐구와 심혈을 기울여 수령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일치한 지향을 빛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예술영화화면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는것은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였다.

그것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서 영화예술앞에 나선 절박한 과제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64(1975)년에 혁명영화 《누리에 붙는 불》창조사업을 발기하시고 수령형상영화를 잘 만들도록 이끄시였다.

이 영화를 통하여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시고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여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신 김형권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첫 수령형상영화의 완성을 위하여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창작가들과 일군들은 처음에 창작에서 최대의 신중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력사적사실을 기계적으로 옮기는 립장에서 영화를 만들었다.

영화의 첫 작업필림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영화라고 하여 실지 있는 력사적사실을 기계적으로 라렬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형상의 초점을 설정하고 주인공들의 풍부한 생활을 담아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업필림의 부족점을 하나하나 보아주신 다음 작품의 종자를 명백히 찾아쥐고 형상전반을 새롭게 수정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영화를 령으로부터 다시 창작하게 되였다.

두번째 작업필림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인공들의 성격이 틀에 박힌것처럼 되였다고 하시면서 형상을 생활적으로 진

실하게 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적가정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인간들의 형상을 깊이있게,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인간들의 생활을 깊이있게 그리기 위한 구체적인 형상방도를 하나하나 찾아주시고 친히 수정대책까지 가르쳐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작품의 양상에 맞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영화의 마지막부분에 안투(안도)의 울창한 밀림속에 정렬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앞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모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마침내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첫 혁명영화 《누리에 붙는 불》이 기념비적대작으로 완성되게 되였다. 수령을 형상한 영화를 완성한것은 혁명영화를 만드는 사업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영화 《누리에 붙는 불》을 만든 경험에 토대하여 련이어 혁명영화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백두산》을 창작완성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전반을 보여주는 다부작예술영화창작사업을 발기하고 지도하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의 별》노래를 종자로 하여 영화를 잘 만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혁명영화 《조선의 별》창작전투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마음놓고 창작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해주시고 영화의 완성을 위한 지도에 특별한 힘을 넣으시였다.

첫 작업필림이 완성되자 그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김혁과 청년공산주의자들사이의 인간관계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혁과 청년공산주의자들사이의 인간관계를 잘 보여주자면 그들이 지니고있는 수령관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들이 지니고있는 수령관과 혁명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단결되였는가 하는 문제를 이 작품의 중심으로 하여 생활을 깊이있게 전개하면 작품의 품위가 훨씬 높아질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시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높이 모시고 보위하였는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어버이수령님께서 나이가 어리시였지만 왜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철저히 옹호보위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자면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빛나는 예지와 통찰력,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와 함께 수령님과 그들사이의 의리, 동지적관계를 깊이있게 생활적으로 그려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에서 수령이 하늘에서 내려온것처럼 하지 말고 참다운 동지들에 의하여 높이 모셔지는것으로 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창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작품을 수정하게 되였다.

수정한 작업필림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의 사상적핵이 명백하여졌다고 하시면서 영화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심이 누구이며 혁명가들의 혁명적동지애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 대작이라고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다부작예술영화 《조선의 별》 1, 2부가 성과적으로 창작되고 련이어 그 후편창작이 시작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영화예술분야에서 수령형상창조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신중성－사물을 대하고 처리하는데서 생각이 깊고 차근차근한 성질.

격식화－일정한 틀에 맞게 되거나 또는 맞게 하는것.

기정사실화－이미 정하여져있는 일처럼 되여버린것.

연극혁명의 새시대 마련

주체시대에 맞게 연극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였고 연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종래의 연극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틀이 뿌리깊이 남아있어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낼수 없었다. 이러한 제한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비상히 다양해지고 력사적인 사변들로 충만된 오늘에 와서 종래의 연극은 인민들의 감정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없어질 운명에 놓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연극의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이미 주체61(1972)년 11월에 연극혁명을 일으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연극분야에서는 연극의 형태상특성을 살리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감정과 요구에 맞는 새롭고 독창적인 연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하는 시대에 복무하는 새형의 혁명연극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희곡창작으로부터 출발하여 배우의 대사와 연기에 이르기까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관중들이 무대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을 보는것이 아니라 산 인간들의 움직임을 볼수 있도록 립체성을 보장하며 우리 식의 새로운 연극형식을 창조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 식의 새로운 연극형식을 창조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창작가, 예술인들은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작품을 연극혁명의 시발점으로 삼을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결심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무대에 옮기는것으로부터 연극혁명을 일으키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연극무대에 옮기는것으로부터 연극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연극의 혁명전통

을 살리고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혁명연극 《성황당》의 창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창작가들로 하여금 원작의 종자를 똑바로 파악하도록 하시고 창작방향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계속하여 혁명연극을 창작하면서 극구성과 장설정에서 낡은 틀을 마스며 주인공들의 생활을 깊이있고 폭넓게 보여줄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주체67(1978)년 6월 창조집단이 준비한 공연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작의 사상예술적특성을 손색없이 옮기도록 창작가들을 이끌어주시였다.

무엇보다도 원작이 풍자극이라고 하여 웃음으로만 관통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시면서 작품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활의 론리를 따르는것은 작품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라고 하시면서 풍자극도 생활의 론리에 따라 웃음도 있고 사색도 있게 끌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혁명연극 《성황당》에는 주인공 돌쇠와 만춘이,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 같은 긍정인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황지주와 구장, 전도부인, 중, 무당과 같은 풍자적 인물이 등장하게 되였으며 생활의 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형식의 연극이 태여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배우들의 연기수준을 높이고 화술기량을 높이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특히 배우들속에서 화술기량을 높이는 문제를 가지고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시여 연극배우들이 말 잘하는 사람, 말재주가 뛰여난 사람으로 되게 하시였다. 그리고 극조직과 대사조직을 잘하여 종교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주먹싸움으로가 아니라 말싸움으로 폭로하게 하는 기름진 장면들을 창조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무대미술에서 《피바다》식가극의 흐름식립체무대미술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문제, 연극에 음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인물들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극발전도 힘있게 떠밀어주는 수단으로 되게 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

기까지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혁명연극 《성황당》은 드디여 완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7(1978)년 8월 혁명연극 《성황당》의 시연회를 보시고 우리 당의 연극혁명방침의 승리를 총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단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은 당이 내놓은 연극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난 몇해동안 긴장한 전투를 벌려 혁명연극 《성황당》을 무대에 올려놓음으로써 낡은 연극에 종지부를 찍고 연극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참으로 혁명연극 《성황당》은 세계 어느 나라 연극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연극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연극 《성황당》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우리나라를 혁명연극의 조국으로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성황당》식혁명연극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 당의 연극혁명방침의 자랑찬 승리를 총화한 장엄한 선언이였다.

혁명연극―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하였거나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조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그대로 옮긴 연극작품.

연극혁명―연극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혁명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요구에 맞게 독창적으로 개척하는것.

생활의 론리―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사람의 활동이나 움직임의 내적련계가 맺어지는 앞뒤관계와 리치.

11. 조국통일력량 강화

조국통일의 주체적혁명력량 강화

1970년대 중엽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였다.

미제는 1975년에 웰남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되자 놈들은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1976년부터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그것을 해마다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그해 8월에는 판문점사건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남조선괴뢰들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고 군사분계선 600여리 구간에 콩크리트장벽을 쌓는 반민족적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조국통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추진시키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간의 날카로운 대결이며 여기에서 승리하자면 통일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였다.

> **판문점사건**
>
> 1976년 8월 18일 미제가 판문점에서 일으킨 도발행위이다.
>
> 미제불한당놈들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지역에 있는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도발을 걸었다. 우리측 경비인원들은 쌍방의 합의도 없는 그러한 비법적인 행위를 단호히 저지시켰다. 그러자 미제야수놈들은 흉기를 휘두르며 우리측 경비인원들에게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
> 우리측 경비인원들은 단호한 자위적행동으로 넘어가 달려드는 미제승냥이놈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야 하며 자기 힘으로 미제를 내쫓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조국통일에 가장 절실한 리

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우리 민족이며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주인도 우리 민족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력량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북반부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도록 하시였다.

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조국통일의 주도적력량이다. 그런것만큼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그리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였다. 이와 함께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남조선혁명력량을 늘이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조국통일의 중요한 력량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타격을 줄수 있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오에 묶어세우게 하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연구조직을 내오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남조선혁명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그리고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투쟁대오를 끊임없이 늘였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단체들을 조직하여 혁명력량을 늘여나갔다.

남조선혁명가들은 각계각층 군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1978년 7월에 민주주의국민련합을 내왔다. 이 조직은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직이였는데 그 이듬해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으로 고치고 그 규모를 훨씬 넓혀나갔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조국통일력량은 빨리 늘어나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1979년 10월부터 부산, 마산, 서울,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곳에서 벌어진 인민들의 투쟁은 마침내 박정희역적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력량으로 묶어세우도록 하시였다.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력량으로 묶어세우는것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 해외에 수많은 대표단과 예술단을 파견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과의 사업도 잘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외에 사는 조선동포들가운데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일군들은 세계도처에 있는 각계층 해외동포들을 통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우는 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은 총련조직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속에서만 하는것으로 되여있었다.

더우기 아메리카나 서유럽 같은 지역은 원래 자본주의의 아성이고 오래동안 남조선괴뢰들이 지반을 닦아놓은 곳이여서 그 지역을 뚫고들어가는것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일군들은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소심성에 사로잡혀 대담하게 일판을 벌리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며 교포계의 상층인사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우리와 손잡고나가는 애국의 길로 돌려세우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과 비범한 령도예술에 의하여 마침내 일생동안 우리를 반대해온 완고한 보수정객들과 종교인들, 다른 나라에 망명한 이전 괴뢰정부의 고관들도 우리를 반대하는데로부터 우리와 손잡고나가는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되였다.

5.16군사정변이 있은 이후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독재에 환멸

을 느끼고 다른 나라에 망명하였던 이전 괴뢰군 군단장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그가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정신은 강했으나 우리를 반대하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느끼고 애국의 길에 들어설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15명의 성원들까지 이끌고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게 되였으며 한걸음한걸음 사상전환을 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태여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정객으로 있다가 미국에 망명한 인물과 완고한 그리스도교신자도 우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로 나서게 하도록 일군들을 이끌어주시였다.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이 이처럼 폭넓게 진행됨으로써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속에서는 점차 통일기운이 높아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조직을 뭇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아메리카와 서유럽 및 북유럽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단체를 뭇고 여기에 많은 동포들을 망라시켰다.

총련과 해외동포조직들은 대중적인 시위와 서명운동, 강연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선전활동과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1970년대 후반기는 조국통일력량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로 되였다.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백방으로 강화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보다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적혁명력량—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동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며 그것을 끝까지 맡아서 수행할수 있는 그 나라자체의 혁명력량.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 강화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주체적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조국통일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우리자체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대외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적권위는 전례없이 높아졌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도 날을 따라 강화되였다.

이러한 때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조국통일기운을 억제해보려고 발악하였다.

미제는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고 조선의 영구분렬을 위한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기어이 성사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계의 면전에서 미제의 음흉한 기도를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헤아리시고 무엇보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를 계기로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도록 하시였다.

1975년 가을에 진행될 유엔총회 제30차회의를 앞두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다.

이 《결의안》의 목적은 정전협정을 유지함으로써 미군이 계속 남조선에 남아있자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유엔군모자를 미군모자로 바꾸어쓰고 남조선을 영원히 통치하자는것이였다.

그런데 미제의 기만적인 《결의안》의 반동적본질을 깨닫지 못한 일부 나라들은 마치도 미제의 대조선정책에 변화라도 있는듯이 생각하면서 놈들의 책동에 동조하려 하였다. 사태는 매우 심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황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우리 일군들에게 미국놈들이 장기주둔을 노리면서 저들의 속심을 가

리워보려고 하는 조건에서 놈들의 속심을 낱낱이 발가놓을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놈들의 음흉한 기도를 까밝히기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놈들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화가 복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안에 따라 미제의 《결의안》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는 일대 언론전이 벌어지게 되였다.

그러자 놈들의 《결의안》에 뜻을 같이하였던 나라들까지 돌아서게 되였다.

급해맞은 미제는 저들의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불리한 경우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우리측 결의안을 반대하려고 꾀하였다.

어느날 우리 일군들이 적들의 《결의안》을 부결하기 위하여 세운 방안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유엔무대를 중심으로 벌리는 투쟁은 우리 혁명의 가장 절박한 과업인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진행하는 매우 심각하고 치렬한 정치적대결이다, 우리는 표결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이 대결을 통하여 미제침략군을 내몰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원칙적문제를 가지고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의 정당한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혀 광범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세세히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거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측의 공명정대한 결의안이 작성제출되게 되였다.

10월 30일 드디여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표대결전이 벌어졌다. 7시간이나 계속된 치렬한 공방전속에서 표대결은 우리의 압도적승리로 끝났다.

미제는 세계의 면전에서 제가 놓은 덫에 걸려 함정에 빠지고말았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는 더욱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여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인민의 조국통

일앞길에 계속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일본당국자들을 타격하는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는 1978년 11월에 일본 도꾜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제2차 세계대회를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회는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딪쳤다. 남조선괴뢰들은 도꾜대회를 파탄시키는것을 외교의 중심과제로 내세우고 미일상전들을 찾아가 그 무슨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일본당국은 도꾜대회소집에 관한 결정이 공포되였으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있다가 대회개막날자가 박두하자 내각회의를 열고 대회에 입국사증이 없이 오는 사람들은 강제로 추방하거나 체포하여 일본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때를 같이 하여 남조선괴뢰들은 《회의가 연기되였다》, 《도꾜대회는 하지 않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였다.

사태는 매우 험악하고 복잡하였다. 대회준비위원회의 일부 성원들은 대회장소를 다른 나라로 옮기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대회가 이미 류산된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2차 세계대회는 바로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는 반동들의 소굴인 도꾜에서 진행한다는 그 자체에 정치적의의가 있는것만큼 반드시 도꾜에서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본당국의 횡포한 행위는 오히려 그들의 취약성을 더욱 드러낼뿐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이제는 우리도 실력대결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세계가 들고일어나 보다 강한 압력을 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드디여 격렬한 실력대결전이 벌어졌다. 일본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자 세계의 진보적력량이 이에 합세하였다. 사면팔방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된 일본당국은 대회개막 며칠을 앞두고 저들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본당국의 굴복은 분렬주의세력에 대한 통일세력의 큰 승리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제2차 세계대회는 60여개 나라와 12개의 국제기구, 단체에서 온 90여개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막을 올리게 되였다.

도꾜의 한복판에서 열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제2차 세계대회참가자들은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준렬히 규탄하고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제2차 세계대회를 계기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의 정당성은 세계에 과시되였으며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제적범위에서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확대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국제적련대성운동은 세계적규모에서 빠른 속도로 조직화되고 그 규모도 전례없이 늘어났다.

주체66(1977)년 6월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가 조직된것을 비롯하여 련대성조직들의 수는 주체69(1980)년에 250여개에 달하였다. 주체68(1979)년에 벌어진 남조선에서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국제적서명운동에는 128개 나라와 31개의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에서 무려 10억 8 000만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도록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였다.

국제적련대성－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와 세계혁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맺는 련대성. 단결, 지지성원, 친선, 협조 및 교류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된다.

자가당착－제 집안안에서 절로 맞부딪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모순되는것》을 이르는 말.

12. 세계적규모에서 주체사상 선전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세계적으로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으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더욱더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였다.

특히 주체사상을 따라나가려는 세계인민들의 열의가 높아졌다.

이런 정세하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자주성의 기치밑에 세계혁명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사상선전사업을 세계적범위에서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해설선전하는것은 우리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3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주체사상대외선전사업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주체사상대외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출판물을 통하여 주체사상선전사업을 강화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5(1976)년 평양에 외국문출판사와 외국문인쇄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이 시기로 말하면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세가 극도로 긴장한 때였다.

미제는 판문점사건을 조작하고 대대적인 전쟁소동을 벌렸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준전시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외국문출판사와 외국문인쇄공장건설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힘있게 내밀도록 하시였다.

외국문출판사와 외국문인쇄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

께서는 주체69(1980)년 7월에 새로 일떠선 외국문출판사와 외국문인쇄공장을 찾으시여 이곳을 외국문출판물을 찍어내는 하나의 종합적기지로 꾸리고 그 운영을 잘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와 함께 여러곳에 대외출판물보급기지를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꾸려진 대외출판물인쇄기지와 보급기지들에 의거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나라 말로 더 많이 출판보급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매 시기 국제정세의 추이와 세계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당면하게 출판해야 할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제목들을 손수 하나하나 선정해주시면서 로작출판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을 해설한 도서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한 책들도 대대적으로 출판보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출판물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사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하는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번역, 출판, 소개하는 사업도 잘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는 진보적인 단체들과 출판계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번역위원회와 출판위원회를 내오고 매해 방대한 부수의 로작들을 출판보급하였다.

주체67(1978)년에만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이 71만 6 000부가 발행되고 79개 나라의 487개 출판물 5억 9 000만부에 게재되였다. 주체69(1980)년에는 20여개의 어문으로 297만여부가 발행되고 백수십개 나라에서 700여종의 신문과 출판물들에 게재되였다.

참으로 1970년대 후반기에 세계적판도에서 벌어진 어버이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출판사업에서의 혁명적전환은 주체사상대외선전사업을 강화하도록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는데서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

들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각국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사업을 학술적으로 적극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소개선전하는 사업이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연구대표단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주체사상을 배울수 있게 하여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서 마침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이 급격히 늘어나고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광범히 무어졌다.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조직들이 무어졌다.

적지 않은 소조들은 자기 조직을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당과 정부의 관심속에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들이 무어지고 연구사업이 전국적범위에서 조직화되였다.

연구조직들의 성원구성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정계, 언론계, 학계의 인사들, 항쟁부대의 투사들, 청년학생들뿐아니라 당과 정부의 고위인사들로부터 로동자, 농민에 이르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광범히 망라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적 및 국제적인 상설기관들이 창설되였다. 주체67(1978)년 2월에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가 나오고 4월에는 일본 도꾜에 사무국을 둔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였다.

그후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가 결성되였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 의하여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토론회가 세계적규모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주체63(1974)년 10월 또고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주체65(1976)년 9월에는 마다가스까르에서, 그 다음해에는 우리 나라에서 그리고 주체68(1979)년 4월에는 인디아에서 세계적규모의 주체사상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토론회들은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주체사상의 보급사업이 급격히 심화발전됨으로써 세계인민들의 사상의식발전과 실천활동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인 인식단계를 벗어나 혁명실천의 지침을 탐구하는 단계에로 넘어가게 되였다. 많은 나라 당과 정부의 고위인사들은 주체사상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정책작성의 기초로 삼았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하여 세계적규모에서 주체사상선전이 강화되고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남으로써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승리를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나가게 되였다.

주체사상신봉자—주체사상을 믿고 받드는 사람.

제 5 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 조직령도

〔주체69(1980). 10－주체78(1989). 12〕

1. 영광의 당 제6차대회

1980년대에 이르러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있었다.

1970년대에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이 성과적으로 완수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적극 다그쳐지게 되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유일적지도체제가 확립되였다.

우리 당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새로운 투쟁강령을 내세워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68(1979)년 12월에 열린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주체69(1980)년 10월에 소집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대회소집에 관한 결정은 온 나라를 끝없는 격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를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대회로 되게 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대작전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게 될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맞이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정치적지반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함께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주체69(1980)년 정초부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9(1980)년 인민경제계획을 당대회전으로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0일전투를 포치하시고 전당, 전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중앙과 도, 시, 군들에 100일전투지휘부를 조직하고 능력있는 일군들을 전투지휘부와 지도소조에 망라시키며 나라의 모든 힘을 총동원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당중앙위원회 구호와 전보지시를 내려보내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100일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기간 100여차례의 귀중한 말씀을 주시여 지도소조들이 자기 일을 원만히 하도록 하시였으며 전투과정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100일전투과제가 넘쳐 수행되고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대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당대회제품생산전투도 조직지휘하시였다.

주체69(1980)년 6월 많은 자금을 인민소비품생산에 돌리시고 수백가지의 인민소비품을 포괄하는 방대한 량의 당대회제품생산전투를 포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것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투지휘부를 따로 꾸려주시고 이 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대회제품생산전투목표는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110.4％로 넘쳐 수행되였다.

결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이 많이 차례지게 되였다.

경축행사 규모	
당창건	35돐
경축대표	1만명
평양시군중시위	100만명
집 단 체 조	5만명
경 축 야 회	1만 5 000명
축 포	50분에 1만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돐 경축행사들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게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대회문건준비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새 규약초안을 깊은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당대회에 제출할 문건들과 대표들의 토론이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준비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대회행사는 물론 평양시군중시위와 대집단체조, 경축야회 등을 최상의 수준에서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할데 대한 통이 크고 대담한 작전을 펼쳐주시고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이밖에도 당대회를 앞두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에 나오시여 대회장안팎을 잘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대표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대회준비사업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온 나라는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분위기로 들끓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주체69(1980)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우리 당대표들과 세계 118개 나라에서 온 당 및 정부대표단들과 대표들, 각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자 대회장은 폭풍같은 환호성으로 진감하였다.

열광적인 환호는 전국의 공장과 농촌, 군부대와 건설장, 학교와 가정들의 텔레비죤앞에서도 일제히 터져올랐다. 그것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행복,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숭배심의 분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로 모신 때로부터 이미 여러해가 지나갔으나 장군님께서 이렇게 큰 정치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시기는 처음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을 언제나 수령님의 전사라고 하시면서 공식적인 행사나 군중앞에 나서는것을 사양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주석단에 모신 이 격동적인 시각 절세의 위인의 모습을 뵈옵게 된 사람들은 격정에 목이 메여 환호성을 올리고 또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총결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리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시였다. 그리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선포하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당대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높이 모시였다.

이 순간 당대회대표들과 외국의 대표단성원들의 감격과 환희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수많은 외국대표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축하의 인사를 정중히 올리며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는것은 조선인민과 함께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였다고 하면서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참으로 당 제6차대회는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수뇌부에 높이 모신 영광의 대회였다.

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혁명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되였다.

2.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 성대히 경축

대기념비적창조물 건설

우리 당과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70돐을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시대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을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잘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건설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수령님의 위대성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체사상탑을 세울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주체61(1972)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보내온 선물을 진렬한 선물진렬장을 돌아보시였다.

그날 일군들에게 우리는 아직 주체사상을 칭송하는 기념비 하나 세워놓지 못했다고 흐리신 안색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몇해가 지난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선물진렬장에서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담아 주체사상을 칭송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이런 구상을 무르익혀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8(1979)년 3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평양에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건립할것을 발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위치선정으로부터

규모와 형식, 내용과 세부요소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도록 그 건립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선 주체사상탑형성안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주체사상탑은 봉화탑형식으로 하되 탑신우의 봉화는 밤에도 활활 타오르는것으로 하게 하시였다. 탑신앞에는 당마크를 높이 추켜든 로동자, 농민, 지식인의 3인군상을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탑신의 단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상징하여 총 70단으로, 탑의 높이는 170m로 정해주시였다. 그리고 탑은 평양시의 중심인 **김일성**광장 맞은켠 대동강기슭에 세우도록 하시였다.

다음으로 개선문형성안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개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의 위대성에 맞게 규모가 크고 웅장하면서도 민족적형식과 현대성을 구현한 우리 식의 기념비로 건립하게 하시였다. 개선문에는 또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백두산전경, 《1925》, 《1945》라는 년도를 새기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20년만에 조국을 해방하시고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이 더욱 부각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개선문을 어버이수령님께서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신 유서깊은 모란봉기슭 **김일성**경기장 앞거리에 세우도록 하시였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형성안은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게 되였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형성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건립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건립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게 하시고 당원돌격대를 무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기념비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을 널리 벌리게 하시고 중앙지도위원회를 내오시였으며 자재, 자금을 비롯하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기념비가 높은 수준에서 건립되도록 현지에서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특히 주체69(1980)년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13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몸소

여러차례 현장에 나오시여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부족점을 바로잡아주시였다.

기념비건설이 시작되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이 사업을 지원해나섰다.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도 지원사업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주체사상탑건설을 지원하여 진귀한 고급석재들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칭송하는 글발을 새겨 보내왔다.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보내온 지원물자에는 희귀한 나무와 꽃들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1(1982)년 4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개선문과 주체사상탑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개선문은 좋은 화강석을 가지고 건설하였으므로 만년이 지나도 견고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다는 개선문의 높이가 50m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개선문은 60m로서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고 말씀올리시였다.

이어 주체사상탑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주체사상탑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고 만년대계로 잘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하늘높이 타오르는 주체의 봉화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시였다.

> **기념비의 표준**
>
>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은 인민대학습당 전망대에 올라 주체사상탑을 보았다. 5분이 지나 우리 안내원이 시간이 되였다고 하자 대통령은 좀 더 보자고 하며 쌍안경을 들고 10분나마 탑을 보았다. 그런 다음 세계적으로 《7대기적》, 《5대기적》, 《3대기적》이라는 말이 나도는데 그 첫자리에 주체사상탑을 꼽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주체사상탑은 기념비의 표준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충정과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

대에 길이 전하는 시대의 대기념비로 높이 솟아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받들어 **김일성**경기장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수도 평양에 현대적인 경기장과 도서관, 빙상관과 유희장 등을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전부터 구상하여오신 문제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앞두고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려는 대상건설명세를 하나하나 따져보시였다.

평양산원과 창광원, 빙상관은 이미 건설되였고 인민대학습당과 평양제1백화점, 만경대유희장과 현대적인 주택건설도 마감단계에 이르고있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하고있는 한가지 문제가 마음에 걸리시였다. 그것은 현대적인 경기장건설이였다.

현대적인 경기장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에 가셨을 때 그 나라 수도에 있는 경기장을 보시고 우리는 아직 이런 경기장을 건설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신 말씀에 따른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에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근 20년세월 가슴속깊이 새겨두셨다가 수령님탄생 70돐을 맞으며 현대적인 경기장을 건설하기로 결심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70(1981)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신 혁명사적이 깃든 모란봉경기장을 현대적인 경기장으로 개건확장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기장개건확장공사를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자신의 탄생일을 맞으시는 뜻깊은 날마저 현장에 나오시여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시면서 시공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걸린 문제들도 친히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경기장은 착공한지 넉달만에 현대적으로 개건확장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개건확장된 모란봉경기장을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여 **김일성**경기장으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김일성**경기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조국개선사적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기념비적창조물로 빛나게 되

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이 일떠서고 **김일성**경기장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건설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일수 있는 귀중한 재부들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 경축행사를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탄생 70돐을 우리 당과 우리 조국의 력사에 길이 빛날 대정치축전으로 맞이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 경축행사를 민족의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 경축행사를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진행하는것은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기념강연회, 과학토론회, 사진, 도서, 미술전람회들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특히 주체71(1982)년 3월에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를 마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토론회앞으로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심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하여 대집단체조와 음악무용서사시를 창작공연하도록 하시였다.

주체69(1980)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집단체조를 새롭게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12월에는 집단체조를 높은 수준

에서 준비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에 따라 집단체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빛발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형상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주체71(1982)년 2월에 집단체조의 제목을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로 달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편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창작을 발기하시고 수십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몸소 창조현장에 나가시여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력사는 곧 조선의 력사이고 조선의 력사는 곧 수령님의 력사인것만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잘 형상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70성상의 혁명활동력사를 10년씩 시기별로 묶어 시대상이 나타나게 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음악무용서사시에 새 노래뿐아니라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명곡들을 많이 넣어 혁명력사전반을 펼쳐보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평양시 5만명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5 000명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서사시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기념비적걸작으로 창작완성되여 성황리에 공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기념 중앙경축보고대회와 경축야회도 성대히 진행하게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는데 모를 박고 경축대회문건들을 작성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보고대회와 경축야회에 이르기까지 행사전반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71(1982)년 4월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중앙경축보고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되고 4월 15일에는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광장들에서 경축야회가 크게 진행되였다.

지방들에서도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여 민족최대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세계적인 대정치축전으로 기념하려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념원을 헤아리시고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 대표단들을 초청하여 경축행사들에 참가시키도록 하시였다.

세계의 진보적인사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들에서 기념행사들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도 탄생 7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직접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할것을 희망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진보적인사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절절한 소망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따뜻이 맞이하며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여러 경축행사들에 참가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피심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 탄생 70돐 경축행사는 14명의 국가수반, 부수반, 정부총리들을 비롯하여 118개 나라에서 온 수많은 외국손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류공동의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게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축하공연도 성대히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 경축행사를 계기로 우리 나라에 올것을 바라는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련환공연에 그들이 출연하겠다고 하는 종목들은 다 넣어주게 하시고 몸소 공연종목편성안과 순차까지 일일이 보아주시였다.

그리하여 련환공연이 탄생 7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술축전으로 되게 하시였다.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된 련환공연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과 간절한 념원을 담은 노래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종목들로 장식되였고 숭엄한 격정속에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로 막을 내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이 친선음악회를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으로 전통화하게 하시고 해마다 그 규모를 확대해나가도

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 경축행사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다채롭게 진행되였다.

인디아의 수도에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전례없이 큰 규모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경축집회와 경축연회, 기념강연회, 영화감상회와 사진전시회 등 여러가지 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준비되고 진행된 어버이수령님 탄생 70돐 경축행사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고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 높인 대정치축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을 계기로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가게 되였다.

3. **김일성**주의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활동 전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김일성**주의를 가일층 심화발전시키는것은 1980년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었다. 한편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그것을 자기 나라 혁명실천에 구현하려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었다.

때를 같이하여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은 주체사상이 퍼지는것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현실은 **김일성**주의를 더욱더 심화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김일성**주의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주의에서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종합체계화하고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새로운 자주시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주체사상을 내놓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왔으나 주체사상의 원리를 종합체계화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1(1982)년 3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로작에서 주체사상이 담고있는 철학적원리,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무엇인가를 밝히시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세계는 자연과 사회, 사람으로 이루어져있다.

사람은 자연을 지배하면서 사는 유일한 존재이고 사람을 떠나서는 사회가 있을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이것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라는것을 말한다.

세계에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지할 그 어떤 존재도 없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도 주인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다음으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사람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자신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을 자각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를 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주체의 사회력사원리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출발적인 원리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사회력사에 적용한것이다.

자연의 운동은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일어난다. 여기에는 운동의 주체가 없다. 그러나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는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와 함께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라는 원리,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원리,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원리들로 이루어진다.

이 사회력사원리들에 의하여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이 새롭게 해명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력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오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가 되여 력사를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오늘의 현실이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원칙으로 구성되여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원칙들은 주체사상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보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철학적조예와 리론수준에 탄복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종합체계화하시고 더욱 심

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과 전인류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공적가운데서도 가장 큰 공적의 하나로 된다.

4. 1980년대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0년대에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일 만년재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을 훌륭하게 꾸려 혁명선배들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렬사릉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항일혁명선배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마련하는데 빛나는 공헌을 한 우리 혁명의 1세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대하고 내세우는 문제는 단순히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이미 대성산에는 혁명의 길에서 먼저 곁을 떠나간 전사들을 잊지 못해하시며 그들의 위훈을 길이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의하여 당창건 30돐을 맞으며 혁명렬사릉이 건립되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리는 함박눈을 보시면서도 산에서 싸우던 전사들을 뜨겁게 추억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결한 뜻을 받들어 대성산혁명렬사릉을 개건확장할것을 결심하시였다.

주체71(1982)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성산혁명렬사릉 개건형성도안을 보아주시면서 혁명렬사릉개건확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대성산혁명렬사릉개건공사는 우리 대에 반드시 해놓아야 우리가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공사를 어버이수령님의 의도에 맞게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지시문을 내려보내여 혁명렬사릉개건확장공사를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여러차례 공사장에 나오시여 렬사릉개건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미 공사장에 나오시여 뒤배경처리문제, 반신상재질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4(1985)년 7월 또다시 현장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몇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에만 영웅메달을 형상한것을 보시고 일군들에게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제도가 있었더라면 다 영웅칭호를 수여받았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혁명렬사릉 화환진정대에 오각별대신 공화국영웅메달을 크게 잘 부각해놓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은 주체74(1985)년 10월 당창건 40돐을 맞으며 개건확장되였다.

개건확장된 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이런 렬사릉은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을것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렬사릉건설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잊지 못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모두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주체73(1984)년 4월 애국렬사릉을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렬사릉의 위치로부터 그에 안치할 대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75(1986)년 9월 평양시 형제산구역 신미리에 애국렬사릉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산지구 밀영과 혁명적구호문헌을 새로 발굴하여 원상대로 보존하도록 하시였다.

백두산밀영은 주체25(1936)년 9월에 건설되여 194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발굴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백두산밀영을 발굴하고 원상대로 꾸리는것은 국내에 령도거점을 창설하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깊이 보여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였다.

백두산밀영발굴문제를 놓고 언제나 마음을 써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5(1986)년 여름 몸소 시간을 내시여 직접 백두산일대를 돌아보시다가 소백수골짜기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백두산밀영을 꾸렸던 곳 같으니 한번 조사해볼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소백수골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던 사령부귀틀집자리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자리 그리고 경위대원들이 있던 병실자리 등이 있는 백두산밀영이 발굴되였다.

이어 곰산밀영, 선오산밀영을 비롯한 백두산지구 밀영들이 발굴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밀영을 원상대로 꾸리기 위하여 강력한 건설력량과 자재,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시고 건설자들의 생활조건보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이에 무한히 고무된 건설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불과 몇달도안되는 짧은 기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던 사령부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 그리고 경위대원실을 원상대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구호문헌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주체76(1987)년 5월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밀영주변에서 혁명적구호문헌을 찾아낸것을 계기로 구호문헌발굴사업을 전국적인 판도에서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발굴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지워진 구호나무의 글자를 눈으로 직접 볼수 있게 하는 기술도 개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화학시약으로 퇴색된 글자를 직접 볼수 있게 하는 현출기술이 개발되고 구호문헌발굴사업이 전국의 모든 도, 시, 군, 구역들에서 전당적,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져 수많은 혁명적구호문헌들이 발굴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혁명력사자료발굴사업도 통이 크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1980년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일 귀중한 혁명적재보들이 마련됨으로써 주체의 혁명전통은 굳건히 옹호고수되고 순결하게 계승발전되게 되였다.

5.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 강화, 적들의 광란적인 군사연습소동 제압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확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군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시면서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을 더욱 높이며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위업에 대한 계급적원쑤들의 도전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혁명적무장력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하며 싸움준비를 더 잘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휘성원들의 군사기술적자질과 지휘능력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휘성원들의 전투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강습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또한 각종 연구토론회들을 널리 조직하고 군사도서들을 출판보급하는 사업도 실속있게 하도록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지휘관들을 키워내는 군사학교의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지휘성원들의 군사적자질과 지휘능력이 결정적으로 높아지고 인민군부대들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훈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전투훈련은 군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만능의 싸움군으로 키우기 위한 근본방도이며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의 기본열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안의 모든 부대들이 전투훈련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밑에 전투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실속있게 진행하게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독창적인 실전훈련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한 전술훈련장을 찾으시여 군인들이 총포소리를 들으며 담을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실전훈련을 많이 조직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전투훈련에서 형식성과 간략화를 없애고 훈련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데서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게 하시였다.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이는것도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공업발전수준,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악과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군종, 병종의 무장장비들을 가볍게 하고 최대한으로 기계화, 자동화하여 그 기동력과 타격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철저히 우리의 자립적군수공업에 의거하여 실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수준은 전반적으로 한계단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는 중대이다. 그런것만큼 중대를 강화하여야 전반적인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지도소조활동을 벌려 중대를 강화하게 하시였다.

주체71(1982)년 12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중대지도소조활동을 벌릴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중대지도소조성원들을 선발하여 중대들에 파견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우수한 활동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전 인민군적인 경험교환회와 중대지도소조회의도 조직해주시여 조선인민군 중대지도소조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중대지도소조활동은 중대를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편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주체74(1985)년 9월 인민군적인 대회를 소집하게 하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지도해주시였다.

인민군적인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는 중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밖에도 군대안에서 군사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80년대에 우리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혁명적무장력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현대전—많은 인원과 여러가지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는 립체전, 고도로 조직화된 과학전을 이르는 말.

미제의 광란적인 군사연습소동 강력히 제압

력사적으로 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 군사적위협공갈책동에 매달려왔다.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으로 적들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본질을 까밝히시고 그것을 강력히 제압하시며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예지로 미제가 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기도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시였다.

미제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남조선괴뢰군과 함께 《북으로부터의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연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여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첫날부터 그것을 《비도발적인 년례행사》로, 이른바 《남침위협》에 대비한 《방위훈련》으로 묘사하면서 이 훈련이 마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것인듯이 떠벌이였다.

미제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그 성격도 더욱더 공격형으로 바꾸었다.

놈들은 이 연습에 많은 병력과 함께 핵무기, 전자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립체적으로 동원하여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우리 공화국의 전 지역을 전쟁터로 삼을것을 예견하였다.

군사연습은 일관하게 핵타격을 기본으로 하였고 훈련지대도 종전의 한강이남지역으로부터 한강이북 군사분계선 가까이까지 바싹 올리밀어 이 지대를 사실상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공격출발진지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군사전문가들을 포함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적들의 교활한 속임술책에 대하여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서 그 훈련을 한갖 년례행사로만 여기고있었다.

비범한 군사적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가 감행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진짜목적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이 아무리 《훈련》이요 《방위》요 하고 위장하지만 그것은 철두철미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새 전쟁도발책동이라는것을 간파하시였다. 이로부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초기에 벌써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침공작전훈련이며 미제가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할 때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실전훈련이며 핵시험전쟁이라고 단정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제가 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검은 속심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그 본질을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략책동에 언제나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비범한 군사지략으로 인민군대의 대기동훈련들을 령활하게 조직지휘하시여 미제의 광란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제압하시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팀 스피리트 80》합동군사연습때 15만 4 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50일간에 걸치는 전례없이 큰 규모의 연습을 벌려놓고 화약내를 풍기며 군사분계선 최전연에까지 공격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인민군대가 유사시에 대응할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도록 하시였다. 한편 적들의 대병력이 최전방 가까이로 기여나오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인민군부대들에 분계연선일대에로의 대기동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으신 붉은 화살표를 따라 우리 나라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지상부대들과 비행대와 땅크, 함선들이 일제히 폭음을 울리며 출동하였다.

최전방 가까이로 밀려나오던 적들은 인민군부대들의 불의의 대기동앞에서 혼비백산하였다.

놈들은 금시 전쟁이 터지는줄 알고 부랴부랴 훈련비상으로부터 전투비상으로 이전하느라 복닥소동을 피웠다. 결국 적들의 계획은 뒤죽박죽되여 《팀 스피리트 80》합동군사연습은 흐지부지되고말았다.

1983년에도 미제는 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고 기도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켰다. 결과 조선반도주변에는 19만 1 000여명이나 되는 지상무력과 비행대, 함선들이 전개되게 되였다.

군사적움직임과 함께 미국대통령과 일본수상, 남조선괴뢰역도는 서로 찾아가거니오거니 하면서 쑥덕공론을 벌렸다.

그후 미군부는 세계 여러 나라 기자들과 동맹국 군장성들로 구성된 참관단까지 초청하였다.

우리의 작전일군들은 그에 대처한 전술방안을 세우면서 처음에는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듯한 인상을 주다가 합동군사연습이 절정에 이른 시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인민군대의 대기동을 조직하려고 하였다.

일군들이 작성한 전술방안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이 이번에는 세계면전에서 우리를 힘으로 눌러보려고 열을 올리는 조건에서 연습초기부터 적들에게 강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적들이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의 막을 올리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1983년 2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준전시상태에 들어갈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가 나가고 전연지역들에서 인민군련합부대들의 대기동이 시작되였다. 이것은 적들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였다.

불의의 정황에 부닥친 적들은 넋을 잃고 갈팡질팡하였다.

그런 속에서 적들이 초청한 참관단기자들은 《주패장을 쥔 북조선》, 《북조선이 먼저 급소타격》했다는 보도를 연방 날렸다.

훈련초기에 강타를 먹은 적들은 어떻게 하나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공화국북반부의 후방지대에 그 무슨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륙전대》투하훈련에서 이 군사연습의 극적인 사태를 조성하려고 기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군부대들의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적들의 《륙전대》투하훈련이 진행되는것과 동시에 적이 투입될 지점을 먼저 차지하고있던 인민군대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들의 적 《륙전대》소멸훈련이 실전처럼 진행되였다.

우리의 무자비한 화력타격정형을 위성을 통해 입수한 적들은 저들이 가상했던 지점과 우리가 대응훈련을 한 지점이 신통히도 같다는것을 알고 아연실색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로골화될 때마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으로 언제나 통쾌한 승리만을 이룩하시여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시였다.

하기에 미국의 군사우두머리들까지도 저들의 종합된 견해라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군사적특징은 첫째는 판단이 정확하며 둘째는 결심이 단호하며 셋째는 타격이 무자비한것이라고 실토하였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합동정신》이라는 간판밑에 미군과 남조선괴뢰들이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벌린 침략적인 군사훈련.

륙전대—적이 차지한 지역에 바다로부터 오르거나 하늘에서부터 내리면서 공격하는 전투부대.

6. 80년대속도 창조

80년대속도의 시범 창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우리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요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주체71(1982)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관철을 위하여 그해 7월 김철의 로동계급이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봉화를 추켜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본질과 기본요구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계기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켰던것처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다시한번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은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인민이 발휘한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속도전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진군운동이였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기본요구는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싸워나가며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매우 빠른 속도로 나가면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운동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는 궐기모임들을 준비있게 진행하게 하시였다. 또한 주체71(1982)년 10월과 11월에는 전국청년열성자회의와 80년대속도창조에 떨쳐나선 천리마운동선구자대회를 소집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이 80년대속도창조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도 실속있게 벌리게 하시였다.

> **80년대속도**
>
>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비약의 속도이며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속도이다. 또한 기존 공식과 기성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것을 새롭게 혁신하고 창조해나가는 창조와 혁신의 속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건설에서 80년대속도의 시범을 창조하도록 하시였다.

150만t의 유색금속고지점령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검덕광업종합기업소에 새로 건설하여야 할 제3선광장은 광석처리능력이

1 000만t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선광장이였다.

그것을 해발 1 200m의 높은 은룡덕우에 건설하는것은 참으로 어렵고 방대한 공사였다. 때문에 종전의 보통속도로 건설하면 10년은 걸려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대로 이 방대한 공사를 단 1년동안에 해제낄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였다.

공사가 시작되자 일군들은 공정계획과 전투계획부터 세웠다. 시작부터 완공에 이르는 건설의 전 과정을 아무리 짜보고 토의에 토의를 거듭하였지만 1년동안에 공사를 끝낼 방안을 찾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정된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내밀던 종래의 낡은 방법을 버리고 모든 공정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립체전을 들이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제3선광장건설은 건물의 축조, 설비의 조립, 배관, 전기공사 등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게 되였다.

그런데 제일 난문제는 마광사건설이였다. 만일 마광사를 춥기전에 건설하지 못하면 설비조립이 막히고 다른 공정들도 따라세울수 없었다. 하지만 일군들은 이미 시작한 큰 공사들을 마저 끝내느라고 중요한 마광사건설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광사건설에 속도전청년돌격대를 보내주시고 미끄럼식공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미끄럼식설비도 보내주시고 방대한 물동의 상하차작업과 부재조립에서 제기되는 문제, 지어 추위가 들이닥치면 작업장에 둘러칠 비닐박막에 이르기까지 다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유리한 조건에서도 반년은 실히 걸린다고 하던 마광사공사를 한달 남짓한 기간에 끝냄으로써 겨울철에도 설비조립을 비롯한 전반적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제3선광장건설을 도와나서도록 하시였으며 건설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10년은 걸려야 한다던 제3선광장건설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설비로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끝내

게 되였다.

이 과정에 80년대속도의 시범이 창조되였다.

주체72(1983)년 8월 은룡덕마루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제3선광장전경을 바라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건설력사에 3선광장 같은 큰 선광장을 한해동안에 건설한 력사는 아직 없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실로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통이 큰 작전과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며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현대적기계생산에서 80년대속도 창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년대속도의 시범을 창조하신데 기초하여 이 운동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시였다. 특히 현대적인 기계생산분야에서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1만t프레스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전국각지에서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압연강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3(1984)년 5월 함경북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달리는 렬차안에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일군들은 저저마다 제철소들에 압연롤만 제때에 보장해주면 현존능력을 가지고도 압연강재생산을 얼마든지 늘일수 있다고 말씀올렸다.

그런데 당시 압연롤은 우리자체로 생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있었다. 압연롤을 만들자면 1만t프레스가 있어야 하였는데 우리 나라에는 6 000t프레스밖에 없었다.

묵묵히 차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자체의 힘으로 1만t프레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1만t프레스는 경제가 발전하였다고 하는 큰 나라들도 다 만들지 못하고 불과 열손가락안에 꼽을 정도의 몇개 나라에서만 생산하고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1만t프레스를 만들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1만t프레스를 자체로 만들 용단을 내리시였으며 겹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룡성으로 향하시였다.

룡성의 로동계급은 지난날 3 000t과 6 000t프레스를 만들어내여 우리 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자랑스럽고 미더운 로동계급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신것은 주체73(1984)년 5월이였다.

이날 프레스직장부터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 000t프레스의 작업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고나서 그곳 로동계급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1만t프레스를 만들어낼수 없는가고 절절하게 물으시였다.

그제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주신 의도를 알게 된 룡성의 로동계급은 저저마다 일어나 1만t프레스를 꼭 만들겠다고 결의다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다음해에 당창건 40돐을 맞으며 1만t짜리 프레스를 선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만t프레스를 만드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대책적문제들을 의논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로동자들과 일군들에게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룡성기계련합기업소는 힘있는 기업소라고, 나는 동무들만 믿겠다고 크나큰 믿음과 고무를 안겨주시였다.

그 믿음과 고무를 받아안은 룡성의 로동계급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바람을 일으켜 1년 3개월만에 우리 나라 기계공업력사에서 처음으로 1만t프레스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주체74(1985)년 10월 9일 1만t프레스의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보고를 받으시고 또다시 룡성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만t프레스는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장한 일을 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1만t프레스와 함께 대형산소분리기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대형산소분리기를 생산해야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막대한 전력과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었다. 그런데 대형산소분리기를 생산하는 문제 역시 간단치 않은 일이였다.

현대공업의 자랑이라고 하는 산소분리기는 종합화학설비로서 그것을 1기 만드는데만도 하나의 공장건설과 맞먹는 수많은 크고 작은 설비들이 들어간다. 그것도 현대과학기술이 도달한 최신기술이 도입되여야 제작할수 있었다.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선뜻 산소분리기를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락원의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에게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두차례에 걸쳐 공장총계획도와 부감도를 보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면서 공장을 빨리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공장건설이 완공되자 크고작은 수백개의 대상설비들과 기술자료, 기술력량을 락원으로 보내시여 산소분리기를 빠른 기간내에 제작하도록 보살펴주시였다.

락원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돌려주시는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열정을 안고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면서 산소분리기생산을 다그쳤다.

그러던 주체73(1984)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락원땅을 찾으시고 완공단계에 들어선 산소분리기생산공정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락원의 로동계급은 어렵고 힘든 일이 나설 때마다 남에게 의존할 생각을 한것이 아니라 자체로 뚫고나갈 생각을 하였으며 헐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험한 길을 택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특출한 공로를 세운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표창도 크게 하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안겨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거듭되는 믿음과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락원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지 얼마후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으로 대형산소분리기를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담한 결심과 통이 큰 작전에 의하여 1만t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를 우리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것은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에서 일어난 하나의 혁명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께서 발기하신 1985년6월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모든 부문에서 힘있게 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계공업뿐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 **1985년6월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
>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74(1985)년 6월에 발기하신 운동이다.
>
> 주체48(1959)년에 발단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은 주로 더 많은 공작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운동이였다. 그러나 주체74(1985)년에 다시 벌어진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은 여러가지 대형공작기계와 특수공작기계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나라의 기계공업을 한계단 높이 추켜세우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압연롤—가공할 감을 물어들이고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는 원통형바퀴모양으로 생긴 압연기의 중요한 부속품의 하나.

대자연개조사업에서 80년대속도의 위력 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자연개조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과정에 80년대속도의 위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오래전부터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 서해갑문과 태천발전소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4대자연개조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대자연개조사업을 벌려나가는데서 주되는 힘을 서해갑문건설에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서해갑문을 건설하면 대동강이 하나의 대인공호수로 전변되고 대동강류역과 재령강류역의 공업지대와 농업지대가 대운하로 련결될수 있었다. 그리고 평양의 미림갑문에 이어 여러 갑문들을 건설하면 남포로부터 순천, 덕천까지 크고작은 배들이 다닐수 있으며 서해지구의 물문제도 완전히 해결될수 있었다.

그러나 서해갑문건설은 20리 날바다를 막고 3개의 갑실과 수십개의 수문을 가진 대언제를 쌓는 대규모의 어렵고 방대한 공사였다. 다른 나라에서 건설한것처럼 한다면 이 공사는 수십년이 걸려야 완공할수 있는 공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해갑문건설을 단 몇년안으로 끝낼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배를 타시고 현지에 나가시여 그 위치까지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포갑문을 건설하는 사업이 아름찬 일이기는 하지만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갑문건설을 몇년안으로 끝내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갑문건설을 몇년안으로 끝낼수 있도록 우리 식 건설공법을 펼쳐주시였다.

주체70(1981)년 5월 인민무력부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에서는 서해갑문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기

기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때까지 그처럼 방대한 공사를 불과 몇년동안에 끝낸 전례가 없는데다가 적들의 책동까지 도수를 넘어 정세가 매우 긴장하였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현대적인 갑문건설경험이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일당백의 군대가 있기때문에 능히 대공사를 해낼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그 묘안을 내놓으시였다. 그것이 바로 설계도, 지반조사도, 언제공사도 동시에 밀고나가며 지상과 해상, 수중에서, 필요하다면 하늘에서까지 일제히 공격을 들이대는 대립체전, 대전면전의 우리 식 건설전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우리 식의 건설전법에 따라 갑문건설은 주체70(1981)년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서해갑문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주시였다.

갑문건설을 통일적으로 지휘할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량과 유능한 기술력량을 꾸려주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단련되고 건설경험이 있는 군인들과 기계화부대들로 대종합건설군단을 편성해주시였다.

갑문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세워주시였으며 전국이 갑문건설을 힘껏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갑문건설장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갑문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체72(1983)년 4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갑문건설장을 찾으시여 공사진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당시 갑문공사는 기본언제공사와 가물막이공사 이렇게 두 전선에서 진행되고있었는데 주공방향이 없었다.

갑문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품이 많이 드는 공사가 가물막이공사였다.

이 공사가 얼마나 힘든 공사였는가 하는것은 여기에 드는 혼합물을 《자주》호자동차에 실어 세우면 우리 나라 북남의 가장 긴 거리에 무려 22줄로 세울수 있었다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가물막이공사가 끝나야 그안에 차있는 바다물과 감탕을 퍼내고 무넘이언제를 쌓는 다음단계의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가물막이공사는 이처럼 갑문건설에서 첫 공정인 동시에 갑문건설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공사였다.

그런데도 일군들은 기본언제공사와 가물막이공사에 력량을 균등하게 돌리고있었다. 그러다보니 공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넘어가게 되였다.

현지에서 이 모든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석에서 가물막이공사를 주타격목표로 설정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새 공법을 받아들여 가물막이공사를 빨리 끝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갑문건설자들은 총공격전을 벌려 7년은 실히 걸려야 할수 있다고 하던 가물막이공사를 2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3(1984)년 4월과 주체74(1985)년 9월 또다시 갑문건설장을 찾으시였다.

현지에서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도 제시해주시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정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계갑문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규모의 서해갑문은 우리의 자재와 설비, 기술로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공되였다.

서해갑문의 건설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 가져다준 위대한 결실이였으며 그것은 새로운 비약의 속도, 80년대속도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경이적인 사변이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는 새로운 경제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방대한 제2차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가물막이공사—갑실과 무넘이언제를 건설할 구간을 중심으로 바다를 림시로 둘러막는 공사.

갑문—물면의 높이가 서로 다른 두 물구역사이로 배나 떼목이 지나갈수 있게 만든 수리구조물. 수상운수와 함께 큰물피해막이, 전력생산, 양어 등에 리용한다.

7.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성과 더욱 공고발전

교육혁명

1980년대에 들어와 교육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새 세대들을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더욱 높이고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교육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나라 교육실태와 관련하여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교육사업은 많이 발전하였지만 아직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으며 교육의 질적수준도 높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나라 교육실태로부터 교육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주체73(1984)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교육혁명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을 일으켜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새 세대들을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며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교육혁명방침의 기본내용은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며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개선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무엇보다도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중등일반교육은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 지적발전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적수준과 사회의 전반적사상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보기단위를 꾸리고 그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평양제1중학교(당시의 평양제1고등중학교)건설을 발기하시였다. 그리시고는 풍치 아름다운 보통강반에 학교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학교청사를 현대적으로 일떠세우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주체73(1984)년 4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완공된 학교를 돌아보시면서 이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여 중등일반교육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시면서 뛰여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련이어 현지에서 교육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여시고 평양제1중학교를 수재양성기지로 잘 꾸리고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다보니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였다.

동행한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계획한 시간보다 많이 지체되였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교육혁명을 하자고 결심하고 이 학교를 새로 지었는데 이만한 시간도 바치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학교교육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평양제1중학교는 중등일반교육의 본보기학교로 훌륭히 꾸려져 주체73(1984)년 9월 1일에 개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각 도들에 현대적인 교육시설을 갖춘 제1중학교들을 일떠세우고 수재교육을 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중학교교육사업과 나라의 교육사업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릴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옳게 구성하고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며 교육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7.15최우등상을 제정해주시고 그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등일반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교육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

결과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며 교육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등교육부문에서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개선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

> **7.15최우등상**
>
> 학교 전기간 최우등을 쟁취한 중학교 졸업반학생들에게 주는 영예상이다.
>
>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우등으로 평양남산고급중학교를 졸업하신 주체49(1960)년 7월 15일을 우리 조국력사와 주체교육의 년대기에 빛나게 아로새기며 학생들속에서 장군님의 빛나는 학습방법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76(1987)년 2월 5일에 제정하였다.
>
> 7.15최우등상은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 해마다 7월 15일을 계기로 수여한다.

리시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개선하자면 교육과 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높은 수준에서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였다.

이로부터 주체73(1984)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에서 교육수준과 물질기술적토대를 **김일성**종합대학수준에 따라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들을 급속히 확대하고 텔레비죤방송대학을 창설함으로써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고등교육사업이 개선강화되는데 따라 20대, 30대의 박사들을 비롯한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이 수많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교육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교육혁명의 불길속에서 나라의 전반적교육수준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고등교육—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할 기사, 전문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높은 단계의 교육. 대학과 전문학교들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1980년대 과학기술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

1980년대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절실한 요구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기술발전수준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

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안에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울것을 결심하시고 과학기술발전방향과 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주체74(1985)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안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것을 결심한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방향과 과업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해결하고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것이였다. 그리고 생산기술공정,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과학기술발전방향과 과업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주체75(1986)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

기 위한 과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진지하게 토의하게 하시였다.

그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련이어 과학기술발전문제를 토의하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전자공학, 생물공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과학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전국학위학직소유자회의, 전국발명가대회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주체75(1986)년부터 해마다 전국과학기술축전을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온 사회에 과학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도 늘이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전당적이며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연구사업을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문제들을 푸는데 기본을 두고 벌려나가게 하시였다. 특히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전자공학을 비롯한 중요한 과학부문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힘을 집중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원과 과학연구기관들을 자주 찾으시여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이 이 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개발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며 과학원에 꾸려놓은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실 때였다.

거기에는 이 시기 우리자체로 만든 극소형콤퓨터와 콤퓨터조종반, 수자조종공작기계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성과들이 수많이 전시되여있었다.

전시품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것을 만들어낸 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라의 전자공업발전에서 기본으로 되는 집적회로소자를 비롯하여 첨단과학기술을 더 많이 개발리용할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중요과학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1980년대에 우리자체의 힘으로 수자식조종선반, 수자식조종가공반, 각종 로보트, 유연생산체계를 개발리용

한것을 비롯하여 참으로 자랑할만 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온 나라의 콤퓨터화를 실현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시였다.

콤퓨터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의 정수이며 따라서 콤퓨터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이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였다.

비범한 통찰력으로 이 모든것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8(1989)년 6월 일군들을 부르시여 현대적인 콤퓨터중심기지를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성지 만경대와 잇닿아있는 뜻깊은 곳에 터전을 잡아주시고 콤퓨터중심기지건설을 와닥닥 끝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과정에만도 10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요구되는 자재와 전력, 수송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다.

이와 함께 건설이 끝나면 지체없이 기술개발사업에 진입할수 있도록 전국각지의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소환하여 강력한 기술개발집단을 꾸려주시고 최신설비들도 그쯘하게 갖추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현대적인 콤퓨터기지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섰다.

주체79(1990)년 10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콤퓨터쎈터(당시)라고 이름까지 달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연구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풀고 전자공학을 비롯한 중요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수자조종공작기계—단능콤퓨터나 만능콤퓨터로 된 조종장치의 입구에 수자신호를 주어 기대의 모든 운동을 수행하는 자동공작기계.

1980년대 문학예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

1970년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에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참된 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의 문학예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자면 우리 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영화와 가극, 연극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그리고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이 이룩한 업적들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문학예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이를 위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하여 수령형상작품창

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67(1978)년부터 시작된 장중편소설 100편 창작전투를 이끄신데 이어 주체73(1984)년에는 또다시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장중편소설 100편 창작전투를 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80년대에 총서 《불멸의 력사》가운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편 창작이 15편으로 결속되고 해방후편에 해당한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 《50년여름》이 성과적으로 완성되였다. 그리고 장편소설 《빈터우에서》, 《철의 신념》과 같은 우수한 소설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가사와 시들을 더 많이 창작하며 아동문학을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혁명영화를 더 잘 만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따라 수령형상영화창조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1980년대에 들어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다부작예술영화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영화들이 성과적으로 창작완성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중교양에 이바지할 다양한 주제의 영화창조사업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와 《월미도》,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등이 우리 영화예술의 기념비적작품으로 완성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창조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야외촬영거리건설을 발기하시고 그것을 종합적인 야외촬영기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주체70(1981)년 12월 완성되여가는 야외촬영거리를 돌아보시였다.

드넓은 부지에 고려시기부터 해방전시기까지 볼수 있는 기와집거리와 초가집마을, 해방전의 중국거리, 일본거리 등을 일떠세운

야외촬영거리는 옛 동북아시아지역을 그대로 련상시켰다.

야외촬영거리를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를 다그쳐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도 다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야외촬영거리는 주체71(1982)년 경사로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완공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극혁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무엇보다도 불후의 고전적명작 《혈분만국회》를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창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창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창작가들은 주인공 리준이 큰 나라를 믿고 만국평화회의에 갔다가 실망하고 울분에 못이겨 배를 가르는 정신적전환의 계기는 잘 보여주었으나 회의에 갈 때까지의 성격발전과정을 옳게 형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함을 포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애착을 가지고 극세계에 끌려들어가도록 그 형상방도를 구체적으로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주인공을 반일투사처럼 형상하지 말고 망국의 비운을 안고 모대기는 애국지사로 형상해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리하여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완전무결한 작품으로 완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련이어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경축대회》를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훌륭히 형상하여 세상에 내놓게 하시였다.

> **《성황당》식혁명연극**
>
> 종래연극의 낡은 격식과 틀을 마스고 자기의 독창적인 창작원칙과 형상방도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창조된 새형의 혁명연극이다.
>
> 《성황당》식혁명연극이라는 말은 새로운 연극형식의 시원을 열어놓은 혁명연극 《성황당》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말이다.
>
> 《성황당》식혁명연극은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주체67(1978)년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연극무대에 다시 옮기는 과정에 창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하신 혁명연극들이 5대혁명연극으로 완성됨으로써 혁명연극의 개화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용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무용표기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문학작품은 글로, 음악작품은 악보로, 미술작품은 선과 채색으로 창작되고 출판물을 통하여 보급되며 후세에 전해진다. 그러나 무용작품은 그런 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무용표기법에 대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표기법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들은 과학성과 통속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어느 하나도 무용예술의 실천에 도입되지 못하였다.

일찌기 무용표기법을 만들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초에 주체의 무용표기법을 만들것을 발기하시고 연구집단을 무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무용표기연구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60여차례나 지도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76(1987)년 2월에 500여년의 무용표기법연구력사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자모식무용표기법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이것은 무용예술, 나아가서 전반적예술발전에서 하나의 혁명이였으며 세계가 경탄하듯이 무용예술의 혜성같은 발명이였고 인류문예사에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사변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밖에도 우리 식의 음악무용서사시창조사업과 주체적인 교예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사

> **무용표기법**
>
> 음악에서의 악보와 같이 춤동작과 무용구도 등을 종이우에서 보고 알수 있게 하는 무용기록에 관한 방법과 리론의 체계이다.
>
> 주체76(1987)년에 새로 창제된 우리의 무용문자는 언어학에서 자모들이 서로 결합되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루듯이 무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모음문자와 자음문자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그것을 결합하여 무용의 형상적의도를 나타내게 하고있다. 새로 제정된 무용문자는 34개로 되여있다.

업도 현명하게 이끄시여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70년대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의 문학예술은 이처럼 1980년대에 다시한번 비약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펴게 되였다.

8.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

경공업혁명과 봉사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

우리 인민에게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최고의 리상이였다.

인민생활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0년대에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벌리시는 한편 경공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혁명은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키며 그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량적 및 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이였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인민소비품문제를 해결하여야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 전국, 전민을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일군들부터 경공업혁명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경

공업제품생산을 옳게 조직지휘하도록 하시였다.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인민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질적으로나 량적으로나 원만히 충족되지 못하고있었다. 그 중요한 원인이 견본이나 표준제품을 만들 때에는 정성들여 잘 만들면서도 대량생산에서는 되는대로 만들어 수자나 보장하려는 일군들의 그릇된 태도에 있었다.

주체73(1984)년 3월 경공업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공업제품들의 질이 높지 못한데 대하여 실례를 들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일군들이 만성병에 걸려 경공업혁명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있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일군들이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도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의 책임일군들에게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경공업혁명을 밀고나갈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주체78(1989)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을 동원할데 대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경공업혁명이 대중적투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며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러기 위하여 방직공업,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 신발공업을 비롯한 경공업의 여러 부문에 현대화된 본보기공장을 꾸리고 그것을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함흥모방직공장, 강서편직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순천구두공장, 삭주식료공장 등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이 현대화되였다.

또한 중앙과 도들에 경공업제품견본관을, 시, 군, 공장들에 경

공업제품견본실을 내오게 하시였다. 그리고 값눅고 쓸모있는 견본품들을 본보기로 하여 인민소비품의 품종을 늘이며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이 과정에 마안산모포를 비롯한 질좋은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보다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다.

일용잡화를 비롯한 세소상품들은 비록 소소한것이기는 하지만 인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다. 더우기 그 가지수와 량은 한정할수 없이 다양하고 많다. 그러나 당시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일용잡화를 비롯한 세소상품들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인민들이 생활상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있었다.

이에 대하여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중적운동으로 이 문제를 풀것을 결심하시고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중앙공업기업소들에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분공장과 직장, 작업반을 대대적으로 늘이게 하시였다. 한편 여러가지 형태의 가내작업반을 널리 조직운영하고 거기에서 얻은 좋은 경험들을 전국에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인민소비품생산이 빨리 늘어났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평양시에서 경공업제품전시회를 크게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에 따라 인민문화궁전에 경공업제품전시장이 꾸려지고 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의 생활필수품분공장, 직장, 작업반들과 가내작업반에서 만든 2만여점에 달하는 제품들을 진렬한 전시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3(1984)년 8월 3일 몸소 전시회장을 찾으시고 전시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전군중적운동으로 여러가지 생활필

수품을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날을 계기로 공장, 기업소의 생필분공장과 직장, 작업반, 가내작업반들에서 생산한 인민소비품들을 8월3일인민소비품으로 부르게 되였다. 그리고 그 생산을 위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시작되였다.

또한 모든 시, 군, 구역마다에 8월3일인민소비품을 판매하는 직매점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대중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을뿐아니라 이 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주체75(1986)년 5월 평양시 평천구역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78(1989)년 5월에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군(시, 구역)칭호쟁취운동을 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중적인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은 중앙경공업, 지방공업과 함께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경공업혁명과 함께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봉사혁명을 일으켜 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생산된 소비품을 인민들에게 더 잘 공급하고 사회급양과 편의봉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이와 함께 평양시와 주요도시들에 청류관을 비롯한 현대적인 종합식당과 전문식당들을 대대적으로 내오고 잘 운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평양시에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인 창광원을 건설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각 도, 군소재지들에 창광원식편의봉사기지들을 훌륭히 꾸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봉사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조건이 더욱 개선되였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였다.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는것은 인민들에게 문화적이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살림집건설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살림집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들을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와 도소재지, 군소재지, 로동자구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농촌문화주택을 해마다 수만세대씩 건설할데 대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현대적인 건재생산기지를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주체73(1984)년 4월말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세멘트공장과 강철공장, 부재공장과 씨리카트벽돌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대건재생산기지를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시고는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불과 몇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최신기술로 장비된 대규모의 상원세멘트공장이 건설되고 안주, 피현, 함흥 등 여러곳에 년간 10억매 생산능력의 씨리카트벽돌공장들이 일떠서게 되였다. 또한 연재기포블로크공장, 늄창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건재생산기지들이 수많이 꾸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도의 살림집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규모적인 살림집건설전투를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 창광거리에 우리 식 살림집의 본보기로 되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이어 평양시 중심부에 문수거리와 안상택거리, 버드나무거리, 천리마거리(2계단)를 비롯한 현대적인 주택거리들을 련이어 일떠

세우도록 하시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기 광복거리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살림집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주체73(1984)년 여름 어느날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자리를 같이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다른 나라들에 가보니 부러운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한가지 아쉬운것이 있다면 중요한 국제행사도 손색이 없이 할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거리가 적은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양시가 혁명의 수도로서의 면모를 더 잘 갖출수 있게 만경대쪽에 거리를 하나 크게 건설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구상대로 자신이 책임지고 현대적인 새 거리를 건설하겠다고 말씀올리시였다. 그러시고는 그해 7월초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일군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광복거리건설을 발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거리형성안을 보아주시면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거리를 형성하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광복거리대통로의 너비는 100m로 하고 대통로 좌우켠에는 30층까지의 각이한 층수를 가진 살림집들을 덩지가 크게 앉히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정방형, 원통형, 기폭형, 병풍식, 날개식 등 다양한 형태로 자연기복에 어울리게 련결시켜 배치하게 하시였다. 매 살림집은 3～4칸으로 하고 안에는 가구와 부엌세간을 일식으로 갖추어주며 거리구획마다에 봉사망을 배치하게 하시였다. 대통로에는 현대적인 립체다리도 놓고 차길과 건늠길, 록지도 폭이 넓고 시원하게 조성하여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대규모의 광복거리형성안이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5(1986)년 1월 웅대한 광복거리건설착공을 선포하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통일적인 건설지휘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시고 건설에서 전면적인 립체전을 벌리게 하시였다.

이전에는 먼저 건축물의 골조부터 세워놓고 그다음 물, 전기,

열, 통신 등을 보장하는 지하망공사를 진행한 다음 마지막에 도로공사와 주변지대정리 같은것을 하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었다.

광복거리건설을 맡아하는 일군들도 그전에 건설하던것처럼 하다보니 공사를 별로 진척시키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실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전에 하던 낡은 방법을 대담하게 마스고 도로공사를 앞세우면서 지대정리, 록지조성까지 포함한 모든 건설공정을 다같이 밀고나갈데 대한 새로운 공법을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친히 건설장을 찾으시여 공사장이 복잡하여 자동차들이 미처 빠지지 못하고있는것을 보시고 중앙기관과 평양시안의 지원로력을 모두 도로공사에 집중시켜 대도로부터 먼저 뽑도록 하시였다. 한편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을 창조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건축물을 높은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78(1989)년에 옹근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현대적인 광복거리가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복거리건설에 이어 주체78(1989)년 11월초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앞두고 통일거리와 광복거리 2계단건설을 기본으로 하는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전투를 발기하시고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창광거리건설로부터 시작하여 통일거리건설에로 이어진 평양시 살림집건설과정에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건설작전의 위력은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전국의 모든 지방도시들과 농촌들에서도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청진시와 남포시, 함흥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시대적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다양하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대중적운동으로 건설하게 하시였다. 특히 씨리카트벽돌살림집건설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초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더욱 문명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문화정서생활기풍 확립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것과 함께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고 먹고 쓰고 사는 물질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아름답고 고상하며 문명하게 생활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것이 바로 문화정서생활이다.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일군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시간과 여러가지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새로운 출퇴근제도를 마련해주시였다.

주체73(1984)년 3월 여러 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전의 출퇴근제도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출퇴근제도를 세우기로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낮에 낮잠을 자며 밤에 늦게 퇴근하는 출퇴근제도가 세워져있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들이 퇴근후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해나갈수가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불합리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낮잠자는 시간을 없애며 저녁에 일찍 퇴근하는 새로운 출퇴근제도를 세워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저녁에 일찍 퇴근해야 가정교양도 더 잘할수 있고 자체학습도 더 많이 할수 있으며 가족들과 같이 영화관이나 극장에도 다닐수 있다고 하시며 즉시 새로운 출퇴근제도를 실시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운 출퇴근제도를 세워주신것은 하나의 혁명으로서 근로자들이 로동과 휴식, 문화정서생활을 보다 충분히 해나갈수 있게 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현대적인 극장과 영화관, 체육관과 경기장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이르는 곳마다에 공원, 유원지와 같은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들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조건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보고싶은 책을 다 볼수 있고 구경하고싶은 공연이나 영화를 다 관람할수 있으며 소질과 취미에 따라 예술소조활동이나 군중체육활동에도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유원지와 공원, 명승지들을 찾아 휴식의 한때도 마음껏 즐길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활을 다정다감하고 락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1980년대 초엽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널뛰기, 그네뛰기, 윷놀이와 같은 민속놀이를 즐겨왔는데 지금은 왜 이런 풍속이 점차 없어지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만에 어느 한 일군이 민속놀이를 하는것을 마치 지난날의것을 되살리는 복고주의적편향을 범하는것처럼 여기고있기때문이라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근로자들이 주패놀이와 낚시질 같은것은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이번에도 일군들은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때에는 주패놀이는 도박으로 번져질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여왔고 낚시질 같은것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달가와하지 않

았던것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속놀이도 적극 장려하고 오락으로 주패놀이와 윷놀이, 장기도 하게 하며 근로자들이 명절이나 휴식일, 퇴근후에 생활을 명랑하고 다양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예술소조활동이나 노래경연, 군중무용을 비롯한 군중문화사업과 체육경기도 널리 조직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래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민속놀이가 되살아나고 고상하고 건전한 갖가지 유희와 오락, 군중문화사업과 체육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일하고 생활하자면 모든 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해나가는데 습관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사람들이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현대적미감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다양하면서도 단정하게 하고 다니게 하시였다. 그리고 가정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거리와 마을, 일터를 깨끗하게 꾸려나가도록 하시였다. 또한 문화도덕생활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건전하고 고상하게 하며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과 대중적인 통제사업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온 사회에 풍만한 정서와 고상한 도덕, 락천적이고 문화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공업혁명, 봉사혁명,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이 개선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복고주의—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지향, 정서를 떠나서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려는 반동적인 사상조류.

9.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미제에 의하여 1940년대에 시작된 민족분렬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자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여야 하였다.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대로 하여야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시였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이 가장 정당한 방안이라는것을 널리 선전하는것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민족을 총동원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해내외의 조선동포들속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가장 정당하다는것을 선전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신문, 방송, 각종 출판물들을 통하여 련방국가창립방안의 정당성을 해설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편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 우리 당의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의 정당성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련방국가창립방안에 대한 선전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새 통일방안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련방국가창립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것은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전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어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열도록 하시였다.

남조선에서는 1984년 8월말～9월초에 있은 폭우로 단번에 20만 7 000여명의 리재민이 나게 되였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저녁 수행원들과 검소한 저녁상을 마주하시였다.

한지에 나앉은 수재민들을 생각하시며 식사도 제대로 들지 못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지 연구해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밤 일군들은 여러가지로 토의하던 끝에 남조선에서의 수재참상을 신문, 방송을 통하여 보도하는 동시에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죄행을 폭로하는 글을 내보내는 등 일련의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제기조차 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것은 해방직후부터 우리의 동포애적구호제의를 한번도 받아들인적이 없는 괴뢰들의 태도로 보아 이번에도 거부할것이라고 생각하였기때문이였다.

다음날 아침 일군들로부터 토의된 내용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괴뢰들을 그저 때리기만 할것이 아니라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해를 입은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뜨거운 혈육의 정이 깃든 구호물자를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따라 공화국적십자회의 명의로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줄데 대한 결정이 발표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결정된 우리의 제의가 성과적으로 실현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의 구호제의가 방송을 통하여 공포되자 남조선인민들은 물

론 자본주의나라 출판물들까지도 적극 환영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구호물자접수를 회피하려고 하였다. 지어는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방법문제를 협의하는 접촉마당에 나와서까지 여러가지 무례한 요구와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구호물자전달사업을 파탄시켜보려고 하였다.

적들의 속심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놈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의도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묘안을 내놓으시면서 회담을 주동적으로 끌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동시에 막대한 량의 구호물자를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마련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내리는 궂은 날씨에 몸소 구호물자생산현장을 찾으시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물자를 실어나르는데 요구되는 화차와 화물자동차를 동원할데 대한 특별지시도 하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되여 근 40년만에 처음으로 쌀 5만석과 천 50만m, 세멘트 10만t, 많은 량의 의약품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전달되게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더욱 높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구호물자전달을 계기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환경에 맞게 여러 갈래의 접촉과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북남경제회담의 길이 열리고 오래동안 중단되였던 적십자회담이 12년만에 다시 진행되게 되였다. 그리고 조국해방 40돐을 계기로 북과 남사이의 적십자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호상방문이 진행되였다.

이것은 분단의 장벽에 래왕의 돌파구를 열고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 한층 돋구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분단의 장벽에 첫 래왕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신데 이어 적십자분야만이 아니라 체육과 예술 등 여러 분야에로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해나가시였다.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양과 서울에서 북과 남의 축구선수들이 서로 래왕하면서 통일축구경기를 진행하게 되였다. 련이어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였다. 그리고 북과 남의 예술인들도 평양과 서울로 오고가면서 범민족통일음악회와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련방국가창립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국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련방국가창립의 전제를 마련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구호물자—자연재해나 그밖의 피해 등으로 곤난에 처한 대상을 구호하기 위한 물자.

리재민—뜻밖의 재해를 입은 주민.

10. 세계의 자주화위업 추진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협조 강화

1980년대에 이르러 국제무대에서는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반제자주세력과 지배세력사이의 투쟁이 더욱 심하게 벌어졌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으며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앙양되고있었다. 반면에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책동은 더욱 악랄해졌다.

정세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중 두 나라 당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입니다.》

조중친선을 강화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1(1982)년 9월 어버이수령님의 중국방문을 전후하여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이 조치에 따라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비서국지시가 각급 당조직들에 내려갔다. 또한 두 나라 당과 인민들사이의 래왕과 접촉이 강화되고 조중친선을 주제로 한 예술영화가 나왔으며 우의탑이 개건확장되였다.

이런 조치들은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두 나라 당과 국가와 인민들사이의 련계와 협조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2(1983)년 6월 친히 중국을 방문하시여 조중친선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으시였다.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높은 국제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경모하면서 저마다 자기 나라를 방문해주실것을 초청하여왔다.

주체71(1982)년 4월 탄생 70돐을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간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중국을 방문해주실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시초를 마련하시고 오랜 세월에 걸쳐 꽃피워오신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기 위하여 력사적인 중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베이징역에 도착하시였을 때 베이징역두는 폭풍같은 환호성과 북소리, 징소리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수많은 고위간부들을 직접 데리고나와 위대한 장군님을 정중히 맞이하였다. 이전에도 중국에는 수많은 외국수반들이 왔다갔지만 이처럼 당 총서기가 직접 역이나 비행장에 나와 맞이하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시였을 때를 내놓고서는 이때가 처음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베이징에 도착하시여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첫번째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은 물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국제문제 등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막히는데 없이 즉석에서 명철한 해답을 주시면서 3시간에 걸치는 진지한 회담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중국측 간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해박한 식견에 거듭 탄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문기간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의 여러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하여 당과 국가의 형편을 서로 통보하고 국제무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나누시였다. 한편 중국의 주요도시들과 공장, 기업소, 농촌, 군부대를 참관하시고 중국인민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중국의 지도간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외교관례를 벗어나 가장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극진히 환대하였다.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대한 국가적행사를 3～4일 앞둔 바쁜 때였지만 자기가 직접 위대한 장군님의 지방참관을 동행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간부들이 자기 나라를 방문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상의 편의를 보장해드리기 위하여 애썼다.

이것만 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국제적권위와 위신이 얼마나 높았으며 중국의 지도자들과 인민들이 장군님을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적풍모는 덩잉차오(등영초)와의 상봉을 통해서도 더욱 잘 알수 있었다.

귀국에 앞서 그의 저택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친선의 정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였다.

담화는 그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고결한 의리와 뜨거운 인정세계로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장면들로 이어졌다.

눈물을 모르는 강의한 녀성혁명가로 널리 알려진 덩잉차오는 감격에 목이 메여 눈물을 흘리였고 중국측 통역원도 너무나 눈물이 북받쳐 통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 의리와 인정세계로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적풍모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은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낸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그리고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국을 방문하신 후 조중친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랜 력사를 가진 조중친선의 전통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단결은 한층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따라서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튼튼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운동은 쁠럭불가담운동을 안으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큰 시련을 겪고있었다. 이러한 때 일부 나라들에서는 동요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이 운동과 관련한 우리 당

의 원칙적인 립장을 밝히시였다.

주체72(1983)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여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이 운동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리고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밝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에 관한 보도를 발표하게 하시였다.

이것은 복잡한 정세속에서 이 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해나가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남남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과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예속과 간섭에서 벗어나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남남협조에 관한 여러 국제회의들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그것이 남남협조실현을 추동하는 계기로 되게 하시였다. 한편 탄자니아, 기네 등 여러 나라들에 농업과학연구소, 시험농장들을 꾸리게 하시였으며 말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30여개 관개공사대상에 전문가들을 파견하시고 설비와 자재도 보내주시였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 기술자, 전문가들을 파견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농업기술자들을 양성해주게 하시였다.

이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식량 및 농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1980년대에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협조는 더욱 강화되였으며 이것은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남남협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 세계적으로 지구의 남쪽에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하여 이 나라들을 통털어 《남》이라는 말로, 서방자본주의 나라들을 《북》이라는 말로 표현하여왔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의 련대성행사로서 1947년 7월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의 수도 쁘라하에서 첫 막을 올렸다.

그때로부터 근 40년간 이 축전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진행되면서 전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왔다.

그런데 1980년대말에 이르러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점차 혁명적성격이 거세되고 유흥축전, 국제놀음판으로 되여가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여 축전의 반제적성격을 되살리고 축전운동의 최고봉으로 장식할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반제, 평화, 친선의 리념에 맞게 잘 진행하여 우리 청년들과 세계 진보적청년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반제투쟁의 전초선에 서있는 우리 나라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진행하고 축전이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정치회합으로 되게 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이고 드팀없는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이 축전을 우리 나라에서 진행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평양축전이 반제축전으로, 우리 식의 특색있는 축전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축전의 반제적성격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였다.

평양축전을 준비하던 당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반제투쟁을 포기하고 자본주의길로 되돌아가고있던 때였다. 이러한 때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평양축전이 반제적성격을 띠지 못하게 하고 축전의 의의를 약화시켜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평양축전이 어떠한 구호를 내세우고 진행되는가 하는 문제는 실로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닐수 없었다.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론의가 벌어지고있다는것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평양축전이기때문에 그 어느 다른 축전때보다도 반제적성격을 더욱 확실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축전의 리념으로 정해주시고 축전장소문제를 토의하는 국제회의에서 구호문제까지 함께 토의결정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평양축전의 리념으로 내세우도록 하심으로써 축전의 반제적성격을 명백히 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뒤이어 주체77(1988)년 10월 고전적로작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를 발표하시여 평양축전의 반제적성격을 고수하고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다시금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여러차례에 걸쳐 축전을 맡아보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평양축전의 반제적성격을 견결히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지도를 주시였다. 또한 축전행사장소들도 돌아보시면서 행사의 모든 고리들에서 축전의 숭고한 리념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축전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사이의 련대성을 보다 강화하는 국제적인 마당으로 준비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축전이 축전력사상 최절정에 오른 우리 식의 본보기축전으로 되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무엇보다도 축전국가준비위원회를 조직해주시고 축전준비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전환시켜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그리고 축전을 철저히 우리 식으로 진행하며 개폐막행사와 조선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모든 행사들을 높은 수준에서 특색있게 준비하도록 하나하나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축전준비에서 특별히 의의를 부여하신것은 축전의 개폐막행사였다.

주체77(1988)년 6월초 어느날 행사도안을 진렬한 전시장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행사를 우리 식으로 특색있게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일군들은 축전개막신호를 울리는 장면을 다른 나라에서 한것처럼 신호수들이 신호나팔이나 트럼베트를 불게 하는것으로 구성하였다.

이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신호수들에게는 고구려장군들이 입던 옷과 같은 형식의 옷을 입히며 신호도 북을 치면서 뿔나팔로 불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참으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장면이였다.

봉화에 불을 지피는 의식도 우리 식대로 하도록 하시였다.

일반적으로 봉화는 축전을 종합적으로 상징하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봉화를 지피는 의식은 누구라없이 제일 큰 관심을 돌리는 문제의 하나로 되였으며 모든 축전들에서 매번 의례적으로 진행되여왔다.

봉화가 담고있는 이런 뜻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봉화대의 위치설정으로부터 설치형식, 불을 지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5월1일경기장의 은백색채양우에 평양이라는 글발과 월계수를 새긴 봉화대가 활짝 핀 목란꽃모양의 화로에 받들려 특색있게 세워지게 되였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피는 방법도 새롭게 착상되였다.

홰불을 추켜든 두 청춘남녀가 무개차를 타고 5대륙을 상징하는 5대의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봉화대밑까지 가서 멎어서게 되였다. 이어 승강기로 15m 높이까지 올라가 점화선에 불을 붙이면 그것이 타올라가다가 다시 3선으로 갈라져 13차축전을 상징하게 하는 독특한 점화방법이 도입되였다.

그리고 점화선우에 원통을 형성하여 원통안에 들어간 불이 3초동안 여유를 두어 보이지 않게 하였다. 혹시나 하여 관람자들이 한껏 긴장된 그 순간에 9m의 거세찬 봉화가 솟구치게 함으로써 그들의 긴장된 감정을 일시에 폭발시키며 환호성을 터치게 하는 황홀경과 신비경의 극치가 창조되게 되였다.

그뿐만아니라 1 800명으로 된 세계최대규모의 취주악대, 무지개타고 내리는 금강산 8선녀 등 개페막행사의 모든 장면들이 훌륭히 완성되였다.

개폐막행사의 모든 장면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축전개막을 앞두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총관통훈련을 최종적으로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히 준비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주체78(1989)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세계 180개 나라의 1 245개 청년학생조직대표들과 64개의 국제 및 지역기구대표 1만 6 000여명 그리고 90개 나라에서 온 470여명의 명예손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의 관광단성원들과 해외교포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대표가 참가하여 축전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였다.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5월1일경기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축전의 개막행사와 폐막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평양축전의 개폐막행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축전행사를 훨씬 릉가하여 인간지혜의 최고봉을 장식한 대걸작품이였고 황홀경의 극치였다.

개폐막행사뿐아니라 수많은 장소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모든 행사들도 축전운동력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랐다.

세계인민들은 평양축전을 《축전운동의 최고봉을 장식한 축전》, 《지난날에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본보기축전》이라고 높이 찬양하였다.

제 6 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 조직령도

〔주체79(1990). 1－주체83(1994). 7〕

1.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활동 전개

1980년대말～1990년대초에 이르러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이러한 사태를 두고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도 얼마 못가서 《붕괴》될것이라고 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광란적인 반사회주의 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완성된 사회주의사상리론을 내놓을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징과 우월성,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9(1990)년 12월과 주체80(1991)년 5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들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징과 우월성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징은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 독특한 사회주의라는데 있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인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였다. 그런데 맑스－레닌주의는 력사적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라는것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가 사람의 본성적요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과 집단주의를 구현한 사회주의라는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있다.

세계 사회주의나라들가운데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한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원천으로,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징과 그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에 대하여 밝혀주심으로써 그 어떤 반사회주의 광풍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만은 백전백승한다는것이 더욱 명백해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밝히시였다.

수십년동안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오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원인과 그 교훈을 똑바로 찾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대와 혁명의 이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체81(1992)년 1월 3일 고전적로작《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로작에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과 그 교훈,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총로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을 세가지로 밝히시였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지 못한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지 못한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하나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당들은 이 진리를 옳게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홀시하였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가 좌절된 근본원인이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은 또한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건설 도상에 가로 놓인 일시적난관앞에서 동요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점차 이 혁명적원칙을 양보하고 포기하는데로 나갔다. 결국 사회주의의 좌절과 자본주의의 복귀를 가져오게 되였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사회주의나라 당들이 자주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큰 나라 당이 하는대로 따라한데 있다.

그러다보니 큰 나라의 집권당안에서 발생한 수정주의, 개량주의가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에 그대로 들어갔고 쏘련당의 압력에 굴복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무너지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그로부터 찾게 되는 교훈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고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동지적단결과 협조를 강화할 때 사회주의위업은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하게 된다는것이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우여곡절과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과 교훈을 심오히 해명하심으로써 그것이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사태라는것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또한 세계 많은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과 그 정당성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라는것을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을 밝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이 로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게 구현

되고있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실증되였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독창적인 사상리론에 의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가장 곧바른 지름길로 인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를 헐뜯는 원쑤들의 궤변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운동이 일시적인 시련을 겪고있을 때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은 때를 만난듯이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헐뜯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발표하시였다.

로작에서 먼저 사회주의를 터무니없이 헐뜯는 원쑤들의 궤변이 헛소리라는것을 낱낱이 발가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자면 사회주의사상을 끊임없이 발전완성시키고 인민대중이 사회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개하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은 일시적으로 가슴아픈 좌절을 겪고있던 사회주의운동을 하루빨리 재건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고 승리하여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당의 령도밑에서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

사회주의위업이 승리하는가 패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은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고 승리하여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당의 령도밑에서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 따라서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떠나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는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조성된 국제정세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이전 쏘련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약화시켰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당자체가 파멸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비극적인 사태를 빚어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사회주의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문제로 보시고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간부들은 우리 당의 핵심골간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사회주의를 지켜내는가 지켜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간부대렬을 어떻게 꾸리고 그들이 당의 령도를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에 달려있다.

각급 당조직들이 간부선발배치를 당적원칙에서 잘하는것과 함께 그들의 혁명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특히 모든 간부들이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들로 준비하며 그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특권행세를 하는 현상을 극복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간부대렬뿐아니라 전반적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전반적당대렬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선생님처럼 일편단심 당에 대한 충실성을 변함없이 간직하도록 당원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시였다. 이와 함께 당원들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모두가 높은 당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보다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줄수 있게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은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시키도록 하시였다. 특히 대비교양을 많이 하고 대론쟁을 효과적으로 조직진행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발휘되는 고상한 미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긍정감화교양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조직사상사업이 심화됨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떠메고나갈수 있게 당대렬이 그 어느때보다 튼튼히 꾸려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세포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본보기세포를 내오고 그것을 전당에 일반화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를 충성의 당세포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였다.

그때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에로 되돌아가는 험악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은 당창건 45돐을 앞둔 어느날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 해나갈 결의를 담은 편지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올린 편지를 받으시고 친히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회답서한이 신문, 방송을 통하여 전해지자 온 나라 인민들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 열정으로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답서한을 보내주신데 이어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한편 주체80(1991)년 5월 우리 당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국당세포비서강습회를 마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충성의 당세포로 만드는 사업에서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습회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당세포를 강화하자》에서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충성의 당세포로 만드는 사업을 당조직들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전당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전국당세포비서강습회를 계기로 충성의 당세포를 만들기 위한 투쟁은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이 과정에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충실성이 더욱 높이 발현되고 당세포들의 전투력이 가일층 강화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주체83(1994)년 3월말～4월초에 전당당세포비서대회를 마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대회에서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충성의 당세포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당세포들은 당과 수령을 받드는 초석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사업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 행정대행을 철저히 극복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0년대 첫해의 양력설에 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의 책임일군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이날 형식주의, 관료주의, 행정대행을 철저히 극복하는가 못

하는가에 따라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당사업에서 이를 뿌리빼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특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해 몸바쳐 일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당일군들의 사업작풍과 방법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당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더욱 두터워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가 더욱 강화되였다.

3. 온 사회의 일심단결 강화

1990년대에 이르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려는 미제의 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주체81(1992)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전투적구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는 바로 일심단결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생명이며 우리가 끝까지 들고나가야 할 기치라고 밝히시였다. 계속하여 당조직들이 당사업의 중심을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두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본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여기에서도 혁명가유자녀들과 전사자 및 피살자가족들, 영웅들과 접견자들,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 등 핵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들이 당과 수령을 옹호하고 보위하는데서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한편 각급 당조직들이 영웅들과 접견자들,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을 적극 내세워주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혁명가유자녀들과 전사자 및 피살자가족들이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잊지 않도록 교양하는 사업도 짜고들게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81 (1992)년 10월에는 전국렬사가족대회를, 이듬해 7월에는 전국로병대회를 마련하시여 그들모두가 당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면서 특히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가 좌절된 여러 나라들의 교훈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데로부터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반동들의 꾀임수에 넘어가 사회주의를 뒤집어엎고 자본주의를 복귀하는데서 앞장에 섰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9(1990)년 9월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무엇보다도 지식인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혁명적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기 위한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가게 하시였다.

특히 지식인들속에서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작가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린 편지와 장군님

께서 보내주신 친필회답서한을 통한 교양을 실정에 맞게 짜고들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주체81(1992)년 12월 조선지식인대회를 마련해주시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 지식인들의 자랑찬 모습을 온 세상에 시위하고 모든 지식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청년학생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청년문제는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력사적교훈은 청년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이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관건적인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에 청년중시의 사회적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주체80(1991)년 1월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신 뜻깊은 날인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첫 청년절을 맞는 전국의 청년들과 청년동맹일군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고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사로청 제8차대회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고 일군들을 여러차례 몸가까이 부르시여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주체82(1993)년 2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사로청(오늘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8차대회가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친히 대회에 참석하시여 대회참가자들에게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대회에 참가한 청년대표들은 《**김일성**》, 《**김정일**》, 《청년전위》의 구호와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를 우렁차게 부르면서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그리고 만일 적들이 무모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한사람같이 떨쳐나 500만의 총폭탄이 되여 침략자들을 소탕하고 당과 수령,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지킬 결사의 각오를 다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 혁명실천을 통한 단련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청년조직들이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반동적인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데 관심을 돌리게 하시였다. 그리고 청년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로동과 국방을 비롯한 실천투쟁속에서 자신들을 더욱 혁명적으로 단련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우리의 모든 청년학생들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되게 되였다.

이것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튼튼히 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광범한 군중이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결속됨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은 원자탄으로도 깰수 없는 필승불패의것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고상한 미풍을 높이 발양시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에 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고상한 미풍이 활짝 꽃펴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미풍을 발휘한 사람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감사와 친필서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주체82(1993)년 12월에는 전국공산주의미풍선구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고상한 미풍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떨쳐나서는 아름다운 소행이 높이 발휘되였다.

수많은 청년들이 당이 바라는대로 탄광, 광산, 농촌으로 진출하고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등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굳게 단합되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

4. 인민군대의 강화,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 확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영광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탁월한 군사의 영재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는것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특히 그것은 혁명의 대가 바뀌고 수령이 건설한 혁명무력과 사회주의전취물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려는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한결같은 의사이고 념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부터 남달리 뛰여난 군사적풍모와 자질을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강화발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뛰여난 군사적풍모와 자질을 한몸에 지니신 군사의 영재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령활하고 세련된 령군술을 지니시였다. 그리고 그것을 인민군대를 령도해오시는 과정에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비범한 군사적풍모와 자질은 우리 인민군대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미제침략자들과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푸에블로》호사건과 판문점사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등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책동이 여지없이 분쇄된 사실이 그것

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또한 우리 혁명무력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여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였다. 그리고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우에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으신 이 불멸의 군건설업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미제와 직접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상태에서도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키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군사적자질과 풍모에 완전히 매혹되고 혁명무력건설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깊이 탄복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걸출한 군사의 영재》, 《탁월한 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실것을 절절히 념원하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이미 당 제6차대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주체80(1991)년 12월 2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제의에 따라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질과 그가 이룩한 혁명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인 동시에 그의 령도밑에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의 표시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참가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을 알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것을 기대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건군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중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였다는 소식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원쑤들에게는 더욱더 무서운 공포와 불안을 가져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우리 혁명무력건설을 이끄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주체81(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시였으며 이듬해 4월 9일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 군사중시의 사회적기풍 확립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조금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혁명정세를 깊이 꿰뚫어보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그 실현

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인민군대의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간부는 인민군대의 핵심골간이고 군인들에 대한 교육교양자이며 지휘성원들이다. 따라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강화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며 젊고 능력있는 일군들을 선발하여 군대안의 전반적간부대렬을 꾸리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강습과 군사강습, 전쟁경험연구토론회 같은것을 자주 조직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중대장대회와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지휘관, 정치일군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을 마련해주시여 우수한 지휘관들의 경험을 전군에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이밖에도 군사교육의 질적수준을 한계단 높이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능력있는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을 더 잘, 더 많이 키워내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게 하시였다.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힘을 넣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인민군대안에서는 구두선전과 직관선전, 예술선동 등을 배합한 사상교양사업과 문예작품과 출판보도물을 통한 교양이 힘있게 벌어졌다.

특히 90년대 첫 영웅인 김광철영웅과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8자루의 총이 되고 8개의 폭탄이 될것을 맹세한 8형제군관들을 비롯한 참된 군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궁정감화교양이 널리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투훈련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군현대화방침을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는 자기 수령, 자기의 최고사령관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무적필승의 전투력을 가진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위용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처음으로 진행한 조선인민군창건 60돐 경축열병식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열병식이 우리 식의 열병식으로 특색있게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여 그것이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일대 정치행사로 되게 하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25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건군절 60돐을 맞으며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열병지휘관의 보고를 받으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고 전체 열병부대들을 축하해주시였다.

순간 전체 열병대오는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김일성**》, 《**김정일**》, 《일심단결》의 환호를 올렸다.

조선인민군창건 60돐 경축열병식은 자기 수령, 자기의 최고사령관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무적필승의 전투력을 지닌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온 나라 인민들이 군사문제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것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는 주인, 국방의 주인으로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는것이 사회적기풍으로 되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신문과 방송, 출판물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게 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미풍선구자대회와 같은 국가적인 회의들에 참가시키고 그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대중운동도 더욱 발전시키게 하시였다.

또한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제대군관들, 영예군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게 하시고 몸소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제대군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살림집을 비롯한 생활조건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온갖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이와 함께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도와주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고 남편이 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사람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평가하게 하시였으며 그 소행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소개선전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아들딸들을 인민군대에 많이 내보낸 후방가족들을 사회적으로 널리 소개선전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주요기념일때마다 지방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이 그런 가족들을 찾아가 고무해주고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게 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장군님의 령도밑에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고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이 확고히 섬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은 더욱 군건히 다져질수 있었다.

5.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높이 발양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문화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1990년대의 경제건설구상에 따라 인민생활에 모를 박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는 한편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0(1991)년 10월 전국과학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서한에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와 과업,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해부터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늘이고 연구조건을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은 1990년대 전반기의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급속히 발전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적문학예술발전에도 계속 큰 힘을 넣으시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
>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1990년대초 2차례에 걸쳐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였다.
>
> 주체77(1988)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첫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이 제시되고 주체80(1991)년 10월에 열린 전국과학자대회에서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이 제시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자본주의의 복귀와 함께 문학예술이 반동적이며 퇴페적인 부르죠아문학예술로 전락되였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운명을 두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종말》을 부르짖었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우려를 표시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문학예술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우선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몸소 이룩하신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주체의 문예리론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1990년대초의 한두해사이에만도 고전적로작 《무용예술론》, 《건축예술론》, 《음악예술론》, 《미술론》, 《주체문학론》 등을 친필하여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적성과를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걸작으로 창작완성하며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주체80(1991)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부작예술영화를 창작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한생을 영화부문에서 일해오는 일군들이 많지만 그 누구도 이 노래에 다부작예술영화를 만들수 있는 귀중한 싹이 있다는것을 발견해내지 못하였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그것을 발견하시고 한편의 자그마한 노래에서 다부작이라는 거대한 예술영화를 창작할것을 결심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에서 나오는 주요인물원형들의 생활이 민족을 위한 길에서 운명적인 이야기로 일관되여있기때문에 제목을 《민족과 운명》이라고 하고 민족과 운명에 관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풀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자신께서 생각하시였던 주제는 각이한 인생행로를 걸어온 사람들의 운명을 통하여 우리 시대 조선사람으로서 참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사상이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에서 일관하게 강조하여야 할 기본사상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종자를 친히 골라주시고 창작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여 1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제1부부터 7부까지를 걸작으로 만들어내놓을수 있게 하시였다. 그리고 이 영화창작을 시작한지 1돐이 되던 주체81(1992)년 5월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

들과 하신 담화에서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련속편들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창작완성하며 문학예술건설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지도에 의하여 영화예술부문에서는 1990년대 전반기에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1부부터 30부까지가 걸작으로 창작완성되였다. 이와 함께 예술영화 《젊은 참모장》, 《어머니는 포수였다》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수많은 영화들이 창작완성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뿐아니라 음악과 문학, 무용과 미술 등 문학예술전반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우리의 문학예술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문화진지를 굳건히 다지는데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고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인민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민족의 자랑찬 력사와 슬기로운 전통을 빛내여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시 일부 일군들은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보건부문사업에 관심을 덜 돌림으로써 인민보건사업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7월 보건부문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예방치료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하시였다.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이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치료대책을 세우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구강치료부문을 발전시키고 암성질환에 대한 예방치료사업에도 큰 힘을 넣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보건사업은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민족문화유산—한 민족이 오랜 력사발전과정에 그 민족의 감정과 특성에 맞게 창조하고 발전시킨 물질적 및 정신적문화의 유산.

6.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 성대히 경축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 널리 선전

주체81(1992)년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이해를 맞이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기념하려는 우리 인민의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고 강렬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시여 주체81(1992)년 2월 7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당시) 정령을 비준해주시였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 한분만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절대적인 충실성과 도덕의리심, 무한한 겸손성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만류로 하여 정령은 발표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3년후인 주체84(1995)년 2월에야 세상에 공개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경사로운 2월의 명절에 위대한 장군님께

뜻깊은 선물을 마련하시려고 심중에 묻어두시였던 칭송의 글발을 고르고 다듬으시여 친히 송시 《광명성찬가》를 지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고결한 뜻이 어린 송시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송시의 구절구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혁명에 충실할것을 다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수령님을 더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성대하고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계기로 주체사상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였다.

당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심을 잃고 진리를 찾아 모색하고있었다. 그런 형편에서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였다.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앞두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전국주체사상토론회와 각 부문별토론회를 성대히 진행하게 하시였다. 또한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학습과 강연, 출판보도선전을 집중적으로 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주체사상에 대한 대외선전을 보다 적극화하도록 하시였다.

이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번역출판보급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한편 주체사상신봉자들에 의하여 세계도처에서 진행되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들의 준비과정도 성의껏 도와주게 하시였다.

그 결과 주체81(1992)년 4월에 일본 도꾜에서, 이해 2월에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4월의 명절기간에만도 세계 50여개 나라들에서 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또한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잡지들도 수많이 출판보급

되였다.

이것은 세계 수억만 인민들을 주체의 진리로 깨우쳐주고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계기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고 해설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을 계기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선전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한편 세계인민들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잘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사적지들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현지지도사적비와 표식비를 세우며 수령님의 친필명제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하신 조치에 의하여 주체81(1992)년 4월 15일을 앞두고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건립되고 혁명사적관이 개관되였다. 금강산과 묘향산에는 《금강산 **김일성**》, 《묘향산은 천하제일명산 **김일성**》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글발들이 새겨졌으며 서해갑문—신천—강령, 옹진물길입구에는 친필명제비가 세워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수록한 도서들도 더 많이 출판하게 하시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집필하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제1부—항일혁명편 1, 2권)를 기념비적도서로 훌륭히 출판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과 초기혁명활동시기로부터 생애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쓰신 회고록에는 혁명의 원리와 혁명하는 방법, 원칙이 다 밝혀져있으며 조국과 민족, 인민과 혁명동지를 사랑하는 고귀한 정신이 담겨져있다.

회고록은 비록 겸허한 필체로 씌여져있지만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투쟁력사가 너무도 위대하기때문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고록을 더 많이 출판하여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서도 널리 보급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항일혁명투사들의 수기》를 비롯한 혁명력사학습자료들과 혁명전통교양자료들, 덕성도서들과 부문별령도사들의 출판을 힘있게 내미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혁명적구호문헌학습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참관을 통한 위대성교양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어버이수령님 탄생 80돐을 계기로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널리 선전하고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였다. 또한 세계인민들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잘 알게 되였다.

송시—위인이나 영웅적인물 또는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에 대하여 칭송하는 내용을 담은 서정시의 한 형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 경축행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시는 한편 경축행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을 경축하는 여러가지 행사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80돐 기념행사가 우리 민족의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월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발표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대원수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여왔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처럼 위대한 군사적업적을 이룩하시고도 이 문제에 대하여 엄하게 만류하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어느날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대원수칭호를 드리는 문제는 더는 미룰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승낙하실리 만무하기때문에 당과 정부의 공동결정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끝을 지으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4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명의로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발표되였다.

80평생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생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께 대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림으로써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존경과 신뢰심은 더 한층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경축하는 모든 행사들이 가장 뜻깊고 성대히 진행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경축하여 중앙보고대회와 경축공연, 경축연회와 집단체조, 경축야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모든 행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줄수 있게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체81(1992)년 2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80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준비를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특히 경축공연을 종전과는 달리 새로운 형식으로 특색있게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미전에 창작공연된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나 《행복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가며 압박받고 천대받던 해방전이야기까지 다 펼쳐보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 대공연은 그렇게 하지 말고 경축분위기로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열렬히 축하하는 경축장을 설정하고 그것을 공연의 맨 처음에 펼쳐보이도록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며 우리 인민이 누리는 오늘의 행복이 꽃펴날수 있다는것을 감동적으로 느낄수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경축공연 《축원의 노래》를 두차례나 몸소 지도해주시여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대작으로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축야회와 집단체조도 큰 규모로 잘 준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집단체조는 출연자들로 **김일성**경기장 바닥을 꽉 채우고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큰 규모로 조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경축하는 모든 행사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80돐 기념행사가 인류공동의 대정치축전으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더 많은 외국의 축하사절들이 참가할수 있도록 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경축행사는 7개 나라 국가수반과 23개의 정부대표단, 60여명의 당수 및 부당수들이 이끄는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하여 세계 130여개 나라에서 온 420여개 대표단들의 참가밑에 인류공동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였다.

특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의 대표단들이 전례없이 많이 참가한것은 경축행사의 정치적의의를 한층 더 부각시키였다.

이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축전과 축하편지, 축기와 선물을 드리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축기와 선물은 무려 1 480여점에 달하였다.

한편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세계 50여개 나라들에서 온 80여개의 예술단, 대표단들의 참가밑에 제1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과 걸출한 풍모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신뢰의 정을 예술적화폭에 담았다.

이밖에도 세계 40여개 나라에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 경축준비위원회가 60여개나 조직되여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였다.

몽골, 뻬루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자기 단위에 모시기 위한 명명식과 명예칭호수여식이 진행되였다. 그리고 중국, 꾸바, 인디아, 이딸리아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경축집회와 경축연회, 기념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경축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총 행사건수는 세계 백수십개 나라에서 2 500여회나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온 세계는 경축분위기로 들끓었으며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대하처럼 굽이쳤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류공동의 대정치축전으로 진행된 어버이수령님 탄생 80돐 경축행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수령님을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기쁨을 안겨주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준 력사적사변이였다.

7. 력사적인 평양선언 채택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됨으로써 사회주의운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였다.

일부 나라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동요하거나 투쟁을 포기하는데로 나갔으며 일부 나라 당들도 혁명적원칙을 줴버리고 변색의 길에 들어섰다.

조성된 정세는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고있는 사회주의운동을 새

로운 기초우에서 재건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 투쟁강령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인 평양선언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켜나갈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평양선언이 나온것은 혁명적당들의 국제주의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적인 당들과 인민들이 공동으로 들고나갈 투쟁강령이 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을 채택하기 위한 충분한 전제를 마련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1월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시였다.

로작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길은 새롭게 개척하는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며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속에서 전진하여야 하는 준엄한 혁명의 길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사회주의의 전진도상에는 난관과 시련이 있을수 있으며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것은 력사발전의 기본흐름에서 볼 때에는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력사발전의 방향은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밝히시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과 그로부터 찾게 되는 교훈,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당들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게 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을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생명수》, 《사회주의건설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장군님을

《사상과 정치의 대가》로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큰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토론회에서는 세계인민들의 절실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설정하여 토론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특히 쏘련식사회주의가 좌절된 조건에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낡은 개념을 버리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잘 리해할수 있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주체81(1992)년 4월 일본 도꾜에서는 《현시대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력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진리성, 그를 구현한 조선식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려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선언을 채택할것을 발기하시고 그 실현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2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이 많이 오는 계기에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평양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력사적인 발기를 하시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더 많은 혁명적당대표단들을 참가시키도록 하시였다.

주체80(1991)년 11월 대표단초청과 관련한 총적방향을 밝혀주시고 나라별, 대상별로 되는 초청대상에 대하여 일일이 정하여주시였다. 특히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의 진보적당대표단들을 비롯하여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을 많이 초청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온 당대표단들과의 사업을 잘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 일군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혁명적당대표단들에게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에 담겨진 심오한 내용들을 적극 해설선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실을 더 많이 볼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 과정에 여러 나라 당수들과 당대표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의 사상을 반영한 공동의 투쟁강령을 발표할것을 일치하게 제기하였다.

주체81(1992)년 4월 20일 평양에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라는 력사적인 평양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평양선언에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이 정확히 분석되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과 사회주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있다. 또한 선언에는 매개 나라 당들이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자주성과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모든 진보적당들사이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공동의 투쟁과업들이 밝혀져있다.

평양선언은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길을 밝혀준 위대한 투쟁강령이였다.

평양선언의 채택은 사회주의의 재건과 승리를 위한 국제적운동이 맑스-레닌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출발한다는것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평양선언에 의하여 향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평양선언이 발표된 후 세계 혁명적당들은 이 선언을 《새로운 공산당선언》,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문건》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여기에 련이어 서명하였다.

평양선언에 서명한 당은 채택당시에 70개였다면 1999년말에 와서는 250개에 이르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무엇보다 혁명적당을 다시 내오고 사회주의를 다시 일떠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여러 나라 혁명가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게 하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여러 나라 혁명적당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대외활동도 적극 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나라 혁명적당수반들을 만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한량없는 은정을 베푸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계혁명력량은 우리 나라, 우리 당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여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해나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8. 미제의 고립압살책동 분쇄

미제의 핵사찰압력소동 분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나라를 고립, 압살하기 위하여 핵사찰문제를 걸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엄혹한 정세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주체74(1985)년 12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주체81(1992)년 1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여러차례의 비정기사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 우리의 핵시설들이 핵무기개발과 인연이 없다는것이 명백히 확인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불순세력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이 제기한 과거 핵활동에 대한 초기보고서내용

과 저들의 견해사이에 그 무슨 《불일치》점이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구실로 우리의 일반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해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적들의 특별사찰소동에 단호한 원칙적립장으로 맞서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의 일반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요구는 우리와의 교전일방인 미제의 책동과 직접 관련되여있고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가 개입한 심각한 정치군사적문제였다.

이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모든 군사대상들을 다 로출시키는 시초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주체82(1993)년 1월 일군들에게 핵사찰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루지 말고 정치군사화하면서 강경하게 나갈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에 따라 우리는 만일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악랄한 사찰조치를 기어이 취한다면 응당한 자위적조치로 대답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였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해나섰다. 그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회의에서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결의까지 조작하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적들의 무분별한 특별사찰소동을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의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주체82(1993)년 3월 8일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명령 제0034호를 하달하시였다.

명령에서 만약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줄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쑤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명령관철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무엇보다도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고사령관명령을 목숨바쳐 관철할 결의를 다지는 회의들을 진행하게 하시였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자기 맡은 혁명임무를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게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게 하시였다.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된 후 열흘 남짓한 기간에만도 150여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하였고 수많은 제대군인들과 전쟁로병들이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우리 인민의 이 무서운 결사항전태세앞에서 원쑤들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신지 4일후인 3월12일 우리 나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적들과의 대결에서 한치의 양보도 모르고 적들의 명줄을 쥐고흔드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적대세력들사이에 대결이 격화되면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전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국놈들이 당장 우리를 먹겠다고 달려들 때에도 그에 굽어들거나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적들을 정면으로 맞받아나가면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다.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성명은 발표되자마자 온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

세계사회계와 보도계는 3월12일공화국정부성명을 놓고 《지구상의 모든 핵폭탄을 다 터쳐도 북조선의 이번 성명보다 위력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조약탈퇴선언은 《북조선의 정치사상적, 군사적힘의 과시》로 된다고 하면서 《미국과 직접 맞서는 나라는 북조선밖에 없다.》, 《대세의 흐름을 마음대로 전변시키시는 **김정일**지도자의 령도력은 온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고 찬사를 아

끼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련속 취하시는 단호한 조치에 된타격을 받은 미제는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계획보다 앞당겨 중지하고말았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를 내세워 우리에게 강요하던 특별사찰소동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월 24일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적들과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또 한차례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이 모든것은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전적으로 령도자의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핵사찰—해당 나라가 핵담보대상이 되는 물자와 설비들을 핵담보협정에 규제되여있는 공약의 요구에 맞게 리용하는가를 현지에서 검증하는 활동.

대미외교전에서의 빛나는 승리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후 첨예하게 벌어지던 조미대결은 조미회담으로 이어졌다.

조미회담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정책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에 대한 《핵의혹》을 가시며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돌파구를 여는 회담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총포성없는 대결전인 조미회담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전략전술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조미회담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였다.

제1단계와 제2단계 회담에서 우리는 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큰 선에서 협상의 테두리를 확정하였다.

제3단계 회담은 쌍방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지 하여야 할 일들을 규정하는 매우 심각한 대결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3단계 회담에서 미제의 집요한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3단계 조미회담에서 우리가 이룩해야 할 목표와 대표단의 활동방향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대표단이 떠나기 전날에도 친히 대표단단장을 만나시여 이번 조미회담에서 투쟁을 잘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회담
>
> 제1단계 회담－1993년 6월 미국 뉴욕에서,
> 제2단계 회담－1993년 7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 제3단계 회담－1994년 8월～10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였다.

미국측은 회담에서 우리가 접수할수 없는 일방적인 요구를 들고나왔다. 그들은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다시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일것을 강요하였다. 당면하게는 우리의 핵활동을 영구히 동결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오만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경수로를 제공하고 흑연감속로를 대신할 대용에네르기보장대책도 점차 세우며 외교관계설정문제도 단계적으로 추진시켜보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를 강박하고 적당히 얼려서 무장해제시키며 시간을 끌어 《붕괴》의 날을 보겠다는 교활한 술책이였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적들의 음흉한 속심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일축하고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것만큼 우리도 동시에 움직인다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회담을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대표단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즉시 반격에로 넘어갔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이 경수로와 대용에네르기제공에 대한 담보를 하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절대로 미국의 요구에 응할수 없다는것

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우리의 원칙적이면서도 강경한 태도앞에서 더는 저들의 부당한 요구를 고집할수 없게 된 미국은 하는수없이 우리의 요구에 응해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주체83(1994)년 10월 우리의 정당한 립장과 주장이 반영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은 미국이 책임지고 총 200만kw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2003년까지 우리에게 제공한다는것과 우리는 흑연감속로발전소건설을 더 추진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는 에네르기를 미국측이 매해 50만t의 중유로 보상한다는것을 기본핵으로 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는것,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조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미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미국이 책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을 받아내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미국대통령 클린톤은 10월 20일 위대한 장군님께 조미기본합의문리행을 담보하는 서한을 정중히 보내여왔다.

담보서한에서 클린톤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라고 최대의 존칭으로 부르면서 장군님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책임적으로 리행할것을 다짐하였다.

국교관계도 없는 적대국,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으로부터 담보서한을 받아낸것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사변으로서 미제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셔버린 력사적승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후에도 대미외교전을 계속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0월말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조미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잘 집행해나가는것을 기본합의문채택후 대미외교활동의 기본방향으로 규정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약속한것을 받아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국이 경수로제공문제에서 절대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시였다.

조미기본합의문리행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은 경수로제공문제였다.

그런데 미국은 저들과 남조선, 일본이 참가하는 《조선반도에네르기개발기구》(케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경수로를 제공하게 하려고 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수로문제는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대미외교전을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우리 대표단은 조미정치회담을 통하여 미국이 경수로대상실현전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미국주도하의 케도는 경수로발전소건설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할뿐이고 우리의 기본상대자는 미국이며 따라서 총결산도 미국과만 한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약속한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내도록 하시였다.

결국 미국은 금호지구에 경수로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고 해마다 중유를 계속 실어다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핵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진행되였던 조미대결은 일시 결속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 승리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제 7 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 조직령도

〔주체83(1994). 7－〕

1.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실현

충의로 이어진 추모행사

1990년대 중엽에 우리 혁명은 뜻하지 않은 대손실을 당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83(1994)년 7월 8일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으로써도 가실수 없는 최대의 슬픔이였고 가장 큰 상실이였으며 전 인류에게 있어서 돌이킬수 없는 크나큰 불행이였다. 온 나라, 온 세계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것과 같은 상실의 아픔으로 몸부림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비기지 못할 상실의 아픔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시며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하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반영하여 추모행사를 엄숙히 거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추모한 나날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깊이 심어준 나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애도기간 추모행사를 통

하여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금수산의사당(당시)에 안치하고 조의행사를 하게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춘지 몇시간 지나지 않은 7월 8일 아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회의를 소집하시였다.

너무나도 청천벽력같은 소식앞에서 오열을 터뜨리며 몸부림치는 정치국성원들을 위로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어디에 모시고 조의식을 진행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4.25문화회관에 안치하자는 의견이며 수도의 중심부인 인민문화궁전이나 인민대학습당에 안치하고 조의식을 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에는 어버이수령님을 금수산의사당에 안치하고 인민들이 금수산의사당에 와서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금수산의사당은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 20년간 계시면서 조선혁명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이끌어오신 혁명의 성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의사당에 어버이수령님을 안치하고 조의행사를 거행함으로써 수령님은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

수자와 자료로 본 세계의 슬픔

·10여일의 애도기간 중국, 꾸바를 비롯하여 세계 166개 나라에서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사회단체, 주체사상연구단체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조직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3 480여건의 조전을 보내여왔다.

·애도기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캄보쟈왕국 국왕을 비롯한 60여명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170여명의 정당지도자들이 우리 나라 대표부를 조의방문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2 000여명의 외교대표들이 우리 나라 대표부를 찾아와 조의를 표시하였다.

·애도기간 세계의 각계층 인민들이 금수산의사당과 만수대언덕,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3 300여개의 화환을 진정하였다.

심을 내외에 알리시려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령구는 금수산의사당에 안치되였으며 7월 11일부터 수령님을 뵙기 위하여 찾아오는 우리 인민들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하는 각계층 인민들이 더 많이 수령님의 령전을 찾아뵙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을 찾는 우리 인민들의 흐름은 끝이 없었다.

전국각지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뵈오러 찾아오는 사람들로 평양행렬차들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기차를 놓친 사람들은 애도기간에 평양까지 못 닿을것 같아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다.

세계 각지에 사는 동포들은 눈물에 젖은 화환을 부여잡고 조국에서 배가 올 시간을 기다렸고 비행기를 타게 될 시간을 초조히 기다렸다.

7월 15일, 새날이 잡힌 깊은 밤 이런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래도 조의방문기간을 더 연장하여 인민들의 소원을 어느 정도라도 풀어주어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미 발표하였던 애도기간을 더 연장하고 조객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늘이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다.

이 조치에 따라 처음에 7월 17일까지로 정하였던 애도기간을 20일까지로 연기하고 16일까지 받기로 하였던 조객들을 18일까지 계속 맞이하게 되였다.

애도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을 직접 찾거나 조의를 표시하는 장소를 찾은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연 2억 1 200만여명에 달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서도 추모행사를 엄숙히 거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 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추모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모행사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태양의 모습으로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시였다.

7월 1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결식준비사업을 지도하시면

서 영결식에 모시고나갈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준비정형을 알아보시였다.

일군들은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례대로 그전에 행사들에서 모셨던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성의껏 수복하여 모시되 액틀에 검은 띠를 두르기로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결식에 모시고나갈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환히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할것을 발기하시고 몸소 그 원본사진까지 골라주시였다.

그후 여러차례 태양상을 높은 수준에서 형상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고 7월 19일 영결식에서 령구차행렬의 앞에 모시도록 하시였다.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는 모든 행사장들과 평양시내의 여러곳은 물론 전국각지의 주요 군중교양장소마다에 수령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세심한 지도밑에 엄숙히 거행된 추모행사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분을 혁명의 수령으로, 민족의 어버이로 모시고있었는가를 더욱더 가슴깊이 느꼈다. 그리고 그렇듯 위대한 어버이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지 못한 죄책감으로 가슴을 치며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실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7월 8일을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로 맞이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려온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수령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2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7월 8일을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로 맞이하는것을 영원히 전통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조치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마다 7월 8일이 오면 어버이수령님을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관습으로, 민족의 고유한 전통으로 여기게 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마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을 생존해계실 때보다 더 잘 그리고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심으로써 세상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하여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고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시는 사업은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최고중대사이며 기본의 기본을 이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수령님께서 생전에 집무실로 리용하시던 금수산의사당에 모시도록 하시였다.

어느 나라에서나 당과 국가수반이 서거하거나 자리를 내놓으면 그가 집무를 보던 청사는 공직과 함께 그 후계자에게 그대로 넘겨졌다. 그리고 서거한 수반의 령구는 그가 생존시에 집무를 보던 장소와 건물에는 관계없이 도시중심부의 광장이나 일정한 지역에 묘 또는 릉을 꾸려 안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관례를 따르지 않기로 하시였다.

주체83(1994)년 7월 12일 금수산의사당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일군들과 함께 의사당안을 돌아보시였다.

이날 일군들은 조의행사가 끝나고 영결식까지 한 다음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당과 국가사업을 보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올렸다.

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은 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생과 금수산의사당을 분리시킬수 없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연한 어조로 금수산의사당은 명실공히 수령님의 집이라고, 나는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금수산의사

당에 모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이 금수산의사당과 직접 련결되여있듯이 수령님의 영생도 금수산의사당과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이고 결심이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모행사기간은 물론 영원히 금수산의사당에 계시게 되였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더없이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발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과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금수산기념궁전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공사가 진행되는 1년동안에 무려 400여차례의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거의 매일, 어떤 날에는 두세번씩 현장에 나오시여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방을 금수산기념궁전의 높은 홀에 정해주시고 높은 수준에서 꾸리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83(1994)년 8월초 금수산의사당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실 방을 어디에 꾸리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군들과 의논하시였다.

일군들은 애도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를 안치하고 조의행사를 한 중앙홀이 아니면 다른 호동에 꾸렸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올렸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방을 높은 곳에 꾸리도록 하시였다.

어버이 수령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서 수령님께 인사를 드려야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방은 수령님께서 집무를 보시

다가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담화를 하시던 홀에 꾸려지게 되였다.

주체83(1994)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의사당에 나오시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방의 설계도면을 보아주시였다.

설계를 맡은 일군들은 방을 현란하게 꾸리려고 하였다. 천정에는 무리등을 달고 네면의 벽에 무늬대리석을 입히며 량벽에 전자시계를 걸게 되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홀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킬수 있는 장식이 필요없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이 가르치심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방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수령님의 모습에만 집중되고 수령님과만 속마음을 나누며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최대의 성의가 깃든 홀로 훌륭히 꾸려질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대리석립상을 모실 홀과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뵙기 위하여 오르게 될 대계단을 정중하고도 훌륭하게 꾸리도록 하는 문제로부터 궁전내부의 조명과 음향설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는 인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통로를 뽑고 금성거리에 현대적인 궤도전차선까지 놓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고있던 주체84(1995)년 6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실데 대하여》라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결정서를 채택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이 공동결정서에 의하여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하며 그곳에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안치한다는것이 세상에 공포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을 개관하신 다음에도 금수산기념궁전과 금수산지구를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한 금수산기념궁전 중앙홀을 숭엄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궁전광장을 크게 꾸리고 천연화강석으로 포장하며 궁전을 찾는 인민들에게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현대적인 궁전외랑까지 꾸리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궁전의 돌울타리와 돌대문을 민족적정취가 풍기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특색있게 형성하도록 하시였다. 넓은 부지에는 수목원을 조성하고 금수산기념궁전과 평양비행장을 곧추 련결하는 현대적인 9.9절거리도 새로 건설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금수산기념궁전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아 생전의 모습 그대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뵈올수 있게 되였다.

반만년 민족사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하고 피눈물에 젖은 이 땅에 주체의 최고성지를 일떠세우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공적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영생의 신념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시는 사업이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기본의 기본을 이루지만 그것이 수령영생위업의 전부는 아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영생의 신념이 간직되여있어야 수령은 영생한다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는것과 함께 인민들의 마음속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인민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경모심과 숭배심이 더욱 뜨겁게 발현되였다.

금수산의사당에 찾아가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섰던 사람들조차도 집에 돌아와서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인민들과 같은 심정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며칠간 지방에 출장을 가신것 같고 오후 4시나 저녁 9시, 10시가 되면 전화를 걸어주실것 같아 마음을 기울이시였다.

인민의 념원을 절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심정도 합쳐 주체83(1994)년 7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뒤이어 7월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를 우리 당의 기본구호로 제정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의 영결을 하루 앞둔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실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수령님의 사상을 100%로 계승해야 한다, 이것이 영원하고 철저하면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는것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신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구호를 당의 기본구호로 제시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신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이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있으며 길이 빛날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혁명적조치들도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영생기원의 마음을 담아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영생탑을 건립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주체85(1996)년 7월 초순 위대한 수령님께서 늘 다니시던 금성거리입구에 대형영생탑을 건립할것을 친히 발기하시고 탑이 훌륭히 건설되도록 이 사업을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탑은 억만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화강석으로 세워 그 영구성을 보장하게 하시였다. 그러시

고는 몸소 도안을 보아주시고 영생탑의 형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주체86(1997)년 7월 7일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수도 평양에 대기념비적인 영생탑이 수령님의 한생을 상징하여 훌륭히 건립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관심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든 영생탑이 대국상후 3년동안에만도 3 150여개의 장소에 일떠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수령영생가요와 시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시여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모실데 대한 신념과 의지를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성원들과 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 주석으로 모셔야 한다는 청원이 많이 제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체83(1994)년 7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석이라는 말은 수령님의 존함과 뗄수 없는것으로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으며 **김일성**주석이라는 존칭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지울수 없는것으로 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김일성**주석님이라는 친근한 존칭과 높은 명성으로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고 하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우리 나라의 유일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주석이라는 직명을 가질수 없다는것을 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83(1994)년 10월 16일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새롭게 채택된 헌법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규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생존시와 다름없이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긍지높이 칭송하며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

수령은 생전의 모습과 함께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빛나는 생애로 하여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숭고한 도덕관을 가지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하여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영화문헌과 글로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영화문헌은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주고 력사에 길이 전해가는 위력한 사상교양수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한 추도행사들을 폭넓게 수록한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1－7부)편집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83(1994)년 7월 온 나라가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도행사들을 빠짐없이 잘 촬영하여 력사에 길이 전해갈데 대한 발기를 하시였다. 그리고 강력한 촬영집단을 무어 온 나라 방방곡곡에 파견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100여개의 촬영반이 각 도, 시, 군과 중요단위들에 파견되여 활동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가장 큰 규모의 촬영조직사업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지에서 촬영한 화면자료들에 기초하여 영화문헌을 최상의 수준에서 편집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영화문헌에 로혁명가들과 전쟁로병들, 전쟁공로자들, 영예군인들 특히 리인모선생님이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는 장면을 넣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편집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1－7부)는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속에 영생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우리 인민의 단결된 위력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는 기념비적인 영화문헌으로 훌륭히 완성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과 불멸의 업적을 수록한 영화문헌을 여러가지로 편집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을 만나 사업하신 자료들을 묶어 영화문헌을 편집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서도 공업편, 농업편, 문화편, 해외동포편, 군대편을 비롯한 주제별로 영화문헌을 만들도록 하시였다.

그뿐아니라 영화문헌제작완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가르쳐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자신께서 소중히 보관하여오신 사진문헌자료들을 수많이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위대한

생애의 1994년》,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를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과 불멸의 업적의 전모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영화문헌들이 련속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폭넓게 수록한 글을 더 많이 써내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기념비적도서편찬사업을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주체84(1995)년 3월초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빛내이기 위한 총서적인 위대성도서를 집필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과학, 교육, 출판기관들의 유능하고 권위있는 필자들로 집필편집조를 구성하며 집필조건을 잘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그후 총서의 집필편집방향과 내용, 서술방법에 대하여 거듭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80여성상의 장구한 기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폭넓게 집대성한 기념비적도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전 21권)이 주체89(2000)년 태양절까지 성과적으로 편찬발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폭넓게 담아 형상한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영생》과 《대지의 전설》, 《태양찬가》 등이 창작되여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온 나라 각지에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현지지도사적비와 현지교시판, 친필비를 건립하며 수령님을 칭송하는 글발을 새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김일성**정치대학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대원수복을 입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건립되고 력사의 땅 청산리를 비롯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이 깃들

어있는 곳들에 수령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졌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평양대동문인민학교가 **김성주**인민학교(당시)로 개칭되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판문점의 통일각앞에는 수령님의 마지막친필인 **《김일성 1994.7.7.》**이라는 친필비를 건립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금강산과 묘향산의 명소들과 천연바위들에 어버이수령님을 칭송하는 불멸의 글발을 새기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금강산 법기봉의 천연바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1994년 7월 8일 새김》이라는 글발이, 금강산 옥녀봉의 명당바위에는 《조선아 자랑하자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였던 영광을! 1994년 7월 8일 새김》이라는 글발이 새겨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도록 하는 중대한 력사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100일 중앙추모회가 있은 날 일군들에게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였다.

또한 주체86(1997)년 1월에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3년상을 치른 다음부터는 인민들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날보다 탄생하신 날을 더 뜻깊게 기념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신지 3돐이 되는 주체86(1997)년 7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를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결정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

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년호를 제정하며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주체년호와 태양절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영원히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민족으로, 우리 조국은 영원히 **김일성**조선으로 온 세계에 길이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더불어 영원히 흐르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리신 특기할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2. 선군정치방식의 전면적확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의 경사

선군정치방식의 전면적확립

군사중시, 선군혁명령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혁명령도의 원칙이고 그것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것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 선군령도업적을 계승하여 주체49(1960)년 8월 25일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였고 1960년대말부터는 선군정치를 시작하시였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중엽에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가시였다.

1990년대 중엽 우리 혁명의 내외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복잡하고 첨예하였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자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고립압살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우리 민족이 당한 대국상을 계기로 적들은 우리 공화국이 빠르면 3일이나 3개월, 늦어도 3년

이면 붕괴될것이라고 떠들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더욱 파렴치하게 감행하였다.

여기에 자연재해가 여러해째 계속되고 잇달아 혹심한 식량난, 연료난, 동력난까지 겹쳐들었다.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들 같으면 벌써 열백번도 무너지고말았을 그런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어느때보다도 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질것을 요구하였다.

강력한 국방력이 없이는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었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해나갈수도 없었다.

오랜 기간의 선군령도, 선군정치를 통하여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울수 있는 주객관적조건을 성숙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시기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이라고 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가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인민군대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을 때 우리의 령도는 선군령도이고 우리의 정치는 선군정치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에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원칙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시려는 확고한 결심을 다지시였다.

주체83(1994)년 7월 중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는 조선혁명위업완성에서 주력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정치국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인민군대를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일층 강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 가르치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원칙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

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당과 온 사회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과정에 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조장발전시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이한 주체84(1995)년 양력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포중대를 찾으시였다. 이것은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진지에 오르시여 새해를 맞는 초병들을 축하해주시고 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푸르싱싱한 다박솔로 뒤덮여있는 포진지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며 이곳 중대는 다박솔중대라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이어 중대교양실과 병실을 돌아보시며 초병들의 군무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군인들과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으시였다.

그로부터 한달후에는 동해안의 최전방을 지키고있는 감나무중대의 녀성해안포병들을 찾으시여 그들을 녀성혁명가들로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급 부대와 구분대의 전방지휘소들, 지어 최전연에 자리잡은 초소에 이르기까지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도 가리지 않으시고 다 찾아주시였다.

이 과정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힘차게 맥박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수많이 목격하시였다.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이 령도자를 위해서라면 자폭의 길도 서슴없이 택하였으며 돌아올 연유대신 비행기에 더 많은 폭탄을 실어달라고 뜨겁게 웨쳤다.

특히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병사들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전투적구호를 부르며 혁명군대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주체85(1996)년 6월 안변청년발전소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정신과 위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발전소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후세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자기 수령,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이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길영조영웅과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처럼 살며 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전당과 온 사회가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전당,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한 학습과 발전소건설전투장에 대한 참관, 견학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출판보도, 문학예술 등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체득시키기 위한 일대 선전공세를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사업을 더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 주체86(1997)년 3월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중시의 원칙에서 우리의 국가기구체계를 강위력한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로 개편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주체87(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기구체계를 완성시켜주시였다.

그리하여 선군정치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 선군정치체제가 확립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군정치의 위력이 남김없이 발양됨에 따라 선군정치방식에 대한 정식화를 내리시였다.

주체88(1999)년 2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선군정치는 자신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시였다.

그후 여러 기회에 선군정치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심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지킬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의 경사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실것을 절절히 념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하루빨리 높이 모실것을 청원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편지가 매일과 같이 당중앙위원회에 올라왔다.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온 나라 인민의 열망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그처럼 뜨거운 열망을 자신에 대한 더없는 신임과 기대의 표시로 받아들이시면서도 이 사업을 여러해동안 미루어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추대사업을 놓고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만 머리를 써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기 위한 사업이 준비되고있다는것을 처음으로 아시게 된것은 주체83(1994)년 7월 21일이였다.

그 전날 어버이수령님 서거 중앙추모대회를 마치고 집무실에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실의 아픔과 겹쌓인 피로를 참으시며 밤늦도록 사업에 전념하시였다.

다음날 새날이 잡혔지만 잠을 이룰수 없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내를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보낸 수도시민들이 어둠속에서 만수대언덕으로 끊임없이 오르고있었고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은 금수산의사당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비감에 잠겨있었다.

여전히 비분에 모대기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시고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찾으시였다.

그와 담화하시는 과정에 일군들이 다른 나라들의 전례를 따라 인차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애석하게 영결한 비애의 감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조건에서 추모대회가 끝나자마자 인차 당과 국가지도기관선거를 하는것은 좋을것 같지 않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우리 나라는 안정되여있기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공석을 빨리 메꾸는 식으로 당지도기관선거와 국가지도기관선거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뒤로 미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00일 중앙추모회가 있은 날에도 우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였다.

그날 중앙추모회가 끝나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한 성원이 이제는 위대한 장군님을 공식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는 행사를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도의 곡성이 환호

성으로 바뀌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오랜 시간 자리를 같이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신념을 지니시고 당과 군대와 인민을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이끄시여 숭고한 도덕의리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오로지 어버이수령님을 더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다하시였다. 그럴수록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려는 전당, 전군, 전민의 열망은 더욱 고조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다.

우리 당의 각급 조직들에서는 어느 나라 당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독특한 방식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당총비서로 모시는 정치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주체86(1997)년 9월 21일 평성시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를 토의결정하는 조선로동당 평안남도대표회가 진행되였다. 이어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도(직할시)대표회, 성, 중앙기관 및 도당기능을 수행하는 당조직들의 대표회가 진행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해당지역과 단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모실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0월 8일 특별보도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였음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시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념원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취되게 되였다.

그처럼 고대하고 열망하던 력사적인 시각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의 환호성은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는것을 지지환영하는 위원회들이 결성되고 수많은 당, 국가수반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그리고 앞을 다투어 성명과 환영보도들을 발표하였으며 환영집회와 환영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모신것은 온 나라, 온 세계의 일대 경사였으며 20세기 정치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은 실현되였으나 장군님을 국가수위에 모시려는 념원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있었다.

이 문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취급되는 문제로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자면 먼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진행하여야 하였다.

헌법에 따르면 주체84(1995)년에 제10기 대의원선거를 하여야 하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나라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시여 제10기 대의원선거를 계속 미루어오시다가 공화국창건 50돐이 되는 주체87(1998)년에 가서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제666호 선거구에서는 제일먼저 인민무력부선거자대회를 열고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후보자로 모실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련이어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선거자회의가 성대히 열리였다.

전례없이 고조된 정치적분위기속에서 주체87(1998)년 7월 26일에는 전국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가 일제히 진행되였다.

이날 제666호 선거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모시는 뜻깊은 선거가 높은 정치사상적열의속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공화국창건 50돐을 며칠 앞둔 주체87(1998)년 9월 5일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헌법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특별히 집중시킨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 문구였다.

대국상을 당한 이후 국가주석의 직분을 맡아주실것을 거듭 간청하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전사, 제자이기때문에 주석이라는 직함을 가질수 없다고 엄하게 만류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러한분이시였기에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여 헌법에 이 내용을 박아넣도록 하시였던것이다.

이어 회의에서는 전체 인민들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미 맡고계시던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에 다시 모셔진것을 의미하는것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새 헌법에 따라 국방위원회가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중추기관으로 된 조건에서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통솔하는 우리 공화국의 최고직책에 높이 모셔진것을 의미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크나큰 영광이고 행복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대경사였다.

3. 자위의 군사강국 건설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육성

국방사업은 국가정치의 첫째가는 중대사이며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

으로 키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우리 식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무적의 싸움군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이끌어오신 6년동안에만도 끊임없이 인민군대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 과정에 멀고도 험한 길을 걸으시면서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찬 총폭탄대오로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차넘치는 총폭탄대오로 꾸리자면 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대성교양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게 하시였다.

이에 따라 인민군대안의 정치학습망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풍모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을 기본으로 취급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기 부대들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사적을 종합정리해놓고 그것을 통한 군인교양도 잘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군대안의 모든 부대들에 혁명사적교양실이 정중히 꾸려지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성교양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모든 군인들이 자기 수령,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안에서 오중흡, 리수복, 길영조영웅과 같은 수령결사옹위투사, 육탄영웅들의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그들의 모범을 모든 군인들이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부대에서 나온 영웅들과 충신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결합하게 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각이한 년대에 이름을 남긴 오중흡, 리수복, 김광철, 길영조영웅들의 빛나는 위훈은 인민군군인들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더없이 고귀한 모범으로 된다.

길영조영웅은 주체81(1992)년 12월 조국의 푸른 하늘에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화폭을 펼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비행사이다.

이날 길영조비행사가 조종하는 비행기는 착륙하려고 비행장구역 상공에 들어섰는데 비행기안에서 갑자기 불이 일어났다. 이제 몇초후면 비행기는 떨어질수 있었다.

처음 비행기가 떨어지려던 지점은 고층살림집들이 늘어선 주택구역으로서 그가운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었다.

길영조비행사는 가까스로 기수를 바다가로 돌려 불타는 비행기와 함께 서슴없이 자폭의 길을 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하시고 길영조영웅과 같은 수많은 충신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이 굳건하다고 하시며 그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편 군인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미제와 일제는 물론 계급적원쑤들과 무자비하게 싸우는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켜나가시였다. 그리고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군대맛이 나게 전투적이면서도 화선식으로 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사상교양사업은 모든 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한 육탄영웅으로 준비시키는데 지향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만들기 위하여 인민군대의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체85(1996)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

원들과 하신 담화에서 전군이 오중흡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울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새로운 대중운동으로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벌릴것을 발기하시였다.

뒤이어 이 운동의 목적과 중심과업,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으로 《인민군대안에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를 하달하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안에서는 오중흡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대중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의 사령부를 한목숨바쳐 보위한 7련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운동을 벌리는데서 나타나는 자그마한 편향들도 제때에 바로잡아주시면서 이 운동이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찬 총폭탄대오로 만드는데 지향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가운데 주체89(2000)년말까지 근 60개 단위가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군대안에서 사상교양사업이 강화되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전군이 수령결사옹위정신만이 꽉 들어찬 오늘의 오중흡7련대로 준비될수 있었다.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 강성대국 건설의 제일기둥으로 육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군대는 높은 정치사상적우월성이 군사기술적힘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될수 있다.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자면 군대안의 지휘성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자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모든 군인들의 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대의 지휘성원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군사기술적자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군대지휘성원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책임일군들에게 우리가 통일대전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지휘관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군대안의 중요지휘성원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당에 충실하고 싸움군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 지휘성원대렬을 꾸리기 위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의 군사기술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수많은 군사교육기관들을 찾으시여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전투원들로 준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우선 현지시찰의 길에서 군인들이 진행하는 여러가지 종목의 훈련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모든 훈련을 우리 실정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전투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84(1995)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군인들의 전투훈련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동해안에 위치한 한 해상훈련장을 찾으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민군부대들에서는 수영훈련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하지 못하고있었다.

군인들의 수영훈련을 보아주시는 첫 순간에 이 문제를 포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전투훈련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때부터 인민군대안에서 새로운 수영법이 구현되여 수영훈련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주체85(1996)년 7월에는 전군적인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인민군대안의 각급 지휘성원들과 훈련일군들에게 새로운 수영법을 실지동작으로 배워주었다. 이 방식상학을 계기로 수영훈련은 물론 인민군대안의 각 군종, 병종, 전문병훈련이 주체적립장에서 보다 실속

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훈련을 주체적립장에서 하는것과 함께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강도를 높여 전투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당백의 비결은 훈련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인민군대에서 훈련을 힘있게 벌려 모든 군인들을 맹수와 같이 용맹한 일당백의 군인들로 키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시기 전선시찰의 길에서 어느 한 해안포구분대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아주시였다.

그런데 이날의 해안포병화력복무훈련에서는 명중률을 높이는것보다 속도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하나의 사실에서 인민군대전투훈련에서 나타나고있는 본질적약점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훈련에서는 속도보다도 명중률을 높이는것이 기본이라는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전투훈련에서 유희식, 멋따기놀음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여 펄펄 나는 일당백의 전투원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늘 군사가 제일이고 국방공업이 선차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몇해사이에만도 국방공업부문 과학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자주 찾으시여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시면서 보다 큰 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국방공업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군대를 위력한 현대적장비들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군사규률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되게 되였다.

이것은 미제와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힘있는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둥으로 키우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일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중요공사들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그것을 제 기일에 끌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평양의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건설, 안변청년발전소와 평양—향산관광도로건설 등은 모두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존시에 구상하신것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대에 맡겨주신 중요대상건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군대에 맡겨주시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한편 몸소 현지에 나와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군인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공사과제들을 훌륭히 완성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농업전선, 전력공업전선, 석탄전선들에 군인들을 파견하시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부단히 늘여나가게 하시였다.

우리 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조국보위도 농업전선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방선을 굳게 지키면서 중요대상들에 나가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나날에 인민군전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한없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우리 군대는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 무적필승의 강철의 대오,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될수 있었다.

화력복무훈련—포부대에서 화력기재를 잘 다룰수 있도록 포수들이 하는 훈련.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

현대전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는 립체전이다.

19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각종 군사연습을 많은 경우 우리의 후방을 기습타격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행하였다.

현대전의 특성과 적들의 기도를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며 나라의 전반적방위력을 완비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속에서도 민간무력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선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시면서 민방위훈련을 강화하고 그 질적수준을 높여나가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농적위대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단위에서 어느때든지 적들이 덤벼들면 자기 공장과 마을을 지켜낼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모든 일군들은 민방위훈련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방위훈련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바로 세우는것과 함께 훈련명령을 무조건 집행하는 강한 규률도 세우도록 하시였다.

무엇보다도 경제형편이 어려운 조건에 맞게 군사훈련조직을 짜고들어 훈련명령을 무조건 집행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훈련명령집행정형을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총화하고 대책을 세우게 하여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방위훈련이 실지 싸움에서 은을 나타낼수 있게 그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민방위훈련의 질은 그것을 집행하는 소대장들과 훈련지도일군들의 역할과 능력에 크게 달려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주체87(1998)년 하반년과 이듬해 상반년에 로농적위대 소대장, 중대장들에 대한 강습을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였다.

도, 시, 군단위로 여러기에 나누어 진행된 강습은 로농적위대 소대장, 중대장들의 전투지휘능력과 훈련집행수준을 전반적으로 한계단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로농적위대훈련이 강화되고 그 질적수준이 부단히 높아지고있던 주체88(1999)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해에 군대와 로농적위대실탄사격을 조직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군대와 로농적위대실탄사격을 조직하면 군대는 사회의 로병들을 존경하게 되고 로병들은 그들대로 긍지감을 가지게 되여 좋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무한히 고무된 제대군인들을 비롯한 로농적위대 대원들은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다음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농적위대의 작전전투동원준비를 보다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주시였다.

이에 따라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민간무력부문에서 유사시에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정연한 질서와 행동방향이 명백히 설정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전군, 전민이 달라붙어 전국의 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방어시설물공사를 전국적범위에서 중단없이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그리고 세계적인 무장장비발전추세에 맞게 방어시설물들을 더욱 튼튼히 건설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7월과 9월 일군들에게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적들의 1차타격으로부터 인원과 기재를 보호하는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현대적무기개발추세에 맞게 전투시설물들을 더욱 튼튼히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쳐부실수 있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철저히 갖춘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4.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 강화

사회주의의 변질은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고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며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송두리채 말아먹게 된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좌절이 남긴 가장 심각한 교훈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자면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사회주의사회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상교양사업은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하는 전기간 중요한 문제로 나서지만 특히 어려운 시련의 시기일수록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옳은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마련하는것과 함께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성교양과 충실성교양, 신념교양을 더욱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였다.

우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위대성교양, 충실성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이에 따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하신 교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주요계기들마다 반복침투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영화문헌을 통한 위대성교양, 충실성교양이 심화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충실성의 산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따라배우게 하시였다.

위대성교양, 충실성교양이 강화되는 과정에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많이 나타났다.

그들가운데는 수도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으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 곁에 두고 산중의 아름다운 꽃을 만수대언덕의 수령님동상에 보내드리군 한 솔재령초소 녀성군인들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름없는 산중초소에서 전사의 도리를 다해가는 이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그리시고는 그들이 평양에 올라와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수령님의 동상에 직접 꽃다발을 드리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이들의 충실성의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필승의 신념과 난관극복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주체85(1996)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이 자신의 인생관이고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신념과 배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기본징표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시면서 신념교양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한 혁명

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을 계속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84(1995)년 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70돐을 맞으면서 전국 중학교 학생소년들의 답사행군이 진행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생청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과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의 백두산, **정일**봉에로의 답사행군은 그후에도 끊임없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시기 수많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990년대 후반기 고산진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여러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들을 찾으신데 이어 주체89(2000)년 3월에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하시였다.

이때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원상대로 잘 꾸리고 더 잘 보존관리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혁명전통교양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불멸의 리정표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급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2월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는 새 세대들속에서 계급적원쑤들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환상도 가지지 않게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계급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당일군들의 방식상학을 조직하게 하시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주체87(1998)년 11월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 박물관을 반미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거점으로, 모든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투쟁정신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급교양장소로 리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신천박물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혁명발전의 요

구에 맞게 계급교양사업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시기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대동강반에 끌어다놓고 반제반미교양에 널리 리용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인민문화궁전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 공장, 기업소, 농촌리들에 계급교양관, 계급교양실을 새로 꾸리고 그를 통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잘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우리 나라 력사를 바로 정립하고 널리 선전하며 민속을 발굴정리하고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게 하시였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마을과 일터, 국토를 잘 꾸리고 가꾸는 과정에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깊이 간직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사상사업이 당시의 고난과 시련을 완강히 뚫고나가는데로 지향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군들은 군대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하는것처럼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군중의 심금을 울리는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들도 경제선동을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있게 울려퍼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5.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1990년대 후반기 과학기술중시방침을 관철하여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경제를 활성화하며 군사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입니다. 높은 과학기술이 없이는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방침을 관철하여 나라의 과학기술 특히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에 과학중시기풍을 세우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무엇보다도 일군들부터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가지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에 낯을 돌리게 하시였다. 특히 일군들이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을 배우는데서 앞장에 서게 하시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다.

평성과학지구를 2000년대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건설하도록 하시였으며 과학연구기지들을 물질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현대적인 실험설비와 자재, 시약 등을 제때에 보장해주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해주는 기풍도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워나가시면서 나라의 중요과학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며 특

히 정보산업건설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21세기는 정보기술수단의 생산과 그것을 활용하는 정보산업이 사회,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를 눈앞에 둔 1990년대 후반기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정보산업을 건설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자공학과 전자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첨단전자공학연구기지를 꾸려주시였다.

이미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80년대말에 전자공학과 전자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집적회로생산기지가 마련되여있었다.

우리의 전자공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 구상밑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 전자공학의 정수를 이루는 설비생산공정을 새로 갖추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투자를 크게 하여 가장 현대적인것으로 갖추도록 하시고 설비납입과 기술봉사,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긴장한 전투를 벌려 현대적인 최첨단전자공학설비생산공정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첫 시제품을 생산하였다.

주체88(1999)년 1월 몸소 과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꾸려진 설비생산공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보아주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우리 나라에 전자공업의 기초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며 나라의 전자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콤퓨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직접 콤퓨터기술을 연구하시면서 이 부문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연구기관들을 급이 높은 콤퓨터로 장

비하도록 하시고 특히 프로그람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주체87(1998)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프로그람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실 구상을 안으시고 제8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전문가들도 따르지 못할 해박한 식견으로 우리 나라 프로그람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프로그람개발도구(프로그람을 짜는데 필요한 프로그람)를 자체로 개발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프로그람경연을 자주 조직할데 대한 문제, 콤퓨터연구부문의 력량을 2～3배로 늘일데 대한 문제, 기술자후비양성문제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람기술발전을 위하여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프로그람기술발전 전망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이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실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에 주신 말씀은 우리 나라 프로그람기술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프로그람기술발전계획〔주체88(1999)년－주체91(2002)년〕을 작성하여 내려보내도록 하시고 설정된 과제수행에 필요한 자금규모도 정해주시였다.

그리하여 프로그람기술을 전망성있게 적극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전국적인 콤퓨터망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주체86(1997)년 2월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 이번 세기안으로 온 나라의 중요기관, 기업소들을 망라하는 전국적인 콤퓨터망을 형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주체88(1999)년 2월 16일까지 과학기술자료검색을 위한 전국적인 콤퓨터망형성을 완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 과학자, 기술자들은 콤퓨터망봉사의 주축을 이루는

자료기지봉사, 전자우편봉사, 전자소식봉사 등 모든 자료봉사를 우리 식의 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실현하는데 성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년 3월 전국적인 콤퓨터망형성에 크게 기여한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처럼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최첨단전자공학연구기지를 꾸려주시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콤퓨터화를 실현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정보산업을 건설할수 있는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여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의 발사를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의 개발을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세계적으로 인공지구위성개발에서 다른 나라의 첨단기술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것으로 인정되여왔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자체의 힘으로 인공지구위성을 개발하도록 하시고 연구집단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어느해 가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 연구개발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위성개발의 현실적가능성이 마련된 조건에서 위성을 개발하고 쏴올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다그칠데 대한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인공지구위성을 기어이 연구개발하여 장군님께 기쁨드릴것을 굳게 다짐하며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수많은 애로와 난관이 첫걸음부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연구사업과정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이 애를 먹고있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연구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눈을 틔워주는 명안이였다.

연구집단은 신심에 넘쳐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명안대로 위성개발방안을 선택하고 설계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보통때 같으면 5년이나 걸려야 할 수만매의 방대한 설계도면과 각종 기술문건작성을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뒤이어 연구집단은 긴장한 전투를 벌려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해결하지 못한 다계단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연구완성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완성된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도록 하시였다.

이 시기 적들의 책동은 더욱더 우심해지고 공화국창건 50돐을 빛내이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은 날로 고조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과시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주체87(1998)년 8월 31일 12시 07분 드디여 인공지구위성이 3계단 운반로케트에 의하여 발사되였다. 위성은 4분 53초만에 정확히 궤도에 진입하였다.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역시 그 개발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최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해야 성공할수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 처음부터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미국은 인공지구위성 《뱅가드》를 아홉번만에야 궤도에 진입시켰고 일본도 인공지구위성을 거듭되는 실패끝에 여섯번만에야 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우리는 단번에 위성을 정확히 궤도에 진입시켰다.

서방의 우주강국들이 청천벽력이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것은 결코 우리 인공지구위성이 100% 우리자체의 힘으로 완성된때문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위성발사를 단번에 성공시킨 기적적인 성과와도 크게 관련되여있었다.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은 《광명성1》호로 명명되였다.

《광명성1》호라는 긍지높은 이름에는 조선을 세계에 빛내이시려는 백두산장군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최대의 칭송이 담겨져있고 장군님을 따라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 어리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성의 개발과 발사를 성공시킨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고 화선입당의 영예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높은 급의 표창과 국가수훈, 명예칭호와 함께 대를 이어 전할 귀중한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참으로 인공지구위성을 100% 자체의 힘으로 개발하고 한발의 발사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것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였다.

인공지구위성—일정한 자리길을 따라 지구의 두리를 돌아가도록 인공적으로 쏘아올린 물체.

6.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교육체계와 교육내용 및 방법 개선

강성대국건설은 더 많은 기술인재들을 키워낼것을 요구하였다.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자면 그에 맞게 교육체계와 교육내용 및 방법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한몫할수 있는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게 교육체계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통교육부문에 정연한 수재교육체계를 세워주시였다.

1980년대 중엽에 우리 나라에서는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제1중학교(당시 제1고등중학교)들이 평양과 각 도소재지들에 나왔다.

제1중학교들에서 높은 기초실력을 소유한 졸업생들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하여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로 되였다.

그런데 제1중학교 수가 적다보니 그 졸업생들은 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몇개 중앙대학들에만 갔다. 중요부문별대학들에

서는 1중학교졸업생들을 받지 못하고있었다. 결국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유능한 기술인재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1중학교들을 내오고 운영하는 과정에 쌓으신 경험에 기초하여 주체88(1999)년 1월 전국의 모든 시, 군(구역)들에 제1중학교를 내오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온 나라의 교육일군들과 인민들은 짧은 기간에 제1중학교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그해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수많은 제1중학교들이 새로 더 생겨나 일제히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당시 전국의 모든 시, 군(구역)들에 제1중학교가 나오게 됨으로써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는데서 큰 전진을 가져올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능있는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게 고등교육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시였다.

우선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질적으로 키워낼수 있게 대학들을 정비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대학들에도 전문분야의 특출한 인재를 키워내는 수재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시였다.

결과 대학들에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로 꾸려진 수재학급이 생겨나고 유능한 교원들이 인입되여 대상별특성에 맞게 교육사업을 진행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교육체계가 혁명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고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을 가까운 앞날에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것은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내용을 당과 수령께 충실하고 능력있

는 혁명인재들을 키울수 있게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무엇보다 정치사상교양을 첫자리에 놓고 이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가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치사상교양에서 기본은 주체사상교양을 잘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을 청년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백두산3대장군 혁명력사와 로작과목교육을 강화하고 주요한 정치사상과목의 교육내용을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완성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지식교육과 전문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중학교단계에서부터 수학, 물리, 생물, 화학과 같은 기초지식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게 하시였다. 특히 중학교들에서 콤퓨터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졸업한 다음 생산현장에서 일하는데 써먹을수 있는 기초기술교육을 지대별 특성에 맞게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의 우월한 교육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게 하시였다.

모든 교육을 철저히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현대적인 직관수단들을 널리 리용하고 토론과 련습, 실험과 실습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실지 사회주의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체득하게 하시였다. 또한 앞선 교육방법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교수경연과 교육전시회를 자주 조직진행하고 우수한 교원들은 높이 평가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교육방법분야에서 낡은 잔재가 극복되고 우리 식의 우월한 교육방법이 구현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교육은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교육으로 더욱 개선강화되여 나갔다.

정보기술교육에서의 새로운 전환

정보기술분야의 과학기술은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경제, 군사를 포함한 사회생활전반에서 비상히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보기술발전의 추세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우리 나라 정보기술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은 콤퓨터의 시대이라고,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체득시키자면 현대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 볼수 있는 콤퓨터에 대한 교육을 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다 콤퓨터를 다룰줄 알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중학교단계에서 정보기술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중학교들에서 정보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주체86(1997)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학교의 정보기술교육기간을 늘이고 콤퓨터에 대한 과외실습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콤퓨터를 다룰수 있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그에 맞게 교육내용을 새로 편성하며 정보기술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모든 중학교들에서 정보기술교육이 한층 강화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과정에 창조된 본보기단위들의 성과를 료해하시고 감사를 보내주시였으며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주체87(1998)년 11월에 진행된 전국콤퓨터교육방법토론회와 콤퓨터교육전시회, 콤퓨터경연은 중학교단계에서 콤퓨터교육수준을 한단계 높이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외교육을 실속있게 하여 학생들에게 콤퓨터기술을 깊이 체득시키도록 하시였다.

주체88(1999)년 2월 평양과 지방의 모든 학생소년궁전과 소

년회관들에 콤퓨터소조를 조직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널리 망라시켜 적극 운영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소년궁전과 소년회관들에 콤퓨터소조가 조직되고 활발히 운영되였다. 이 과정에 중학교 학생들의 콤퓨터기술수준은 더욱 높아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고등교육부문의 정보기술교육에서 전환을 일으키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대학들에 현대적인 콤퓨터들을 수많이 보내주시였다.

주체85(1996)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대학콤퓨터망의 구성상태를 료해하시였다.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주콤퓨터의 용량이 적은것으로하여 과학연구사업과 콤퓨터활용에서 적지 않게 제한을 받고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주콤퓨터의 용량문제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콤퓨터망의 구성상태를 료해하시는 첫 순간에 전문가들도 미처 헤아려보지 못했던 부족점을 꿰뚫어보시고 그 해결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김일성**종합대학에 강력한 콤퓨터쎈터를 꾸리도록 하시고 한푼의 외화가 천금맞잡이로 귀중하였던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최신형콤퓨터설비들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을 비롯한 대학, 전문학교들에도 성능높은 콤퓨터들을 보내주시여 콤퓨터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부단히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대학들에서 과학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콤퓨터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교육부문에서는 정보기술전문교육과 일반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이 불길속에 자연과학, 기술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속에서도 정보기술교육이 심화되고 전반

적인 정보기술교육수준이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정보기술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콤퓨터수재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21세기의 핵심산업인 정보산업은 능력있는 인재들의 지능활동에 의해 발전하는 두뇌산업, 지식산업이다.

다른 과학부문도 그렇지만 프로그람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인재문제는 더 중요하다. 훌륭한 콤퓨터기술인재를 양성하자면 국가적인 힘을 넣어 기초교육부터 잘해야 한다.

세계적인 정보기술발전추세를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에 10대의 재능있는 프로그람전문가들을 빨리 키우기 위한 새로운 속성교육체계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이미 있는 프로그람전문가양성체계와는 별도로 젊은 프로그람전문가양성을 위한 속성교육체계가 확립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12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콤퓨터수재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키워낼 콤퓨터수재들의 양성규모도 밝혀주시고 학생들에게 배워줄 학과목도 친히 정해주시였다. 그리고 콤퓨터수재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콤퓨터와 통학뻐스를 보내주시면서 아낌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정연한 콤퓨터수재교육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 콤퓨터기술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는 지름길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속에서도 우리 나라 정보기술교육은 새로운 전환과 비약을 이룩하였다.

7. 고난의 행군의 승리적결속과 경제강국건설 적극 추진

고난의 행군정신 발휘,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 마련

우리 당과 인민은 1990년대 중엽부터 경제건설과 경제생활분야에서 실로 형언할수 없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경제봉쇄책동과 세계사회주의시장의 붕괴,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와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하는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만난을 극복하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 특히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전체 인민이 고난의 행군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가르쳐주시고 숭고한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주체85(1996)년에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구호를 내놓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정신은 항일혁명선렬들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발휘하였던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난관극복의 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여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숭고한 실천적모범으로 전체 인민이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쪽잠과 줴기밥도 달게 여기시며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에 무한히 고무된 전체 인민들은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 강의한 의지로 이겨내면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하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에서 고난의 행군결속의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하시고 자강도인민들이 발휘한 혁명정신을 강계정신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자강도는 자연기후조건이 불리한 산간지대로서 남먼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산간지대 도를 고난의 행군결속의 본보기로 정할 결심을 내리시였다.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 창조되는 본보기는 더 큰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만큼 품이 많이 들고 정력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는 법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9월 도의 책임일군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려주시면서 한번 내밀어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그리고 그후에는 그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필요한것을 보고오게 하시고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시는 등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이에 고무된 자강도인민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자체의 힘으로 수많은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풀었고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도 자체로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남먼저 고난의 행군에 들어섰던 자강도가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락원의 행군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월 본보기단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기 위하여 대소한의 강추위도 무릅쓰시고 몸소 자강땅을 찾으시였다.

그때 도의 책임일군은 도내 경제형편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리면서 보여드리고싶은 공장, 기업소들과 중소형발전소를 다 꼽았다. 무려 20여개 단위나 되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나도 빼지 말

고 다 보자고, 날자는 이틀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목에 이른 날씨며 험한 산골지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틀동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러지 마시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강행군시기가 아닙니까, 내가 앞장서나가야 인민이 따라서고 강행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6 000여리에 걸쳐 예견한 로정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자강도인민들이 발휘한 혁명정신을 강계정신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자강도를 찾으시여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이 계속 앞장서나가도록 고무해주시면서 온 나라가 강계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무엇보다도 중앙기관 일군들과 도, 시, 군당책임일군들, 공장당비서들이 자강도안의 공장들에 다 와보고 그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특히 강계정신을 따라배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서 기간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앞장에 서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87(1998)년 3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성강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고 그 불길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세차게 타번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력과 식량문제를 푸는것을 경제강국건설의 중심고리로 설정하시고 여기에 나라의 모든 힘을 집중하게 하시였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하여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에 국가적힘을 집중하면서 도처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적극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안변청년발전소와 태천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십만kW의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를 적극 밀고나가며 토지정리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 풀판조성과 풀먹는 집짐승기르기, 현대적인 가금업과 양어를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량강도 대홍단군에서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황해남도 연안군과 자강도 장강군에서 두벌, 세벌농사의 좋은 경험이 창조되였다.

강원도에서는 토지정리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한 첫 포성이 울리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가금목장들과 양어장들이 건설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고난의 행군을 하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만 한것이 아니라 주체의 경제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는 믿음직한 도약대를 마련하여놓았다.

경제강국건설에서의 결정적전진, 고난의 행군의 승리적결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올해에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당창건 5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합니다.》

주체89(2000)년은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20세기의 마지막해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 고난의 행군의 마지막돌격전을 벌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는것은 당창건 55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그것은 또한 20세기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대한 승리로 빛나게 결속하고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짓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

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전체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다.

먼저 주체88(1999)년을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진격의 해로 정해주시였다.

그리고 년초부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 내용의 방송음악회와 방송선전차편집물을 통한 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희천공작기계공장,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등 인민경제 주요전선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전국농업부문 열성자회의,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전국**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를 비롯한 전국적인 회의들을 소집하게 하시여 그것이 온 나라 인민을 새로운 대진군에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시였다.

또한 주체89(2000)년 새해를 맞으며 발표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에서 당창건 55돐을 맞는 이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해 7월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온 나라 인민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발표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그 관철을 위한 접수토의사업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신문,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하여서는 당중앙위원회 구호와 거기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해설선전하는 집중적인 선전공세를 들이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현지에서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정해주신 주체88(1999)년에 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로부터 시작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락원기계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이끄시였다. 그리고 대홍단군종합농장, 포태종합농장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련이어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현대적인 가금목장들과 메기공장들을 찾으시여 더 많은 고기와 알,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이와 함께 신의주화장품공장, 녕변견직공장, 박천견직공장들을 찾으시고 질좋은 화장품과 비단천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들끓는 현실속에서 작전하고 대중을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주체87(1998)년에 평양－남포고속도로를 당창건 55돐까지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이 도로건설을 청년들에게 맡겨주시였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2년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100여차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청년건설자들에게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거듭 베푸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청년건설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그들은 정대와 함마로 바위들을 까내고 마대와 맞들이로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였다. 그들은 매일 흙과 돌을 40～50kg이나 넣은 마대를 메고 100여리씩 달려 로반을 닦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보아주시고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보다도 더 어려운 조건에서 공사를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특하고 장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친어버이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사랑과 믿음속에 청년건설자들은 당창건 55돐까지 고속도로건설을 끝내고 장군님께 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때에 만년대계의 고속도로를 건설한 청년건설자들의 투쟁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청년영웅도로》라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그리고 몸소 청년영웅도로를 돌아보시면서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을 높이 내세워주시였으며 청년건설자들을 만나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당창건 55돐까지 안변청년발전소(2단계)와 태천5호발전소를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창건 55돐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빛나게 결속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행사가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와 홰불행진, 인민예술축전 등 모든 경축행사들이 높은 수준에서 성대히 진행되도록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은 세계사회주의운동발전에 쌓아올린 우리 당의 특출한 공적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권위로 하여 전세계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의 공동의 경사로 되였다. 이날을 맞으며 다양한 경축행사들이 5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세계 110여개 나라에서 800여명의 국가 및 당지도자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과 축전, 꽃바구니를 보내여왔고 명예시민증서와 메달을 드리였다. 그리고 50여개 나라에서 해당나라의 집권당, 고위지도자들과 정당수반들을 비롯한 100여개 정당책임자들,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로 조선로동당창건 55

돐경축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100여개 나라에서 경축집회와 경축연회, 영화감상회와 도서 및 사진전시회, 체육행사와 경축공연 등 경축행사들이 다채롭게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은 우리 당 력사에서 의의깊은 리정표로 되였다.

당창건 55돐을 계기로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빛나게 결속하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우리 당의 권위가 온 세상에 과시되였다. 또한 우리 당과 인민은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게 되였다.

8. 적들의 군사적압력과 도발책동 분쇄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먹어보려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미제는 조미회담의 막뒤에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며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군사적압력과 도발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시대를 펼치시여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철옹성같이 다지시면서 적들의 군사적압력과 도발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적들의 군사적압력에 강경대응으로 맞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1998년말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압력은 절정에 달했다. 이해 11월 미국대통령은 전례없이 남조선주둔 미군의 동원태세를 최종점검하고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어떤 행동이라도 할 각오가 되였고 《능력》도 있다는 극히 호전적인 망발을 하였다.

더우기 미제호전광들은 제2의 조선침략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의 내용들을 다른 나라 출판물들에 뻐젓이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5027작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대한 병력과 현대적인 첨단장비들과 대형타격수단들을 투입할것을 기도하였다.

《5027작전계획》은 가소로운 망상이기는 하였으나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세계의 이목은 전쟁접경에 이른 조선으로 쏠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1월 22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5027작전계획》을 함부로 공개하고있는 적들의 진짜속심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기를 꺾어보려고 전쟁계획을 만들어 사방에 공개하는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적들의 《5027작전계획》의 침략성을 폭로하는 성명을 발표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명에서 침략전쟁에 환장이 된 미제를 강하게 때릴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성명문작성사업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전례가 없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우리의 혁명무력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에 추호도 용서없이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것이다》가 세상에 발표되였다.

성명에서는 불을 불로 다스리는것은 우리 혁명군대의 기질이며 고유한 대응방식이다, 힘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지 않다, 우리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 자리가 이 행성우에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성명에서는 또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 않으며 일단 전쟁이 강요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것이다, 우리 혁명무력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것이라는것을 주체조선의 존엄을 걸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성명은 미제의 머리우에 무서운 철추를 내렸다. 우리의 기를 꺾어보려고 침략전쟁계획을 내돌리던 놈들은 기겁하여 뒤수습을 하기에 급급하였다.

세계는 경탄의 눈길로 조선을 우러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우리 성명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가 조국의 한치의 땅과 바다, 하늘이라도 침범하는 적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83(1994)년 12월 17일 오전 전연지대를 지키고있던 인민군장병들은 공화국령공을 침범한 미제침략군직승기를 단방에 격추하여 적들을 전률케 하였다.

직승기에는 두놈의 미제침략군이 타고있었는데 한놈은 즉시에 황천객이 되고 다른 한놈은 겨우 목숨을 건지고 포로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시며 이것은 그 어떤 원쑤가 우리의 령토와 령공, 령해를 침범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실지행동으로 보여준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원쑤들에 대한 징벌은 바다에서도 벌어졌다.

미제의 비호밑에 남조선괴뢰들은 1999년 서해해상사건을 도발하였다.

서해해상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면밀한 작전을 세운 남조선괴뢰들은 거의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왔다. 그러다가 이해 6월 15일에 이르러서는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수행하고있던 우리의 해군함정들에 불의에 총포사격을 감행하였다.

당시 적아간의 력량대비를 보면 적들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데다가 불의의 선제타격으로 엄청난 우세를 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용감한 해병들은 적들을 제압하고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처음부터 된벼락을 안기였다.

우리의 해병들은 첫발로 적함선의 심장부에 통구멍을 내고 두번째 포탄도 그 구멍으로 기관을 관통시켜 순식간에 배를 두동강냈다. 전투가 벌어져 30분도 못되는 사이에 우리의 해병들은 적함 2척을 완전히 바다에 처박고 10여척을 격상시켰으며 적병 100여놈을 살상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바빠맞은 적들은 황급히 도망치고말았다.

실로 서해해상전투는 원쑤들이 우리 조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가차없이 짓뭉개버릴것이라는 우리 혁명무력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다시한번 세상에 시위한 전투였다.

이 전투가 있은 후 적들은 겁에 질려 완전히 움츠러들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적들의 온갖 군사적압력과 도발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림으로써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 인민의 안정된 생활이 담보될수 있었다.

9.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 마련

조국통일3대헌장 정립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제일 깊이 마음 써오신 문제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 친필비준하여주신 력사적문건도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자면 무엇보다도 온 민족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통일의 기치를 더욱 선명하게 내세워야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온 겨레가 일관하게 들고나갈 통일헌장을 정립하는데 특별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의 3대헌장을 정립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조국통일의지를 거듭 천명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11월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도착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부터 돌아보시였다.

이 친필비는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와 구체적인 지도에 의하여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주체84(1995)년 8월에 세워졌다. 친필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을 마치시기 하루전에 조국통일관계문건에 몸소 쓰신 《 **김일성** 1994. 7. 7.》이라는 글발이 수령님필체 그대로 새겨져있었다. 친필은 불과 9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는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뜻이 담

겨져있다.

이날 친필비를 돌아보시고 판문각 로대에 오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이 못견디게 그리우시고 수령님의 친필 존함이 또 보고싶으시여 친필비를 다시금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존함을 우러르며 친필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연한 어조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이것이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조국통일3대헌장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변함없는 의지와 끊임없는 사색과 로고에 의하여 천명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정립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정식화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그리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방안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식화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통일헌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나갈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표명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3년상을 마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로작부터 발표하신것은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의 힘있는 증시로 되였다.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립해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인민,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통일대강》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참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을 새롭게 정립해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과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립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통일거리입구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높이 일떠세웠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정립됨으로써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헌장—혁명과 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행동강령. 법적으로 규제한 행동규범이나 행동질서를 말한다.

력사적인 평양상봉, 6.15북남공동선언 채택

북남사이에 최고위급회담을 진행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토의하신 문제도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문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

을 마련하시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받드시여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해주시였다.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조국통일운동과 내외정세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세계사회주의 보루로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조국통일운동도 전민족적범위에서 더 한층 앙양되고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과 반통일분렬세력사이의 력량관계도 조국통일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이러한 대세의 흐름속에서 남조선당국자는 우리에게 평양방문의사를 공식표명하여왔다.

변천되고있는 대세의 흐름을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초에 눈보라치는 백두령봉에 오르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북남사이의 력사적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을 열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통일의지, 담대한 결단에 의하여 주체89(2000)년 4월 북남합의서가 발표되였다.

이 합의서에 의하여 6월에 남조선당국자가 평양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과의 상봉이 있게 되며 북남최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는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대사로 보시고 평양상봉준비사업에 큰 힘을 기울이시였다. 평양상봉이 마련되기까지 여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그 준비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게 하실것을 결심하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13일 오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비행장에 나가시여 남조선당국자일행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

하시였다. 그리고 남측대표단이 평양에 머무르는 기간 많은 시간을 그들과의 사업에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월 14일 남조선당국자와 여러 시간에 걸쳐 단독회담을 하시였다.

회담에서 우리 수뇌들이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에 처음으로 상봉하는것만큼 7천만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민족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여기에 동의하는가를 물으시였다.

남조선당국자는 거기에 무슨 반대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동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우리들사이에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데 합의한것으로 하자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사상에 대한 합의가 대번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평양상봉에서 이룩된 최대의 성과였고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민족대단결로선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뇌들이 55년만에 처음 만났는데 온 겨레앞에 뭔가 큰 선물을 안겨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합의해내놓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자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장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제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남북련합제안에 공통성이 있으므로 두 제안을 조절하여 공동의 통일방도를 만들어 통일을 지향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당한 말씀에 남조선당국자는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북과 남이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지향해나갈데 대한 합의가 이룩된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세상에 나온지 20년만에 처음으로 거둔 자랑찬 성과로 된다.

단독회담에서는 이밖에도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 협력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회담이 끝날무렵 남조선당국자는 위대한 장군님께 서울을 방문해주실것을 정중히 초청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넓은 도량으로 그 초청을 쾌히 수락하시였다.

오래동안 적대상태에 있던 북과 남이 이처럼 불과 몇시간사이에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한꺼번에 이룩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대화전법과 애국충정의 위대한 결실이였다.

6월 15일 단독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아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의 핵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한것이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였다.

민족분렬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전 과정은 온 겨레와 세상사람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깊이 새겨주고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준 뜻깊은 나날이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외곡된 선전만을 들어온 남조선 인민들은 남측대표단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고 환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뵈옵고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고결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실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중대한 정치적사변이였다.

북남공동선언리행 적극 추진

평양상봉을 통하여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리행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관계는 새로운 궤도우에 올라서고 일찌기 없었던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상봉이후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한 남조선기업가일행과 언론사대표단을 접견해주시고 그들을 6.15북남공동선언리행에로 고무추동하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상봉이후 처음으로 남조선에서 찾아온 한 기업가일행을 접견하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령의 불편한 몸으로 불원천리 찾아온 그를 뜨겁게 환영해주시고 그의 건강상태며 기업형편에 대해 상세히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제협력과 관련한 그의 소망을 들어보시고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몸소 해결해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력사적인 평양상봉후 남측의 손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자기를 만나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장군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였다. 그리고 평범한 한 기업가인 자기를 따뜻이 대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에 깊이 머리숙여 탄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한 기업가일행을 또다시 접견하시고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은 남조선과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평양상봉과 더불어 급격히 고조되고있던 겨레의 통일열망을 더한층 북돋아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한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단과의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언론인들은 사회여론의 대변자, 정의와 량심, 민족자주정신의 전파자이다.

언론인들이 자기의 본분과 사명에 맞게 모든 활동을 북남공동선언리행에로 지향시켜나가야 통일애국위업에 이바지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상봉과정에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단을 초청하시고 그 영접준비로부터 방문일정, 참관조직전반을 료해하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2000년 8월 남조선의 주요신문, 방송회사 사장, 총국장들과 관계자들을 망라한 큰 규모의 언론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은 만경대와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여러 대상들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도 방문하였고 백두산정에 올라 백두산의 장엄한 해돋이도 부감하였다.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의 평양방문에서 최절정을 이룬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들을 접견해주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 시간동안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그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우리 민족이 당하여온 수난에 찬 분렬의 력사를 회고하시면서 새 천년대의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며 특히 언론인들이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어 남측언론사대표단이 관심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 대해서도 명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힘의 원천으로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가 일심단결이고 두번째가 군력이다, 군력이 있어야 외국과의 관계를 자주적립장에서 풀어나갈수 있다, 다른 나라와 친해도 군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세에 롱락당한 리조말엽의 대원군이나 민비신세가 될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문제로부터 국제정치문제에 이르기까지 남측성원들이 문의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단마디로 명쾌하게, 때로는 해학적인 표현으로 누구에게나 가슴 후련하게 명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만나주신것은 그들이 6.15북남공동선언리행에서 언론인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는데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의 평양방문기간 북과 남의 언론인들은 한자리에 모여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해 함께 노력할것을 다짐하고 북남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을 채택발표하였다.

그후 남조선의 언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적극 소개선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북남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에 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 합작과 교류를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북남상급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북남군사당국자회담, 북과 남사이의 큰 규모의 가족 및 친척방문단의 호상래왕, 우리 당 창건 55돐에 즈음하여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의 평양방문 등이 진행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북남관계는 대화없던 랭전의 시대로부터 대화있는 새로운 화해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위한 투쟁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세계에는 옥중투쟁을 하여 소문이 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30년, 40년 옥중투쟁을 하면서 전향하지 않은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남조선혁명가들속에서만 나올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생존여부가 알려지기 시작한 1990년대초부터 그들모두를 데려올 결심을 하시고 비전향장기수송환을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수령님과 당을 믿고 수십년동안 형언할수 없는 악형과 박해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켜온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데려와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리인모선생님이 조국의 품에 안긴 그 다음해인 주체83(1994)년 2월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어떻게 하나 모두 데려올 결심을 하고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불굴의 애국투사들을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해주시였다. 비전향장기수송환투쟁은 국내외적으로 나날이 확대발전하여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전환되고 국제적인 관심사로 되였다.

비전향장기수송환투쟁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때 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를 제기하시고 그것을 6.15북남공동선언의 중요한 조항의 하나로 박아넣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비전향장기수송환은 기정사실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있어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의 공화국북반부에로의 집단적송환이라는 인류사적사변이 일어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통일애국투사들을 높이 내세워주시고 온 나라 인민들이 그들의 높은 충실성,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으며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언론인—신문, 잡지, 방송 같은 언론수단을 통하여 언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 총련의 민족교육사업 강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그 담당자가 1세, 2세로부터 3세, 4세에로 바뀌여지고있었다.

세대교체는 단순히 년령상에서만이 아니라 동포들의 사상의식과 인생관, 생활풍조 등에서 1세대, 2세대들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있었다. 일부 새 세대 동포청년들속에서는 조국의 귀중함을 잘 모르고 민족성이 희박하며 총련애국운동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현상

이 나타나고있었다.

한편 이 시기 총련을 허물고 새 세대 청년들을 공화국의 품에서 떼내려는 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었다.

조성된 실태는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이 사업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은 애국위업을 이어나갈 총련일군들과 동포군중핵심을 키워내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총련의 존망과 애국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직접적담당자인 교육일군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7월 전례없는 최대규모의 교육일군대표단을 사회주의조국으로 불러주시였다.

대표단은 조선대학교 학부장이상 일군들과 총련간부학교 교장들, 20년이상 민족교육사업에 몸바치고있는 공로있는 교원들, 앞으로 교육핵심으로 키울 젊은 교원들로 구성되였다. 교육일군대표단은 20여일간 조국에 머무르면서 정치강습과 실무강습, 참관과 경험교환, 사업토론 등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한계단 높이였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총련에서는 매해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년에 2차 과목별강습을 진행하고 지방별로 교육연구모임도 조직하군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널리 일반화해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재일본조선인중등교육실시 50돐과 조선대학교창립 40돐이 되는 주체85(1996)년에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주체85(1996)년을 민족교육의 해로 정하고 전 동포적인 민족교육운동에 떨쳐나섰다.

온 동포사회가 민족교육운동으로 들끓는 속에서 조선대학교창립 40돐을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대학교창립 40돐 기념행사를 잘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대학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력사물모조품과 동식물표본들을 총련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보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이해 6월 총련에서는 기념대회를 비롯하여 대야유회, 대동창회, 기념학술보고회 등 조선대학교창립 40돐 기념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것은 공화국의 유일한 해외교포대학으로서의 조선대학교의 위용을 크게 떨친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이해 10월 총련은 재일본조선인중등교육실시 50돐을 맞이하였다.

지난 50년동안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본땅에 재일동포들의 정연한 중등교육체계를 세워놓고 새 세대들을 민족의 대, 애국위업의 대를 이어갈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워냈다.

뜻깊은 중등교육실시 5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앙인민위원회(당시) 명의로 된 축전을 보내도록 하시고 조국의 교육문화대표단과 평양음악무용단을 일본에 파견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총련교육일군대표단을 조국에 부르시여 연회도 크게 마련해주시고 공로있는 수많은 교육일군들에게 **김일성**훈장을 비롯한 높은 국가표창과 학위학직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중등교육실시 50돐에 즈음하여 도꾜조선중고급학교에서는 중앙대회가 진행되고 이어 재일동포대문화축전이 조직되였다. 동시에 일본의 각지에서도 20여만의 동포군중의 참가밑에 다채로운 기념모임과 동포문화축전, 동포운동회, 학생체육대회와 예술경연대회들이 전례없이 크게 벌어져 온 동포사회가 흥성거렸다.

총련의 교육사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대렬을 늘이는 문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문제를 놓고서도 깊이 마음쓰시였다.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학생대렬을 늘이는것이였다. 그것은 내외반동들의 민족동화책동이

집요하게 감행되고있는데다가 오래동안 일본땅에서 살면서 민족성이 희박해진 일부 동포들이 자녀들을 조선학교가 아니라 일본학교에 보내려고 하는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학생대렬을 늘이는 사업을 전 동포적인 사업으로 전환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총련의 각급 조직들에서 학생대렬을 늘이기 위한 선전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대중적인 교육강연회들이 진행되였다. 녀성동맹과 상공회를 비롯한 총련의 모든 단체들이 학생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실 때와 꼭같이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또한 주체84(1995)년 1월 일본 효고현을 비롯한 긴끼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즉시 위문전문과 함께 거액의 위문금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에서는 큰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이 과정에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애국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되였다.

11. 자주의 새 세계 건설 향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재건운동 적극 추진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위업, 세계혁명은 참으로 커다란 손실을 당하였다.

이를 기화로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영영 없애버리려고 반사회주의적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외선전을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갈뿐아니라 리론선전을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사상리론으로 혁명적인민들을 무장시키는것은 새로운 사상적기초우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사상리론이 집대성된 고전적로작들을 번역출판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이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더 많이 번역출판되여 널리 보급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3(1994)년 11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발표된 후 석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세계 여러 나라들의 210여개 출판보도물에 게재되거나 소개되였다. 그리고 60여개 나라들에서 220여회에 걸쳐 연구토론회, 강연회, 독보회, 해설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연구보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국제적인 토론회를 통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사상리론을 널리 선전보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깊은 관심속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들이 세계적규모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였다.

1995년 2월 단마르크의 수도에서는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토론회 공식문건으로 채택하였다.

국제토론회들은 이밖에도 1996년 2월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자주, 평화, 친선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학술토론회, 이해 4월 에꽈도르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비롯하여 세계도처에서 여러차례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여러 나라 혁명적당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쏘련식사회주의가 여러 나라에서 좌절된 이후 주체사상과 조선식사회주의를 동경하면서 우리 당 건설과 사회주의건설경험을 따라 배우려는 혁명적당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재건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 단체들이 수많이 출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당대표단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이 나라들의 혁명적당들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하시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 파견된 우리 당대표단들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건설리론과 경험을 적극 해설선전하였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한편 사회주의재생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보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사회주의재생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과 개별적인사들을 많이 초청하여 우리가 사회주의보루를 어떻게 지켜나가고있는가 하는것을 직접 현실로 보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군중시위와 열병식, 집단체조와 홰불시위, 야회 등 중요행사들을 외국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가적인 기념행사들에 다른 나라 대표들을 참가시키는 문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는가 하는것은 공화국창건 50돐경축열병식 및 군중시위때 있었던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공화국창건 50돐을 앞둔 8월에 우리 나라에는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위원장이 왔다.

그는 8월 25일부터 한주일간 우리 나라에 체류한 다음 9월 1일에 귀국하게 되여있었다.

귀국날자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따라 그는 이제 곧 벌어지게 될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으로 마음이 몹시 허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대표단과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시다가 이 사실을 아시고 그가 한주일정도 더 머물러있

다가 우리 나라에서 경축행사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도록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나라 체류일정을 10일간이나 연장하게 되였으며 그토록 바라던 공화국창건 50돐 행사참관을 마음껏 하게 되였다.

그는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진행된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보고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의 위력을 잘 알수 있게 되였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현실에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동지적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 외국인사는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위원장 한사람만이 아니였다. 그들중에는 전 쏘련국방상과 전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도 있었다.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수많은 정당지도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의 참모습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더 굳게 확신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재건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자본주의나라의 한 출판물은 살아움직이는 사회주의리념에 위구를 표시하면서 《사회주의, 그 리상이 끝난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썼다. 미국의 정세분석가들도 《북조선땅에서 타번지는 사회주의열기는 21세기 그 어느때에는 반드시 세계의 모든 지역에 만연》될것이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미제의 세계제패야망 분쇄

랭전이 종식된 후 미제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분별없이 날뛰였다.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독립이냐 예속이냐 하는 심각한 투쟁이 더욱 치렬하게 벌어졌다.

이 대결전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양보는 파멸과 죽음의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미제에 대하여 환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양보하거나 후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세계화》,《일체화》의 미명밑에 다른 나라와 민족을 동화시키고 예속시키려는 미제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1990년대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일체화》흐름이라는 새로운 강도적궤변밑에 다른 민족을 말살하고 지배하기 위한 반동정책을 악랄하게 추진시키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6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일체화》책동의 반동적본질과 그를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 꾸며낸 세계의 《일체화》흐름이라는것은 전세계를 서방식《자유세계》로 만들며 모든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자는 악랄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는 강도적궤변이라고 밝히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혁명운동에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한 원칙적요구라는것을 밝히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일체화》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앞길이 환히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미제의 《세계화》, 《일체화》책동에 맞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의 책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우심한 라틴아메리카지역 진보적정당들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당들의 활동을 잘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주체87(1998)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사회 건설에 관한 아메리카지역 정당들의 제2차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 토론회에 파견할 우리 당대표단의 활동방향을 제시해주시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우리 당대표단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토론회가 미제의 《일체화》, 《세계화》책동의 반동적본질을 폭로규탄하는 마당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실천적인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그후 주체88(1999)년 2월에 열린 제3차 토론회에서는 사회주의와 반제자주를 위한 진보적세력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앞으로 《새 사회 건설에 관한 아메리카지역 정당들의 토론회》를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위한 세계정당들의 연단》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들에서도 미제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반대배격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의 《일체화》, 《세계화》책동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여지없이 분쇄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사적힘으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미제는 세계의 《일체화》라는 강도적궤변과 함께 군사적힘으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것은 유럽의 발칸지역을 틀어쥐려는 군사행동에서 로골화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와 나토의 침략책동에 완강히 대항해나서고있는 쓰르비아 및 쯔르나고라(당시)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였다.

미제는 쓰르비아 및 쯔르나고라정부가 자기의 령토인 꼬쏘보에 나토군을 주둔시킬데 대한 서방측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것을 구실로 1999년 3월 나토를 동원하여 이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공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랭전이 종식된 후에 벌어진 가장 큰 침략전쟁이였다.

미제와 나토는 78일동안이나 쓰르비아 및 쯔르나고라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들씌워 무고한 인민들을 수많이 죽이고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입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평화를 지향하는 현 국제관계를 엄중히 파괴한 미국과 나토의 오만한 침략행위를 엄중시하고 준렬히 단죄규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에 따라 외무성대변인담화가 발표되고 여러 대외적조치들이 취해졌다.

그해 5월 그리스에서 개막된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에 참가한 우리 당대표단은 쓰르비아 및 쯔르나고라에 대한 미국주도하의 나토의 군사적침공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우리 당과 정부의 원칙적이고 선구자적인 역할은 세계진보적정당들과 중국, 로씨야, 꾸바 등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의 진의도를 발가놓고 그것을 짓부셔버리도록 하시였다.

세계에 대한 패권적지위를 독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 미제는 1999년에 들어서면서 《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를 들고나와 세계를 위협해나섰다.

미제의 앞잡이인 일본은 미제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지지하면서 우리의 그 무슨 《미싸일위협》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년 3월 미제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반대하는데로 세계적인 예봉이 집중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미제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이 우리때문에 시작된것처럼 그릇되게 생각하고있는 일부 나라들의 견해를 바로잡아주어 그들이 옳은 립장에 서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에 따라 미제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의 진의도를 까밝히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담화가 발표되였다.

담화에서는 미제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이 본질에 있어서 압도적인 군사전략적우위를 차지하여 대국들을 견제, 제압하고 세계패권을 틀어쥐자는것이라는것을 밝혔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과 로씨야를 겨냥한 놀음이라는것과 이 놀음이 허용되는 경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

대변인담화의 발표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 경종을 울려 그들의 각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리하여 2000년 유엔총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미제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이 배격당하였으며 미제는 더욱더 고립되여갔다.

로씨야의 한 신문은 《수백년동안 세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해온 미국은 다음세기에 반드시 붕괴되여 세계정치지도우에서 그 존재를 상실할것이다.》라고 썼다.

랭전—포화력이 오고가지 않는 찬 전쟁이라는 뜻으로 《직접 무력을 쓰지는 않으나 적대적대립이 극도에 이른 상태》를 열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중국, 로씨야와의 친선협조관계 발전

우리의 린방인 중국, 로씨야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시기 전통에 비추어 중국방문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세기가 교체되는 시기인 주체89(2000)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을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문기간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여러차례에 걸치는 회담과 상봉을 하시였으며 베이징시내의 여러

대상들을 참관하시였다.

회담과 상봉들에서는 두 당, 두 나라사이의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으며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두 나라 수령들이 조중친선을 중시하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고 하면서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세기가 교체되는 시기에 조중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의 념원과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리롭다고 인정하였다.

중국 당 총서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기가 교체되는 중요한 력사적시기에 중국을 방문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두 당, 두 나라의 호상리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중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회담과 상봉에서는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지지와 련대성이 표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문기간 천안문성루와 련상그룹콤퓨터생산공장을 참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은 조중친선을 더욱 튼튼히 하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강화하는데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로씨야련방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이웃나라인 로씨야와의 관계는 쏘련이 해체된 다음 한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조로 두 나라, 두 인민들의 리해관계와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서로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1월 외교부(당시)의 한 책임일군을 찾으시여 로씨야정세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로씨야도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로씨야가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교정책을 다시 조정하게 된것은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로씨야는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교정책을 조정하면서 조로사이에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씨야가 제기하는 새 조약이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다지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리념에 부합되게 체결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88(1999)년 3월 평양에서는 조로사이에 새로운 조약이 가조인되고 그 이듬해 2월에 정식조인되였다.

우리 나라와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조인은 두 나라 관계발전력사에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씨야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이 조로관계개선에서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하시였다.

로씨야대통령은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자들과 견결히 맞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해나가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 방문을 희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씨야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잘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특히 조선반도주변에 조성된 정세의 특징과 주변나라들의 동향을 헤아리시고 이번에 공동선언을 발표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담을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7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대통령과의 대외사업을 정력적으로 하시였다.

단독회담에 이어 전원회담을 하시였다.

회담들에서는 두 나라 정세를 호상 통보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담을 마치시고 조로공동선언조인식에 참석하시여 로씨야대통령과 함께 선언문에 수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진행하신 상봉과 회담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와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자주시대의 탁월한 지도자》, 《사회주의의 상징》,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오늘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에 의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신다.

공동선언—둘이상의 조직체와 국가들사이의 회담 또는 국제회의의 결과를 그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공포하는 선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중학교 제6학년용)
제 3 판

집 필 부교수 리관주, 부교수 리명호, 부교수 김광일, 리정순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량인옥, 주 영
장 정 류명심 콤퓨터편성 리은경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2판발행 주체97(2008)년 2월 22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9월 4일

교－12-보-862 값 15 원